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805-806 1982년 4월23일(금), 24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April 23 & 2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PR 23 1982

휴전선서 총격전 4시간

북괴군 4명 귀순 기도

북한측 사상자 인정, 아군측 피해 경미

(서울본사전화)북괴는 21일 새벽 동부전선 화천 북방 26km지점 비무장지대에서 미군초소를 향해 집단탈출을 기도한 북괴군병사들에게 82미리 무반동자동소화기 800여발을 발사했다.

한국군은 이날 새벽 2시45분경 4명의 북한병사가 야음을 이용, 금성천을 건너 아군초소로 귀순중인것을 발견, 50여발의 예광탄을 쏘아 올린후 확성기로 "현 위치에 정지하라"고 방송했다.

신원이 노출된 북한병사들은 다시 잠적했으나 새벽 5시25분 지뢰폭발음으로 북한병의 탈출을 알아챈 북괴군은 이들 병사들과 아군초소를 향해 집중사격했다.

국방부발표에 따르면 집단탈출을 기도한 4명의 북괴군 병사가 사상당한것이 이날 아침 확인됐다.

이날 사건으로 아군은 철조망이 약간 파괴됐을뿐 인명피해는 없었다.

아군초소는 북괴군의 접근에 대한 경계태세로 예광탄을 쏘아 올리면서 접근정지를 명령한 것이다.

사상된 북괴병의 계급등 신원, 귀순동기등은 일체 밝혀지지 않았으나 4명이나 되는 병사의 집단탈출 시도는 처음있는 일로 알려졌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이날 공격받은 아군들은 즉각 반격,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총격전이 4시간이나 계속됐다.

북한은 사상자 발생을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은 남한측의 북한측 「시민경찰」순찰대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과일 수입금지철폐 전염병 예방강화

(서울21일=연합) 한국농·수산부는 21일 미국, 대만, 호주등지에서 수입되는 과일에 대한 수입금지를 철폐키로 했다.

농·수산부대변인은 이같은 수입금지철폐 이유는 전염병방지대책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Without fear or favor --The Korea Times--

반미성명목사 4명 소환

검찰,정치활동,북한동조혐의

(서울21일=연합)서울지방검찰은 21일 반미성명사건과 관련, 4명의 저항목사들을 소환했다.

동 반미성명의 원인과배경을 조사키로 했다는 검찰은 21일 동성명이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을 정당화하고 북한에 동조했으며 그같은 성명발표는 종교의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대회신기록으로 테이프를 끊은 알버트·살라자르 선수. 그의 기록은 2시간8분48초. 〈보스턴 〉

보스턴 마라톤 살라자르 優勝

2시간 8분 48초 大會新기록

〈보스턴— 〉 세계적으로 전통있는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알버트·살라자르가 2시간8분48초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올해 보스턴대회는 제86차로 19일 유서깊은 보스턴에서 약1백만명이 환호하는 가운데 26마일 3백85야드구간에서 거행됐다.

이날 보스턴다운타운내 프로덴셜센터를 기점으로 교외를 일주한 대회는 기온이 60도이하로 좋은 날씨를 보였다.

살라자르는 그의 세계기록보다는 35초나 떨어졌으나 보스턴대회기록을 깨는데는 성공했다.

살라자르선수에 이어 2위로 입상한 딕·비어드슬리는 미네소타출신이며 1등과는 불과 2초차이었다.

여자부문에서는 서독의 샬롯·테스카가 차지했다.

가톨릭信徒 1천여명 17일 街頭示威

〈서울17일— 〉 1천여명의 청소년 가톨릭신도들은 17일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 구속된 최기식신부를 지지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혜화동성당에서 열린 종교지도자들의 4·19혁명에 관한 강연이 있은 후 있었는데 시위자중 일부는 반정부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경찰은 이중 10명의 학생을 체포했으나 정식구속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는 최신부를 옹호하는 주교상임위원회의 성명서를 살포하기도 했다.

특기출전 미녀 5명

미인대회 남버 추첨

제7회 캐나다미스코리아선발대회 출전 미녀들의 남버가 결정되고, 특기출전 지망자도 결정됐다.

21일 저녁 토론토한인회관 강당에서 모인 출전후보 첫 소집에서 추첨결과 대회 출전자들의 고유번호가 아래와 같이 정해졌다.

1번 : 안주영
3번 : 이정숙
5번 : 함승희
6번 : 석인혜
7번 : 김선미
8번 : 이은주
9번 : 윤혜련
10번 : 이용원
12번 : 박은희

출전번호중 2번과 11번은 권미리양과 이사샤양의 이날 결석으로 공번으로 남았다.

특기상과 인기상은 본대회 심사채점과는 별도로 책정, 진·선·미·매너상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한편 특기출전 희망자 5명은 금요일(23일) 제2차 소집, 연습날에 예비심사를 받는다.

◆특기종목·출전자

3번 : 이정숙—현대무용
6번 : 석인혜—스피치
7번 : 김선미—조화 (꽃만들기)
8번 : 이은주—연기(연극)
9번 : 윤혜련—피아노연주

이날 첫 소집일 연습에는 이광민씨 지도, 장기철·피세영·전인숙·나옥녀씨 평가·조언으로 진행됐으며, 박인순한인회장 환영사, 이석현심사위원장의 심사기준 설명, 심사위원 소개들이 있은 후, 하오 9시경 끝났다.

◆미인대회 심사위원들
왼쪽 두번째부터 김호·유희자·전인숙·전경수·이석현(위원장). 왼쪽끝은 이대환 캐라반위원장, 오른쪽끝은 박인순 한인회장.

북한, 토론토서 새전술

정치선전 물씬 공산당판「춘향전」

불온문서, 괴영화상영등으로 캐나다 침투를 꾀하는 북한당국은 이번에는 TV방송망을 통해 북한제작영화「춘향전」방영을 시도했다가 최종순간 실패했다.

토론토서「TV한국」등 주로 에트닉 방송을 방영하는 복합문화방송국 MTV는 이달초 토론토교포 강원진씨로부터 영화「춘향전」의 방영을 교섭받고 이를 세계 각국의 영화를 소개하는 방계회사 CITY-TV(채널 79)의 토요아침 프로에 내 보내기로 결정했다.

MTV는 TV한국 담당자 김정숙(아나운서)양에게 이 프로의 광고주를 구해 총2천달러 수입을 올리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실업인 협회, 미도파 백화점등이 스폰서로 나섰고, 방영시간까지 결정되어 본사는 이를 기사화 하려고 했다.

그 후 MTV가 한국영화를 구한 경로등에 의심을 품은 김양은 필름을 검토, 북한제작영화임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다.

이 영화는 정치선전을 위해 각색한 공산당판이었다.

소식을 통고받은 토론토총영사관의 박영철부총영사는 MTV부사장을 만나 북한공작의 실상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 「춘향전」방영이 취소되고, 「종군수첩」(※한국일보 22일자)으로 대치된것이다.

「종군수첩」은 24일 상오 8시 채널79로 방영된다.

「춘향전」 방영을 시도했던 강씨는 CN철도회사에 근무하는 좌파인사로 알려졌다.

"가톨릭 최종승인 안거쳐 지주교도 내용조정원했다"

(서울21일=연합)한국기독교 행동기구(KCAO) 가 지난17일 발표한 반미성명은 가톨릭측과 최종합의를 못거친채 성급히 공개된것으로 일부 신부들이 성명했음에도 불구, 가톨릭교단과 일부견해차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KCAO는 지난18일 성명에서 한국[illegible] 모욕적 언사를한 워커 주한미대사와 위컴 주한미사령관의 본국소환및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성명서 초안에 가담했던 한가톨릭신부는 KCAO의 산하기구인 도시산업 선교회(UIM)가 가톨릭의 반대에도 불구, 성명서를 공개하지않겠다던 약속을 지키지않았다고 밝혔다.

이 신부는 또 원주 교구의 지학순주교가 성명의내용이 너무"과격"해서 일부를 삭제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하고, 내용조정을 위해일차 더 회합을 갖기로 했다가 도시선교회가 앞질러이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신임 이준식 관장

이준식관장 부임 토론토무역관

토론토한국무역관의 신임 이준식관장(43)이 4월초 부임, 근무중이다.

조성호 전임관장의 후임인 이관장은 뉴욕무역관, 워싱톤무역관을 거쳐 최근까지 코트라본부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불어에도 능통한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예금금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일	14%	
	90일	14.25%	
	180일	14.5%	12.75~15%
	365일	15%	
	2년	16%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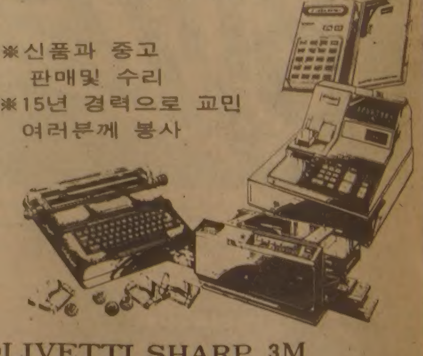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창사5주년 사상최초
대 재고정리 세일

30~50% OFF
다이아몬드
각종보석·
귀금속
일본산 진주
비취
고급시계
카나다보석 협회 회원
고려보석
EATON CENTRE
(Level 1분수대 옆)
중앙분수대옆
979-3196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5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교포가게 강도증가에 큰 관심

경찰, 예방책 강좌개최 등 원해

토론토경찰국의 에릭·라이트(Eric Wright) 인종문제담당국장(Staff Superintendent, Coordinator, Race Relations)과 딘·오드리(Dean Audley)이민국담당과장(Staff Sergent, Ethnic Relations Unit)등 경찰간부들은 14일 밤 토론토 웨스틴·호텔에서 있은 소수민족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교포상점에 대한 강도증가에 큰 관심을 보였다.

라이드국장은 "한인경영상점에 강도가 많은 줄 안다. 우리는 한인사회업계 지도자들과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상점 경영자들을 위해 강도 예방책및 대응책등에 관해 특별강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오드리과장은 "한인상점에 대한 강도 문제를 강도전담반및 범죄예방반과 의논하겠다. 한인 경영자들이 강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최대한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반(Crime Prevention Unit)의 크리스토퍼·퍼난데즈순경은 15일 온타리오주 실업인협회와 접촉, 강도예방 강좌건등을 상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본 토론토 한국일보사 대표들은 "경찰이 코너스토어 보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빨리 세우지 못하면 상점주들은 경찰국 앞에서 데모를 벌일지도 모른다"면서 강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경찰의 적극대책과 보호를 원하는 상점주들의 의견을 전했다.

경찰통계에 의하면 81년 토론토지역에서 발생한 강도·절도사건은 2,095건이며, 금년 1,2월 2개월간에는 481건이 발생했다. 이중 대부분 사건은 코너스토어에서 발생했다.

이민족 담당과는 소수민족이 관계된 모든 사건에서 이민족의 습관, 전통, 문화등을 경찰당국에 이해시켜 간접적으로 사건해결을 돕고, 양자간의 마찰을 줄이는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현재 교포출신 경찰관은 1명도 없다.

이밖에 이날 교환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어느 민족이든지 범죄자는 총인구의 1%미만이다.

●인종별로 본 범죄자의 통계는 작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인종이 더 범죄를 저지르는지는 모른다.

●한국인 교포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더라도 그는 평생 소수민족(Minority)또는 이민족(Ethnic)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흑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런 단어는 모두 부당하다.

●"인종적 편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되는 많은 사건이 인종적 동기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백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웃 소수민족자와 분쟁이 생겼을때는 인종모욕적인 욕지거리를 퍼부을 수 있고, 조사나온 경찰은 백인이 옳다고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경찰국은 예산절약을 위해 경찰관 채용을 억제하고, 비경찰요원을 더 많이 채용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위급한 경우를 당한자가 위급전화번호 911을 돌렸으나, 영어로 표현 못할때 전화를 끊지만 않으면 경찰은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경찰국 대표들이 에트닉 언론인들에게 업무를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히치콕 공보, 오드리 소수민족담당과장, 커쉬바움 캐나다 에트닉신문협회장, 에릭·라이트 인종문제국장, 이태리계 담당순경.

이상적 목회자상

홍순관(동부장로교회 목사)

한인교역자회 회장 홍순관목사(동부장로교회)는지난3일 대한교회의 조남유목사 취임식에서「이상적목회자상」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내용을 발췌소개한다.

◇ ◇ ◇

이상적인 목회자가 못되면서 이상적인 목회자상을 이야기하는데 괴로움이 있다.

우선 목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것을 믿어야한다. 인간편에서 마음대로 그만두는일이 아니다. 목회는 하면 할수록 인간편에서는 자신이 없는 일로 발견된다.

목회는 물량적 성공, 전시효과, 허영이나 욕망으로만 되는일은 아니다. 목회의 성공을 교인의 머리수나 건물, 사례금의 양으로 측정할 수 없다. 전 인간적 목회를 통해 교인과 함께 자신이 영적으로, 인격으로, 전인간적으로 성숙해나가는 척도를 보아야한다.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지고, 확대되고, 태워지고, 기쁨을 가진 목자로 구원의 축제와 새 포도주의 맛을 전달해야 한다.

목회자는 회중의 유익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것이지 자기에게 좋아서 머무는것이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유익을 위해서는 떠나고 머무를 자유를 가져야한다. 교인들과 대항해서 끝까지 싸우고 한 자리에서 자기 무덤을 파려고 한다면 그건 자유함을 거부한 상태다. 즉 회중을 위해서는 자기 중심을 넘어서야한다.

목회자는 돼지를 치는자가 되지말고 양치는자가 되야한다. 죄의식을 증가시켜 의식을 억압하는일, 임박한 종말론을 의지해서 겁주는일, 율법적인 명령과 계명의 강요, 또는 자신이 인간이상의 자질, 종교적 천재성 또는 특별한 카리스마가있는듯이 자기 뻬일을 시도하는것등은 돼지치는 방법일 것 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지팡이로 그 방향을 가르킬줄 안다. 이리와 사나운 짐승이 있는 들판에서도 자신이 앞서나아 간다.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인간적 권위나 전통의 위협으로 덮어씌우는 방법보다 인간해방, 양심해방, 죄의식에서 자유케하신 주님의 목회를 배워가야 한다. 어떤 형식의 껍질이나 틀속에 날아가야 할 새를 가두어두고 기어다니는 짐승이 되라고 억압할 수 없다. 개교회의 기구주의와 형식, 막아놓은 안일한 담, 자기방어의 전통적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처럼 폭발하도록 해야한다.

특히 이민 목회는 코너스토아식의 이민교회나, 보따리 풀어놓는식의 목회나, 복덕방 목회 패턴을 넘어 내면적 기초적 작업으로 부터 출발하는 목회가 되야한다. 이민자가 감정과 감각으로 느끼는 결핍을 등한이 해서는 않되지만 하나님이 이민 역사성속에서 명령하신것도 가르쳐야 한다.

이미 광야로 향진해 들어간 2세들과 연속성있는 목회 환상을 가지고 감상주의나 원한풀이, 집단축제를 넘어 사람을 부르고, 세우고, 파송하는 사도적 소명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진리자체도, 노래자체도 아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일뿐이다. 고향에서 가져온 김삿갓노래만 불러달리고 할때 목회자는 나그네된 이민속에서 새롭게 불러야 할 하나님의 신성한 노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홍순관 목사

이민교회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불유쾌한 기억속에 밤과 낮, 무의식과 의식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목회자는 교우들의 정신속에 복되고, 더없이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주어 저들의 삶을 부유하게 해야한다.

목회자는 몇가지가 준비된 상태에서 일해야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첫째는 영적으로, 둘째는 지적으로 장비를 갖춰야한다. 다음에는 여러가지 은혜를 담아 나누어 줄 깊은 그릇, 깨여지지 않은 좋은 성품의 그릇이다.

끝으로 교회안에서는 광신적으로 목회자를 받드는 그룹을 형성하면 않된다. 특혜나 특별한 사람과 관심을 베풀지 말도록 가르쳐야한다. 교인들은 인간적으로 서로 좋고, 기호에 맞고, 이권이 같아서 이루어진 모임을 지양하고 모든 수고와 봉사를 개인의 신앙고백의 기초 위에서 해나가야 한다. 믿는일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축복을 위한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일로 받아드려야 한다. 집사와 장로가 되는것이 목표가 아니라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관심이 앞서야한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과거의 편견으로 제한하지 말아야한다. 즉 편견의 틀에 가두어 뛰어나가지 못하게 제한하지 말고 새롭게 오신 하나님의 새 일꾼으로 받아드려야 한다. 위대한 회중만이 위대한 목회자를 생산할 수 있다.

$3백 내면 개안수술

맹인후원회, 봉사활동 활발

"제 눈에 모든 사물이 보여질 때는 눈물과 기쁨 뿐이었읍니다.

"글씨 써본지가 너무 오래돼서 대필하였읍니다."

지난 38년간 눈뜬 장님으로 어두운 세상을 지내왔던 한국의 농부 정경해씨가 온타리오한국맹인후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79년 여름 토론토를 방문한 한국맹인선교부 홍은숙여사의 호소에 감동된 토론토교포들은 작년에 맹인후원회를 구성, 지난 만1년간 정경해씨를 비롯'3명에게 광명을 찾아주었고, 김지연외 5명에게 장학금, 노인맹인 구호를 위해 2천여달러를 지출했다.

단돈 300달러(한화 20만원) 수술비가 없어 빛을 못보는 한국 맹인수는 만5천명에 달한다. 안과의사협회 호의로 맹인들의 개안 수술은 무료이며 약값만 부과된다.

12만명으로 추산되는 한국 맹인들을 위한 후생, 교육사업등은 아직 미진한 실태이다.

"교민들의 호응에 감사한다. 가입비 50달러의 신입회원이 6명만 되면 맹인 1명에게 광명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원종필후원회장은 많은 교민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미 한국 맹인선교부의 추천을 받은 시력장애자 8명의 수술을 지원키로한 맹인후원회는 지난 3월「등불중창단」이 나이아가라한인교회에서 가진 공연으로 약600달러를 모았고, 북미연예인들의 자선공연 계획등을 세워 금년도 사업 목표액을 6,000달러로 책정했다.

교포 맹인바이올리니스트 박명진씨(※한국일보 4월15일자)의 자선공연도 구상중이다.

(맹인협회 주소 : ONTARIO FUNDATION FOR THE KOREAN BLIND, BOX70, POST. STATION 'B', TORONTO, ONT. M5T 2T2 전화 : 593-8943)

캐나다巨富 스포츠맨 自宅서 人質로잡혀

〈에드몬톤·알베르타-〉천만장자 캐나다인 스포츠맨이며 흥행업자인 피터·포클링턴이 20일 자택에서 단독범인에의해 인질로 붙잡혔다고 경찰이 밝혔다.

포클링턴은 신원이 밝혀지지않은 다른2명과 함께 인질이 되었는데 범인의 신원에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있다.

불광사, 초파일 행사

개원 5주년 기념식도

◆석광옥 스님

토론토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불광사(주지 : 석광옥)는 오는 5월1일 사월초파일「부처님 오신 날」행사를 개최한다.

금년으로 개원 5주년을 맞는 불광사는 개원기념식도 같이 거행한다.

행사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5월1일
11시 : 불공
12시 : 만발공양
3시 : 향공양
4시 : 꽃공양
7시 : 봉축행사, 초파일의식, 불광사 개원 5주년 기념식
7시30분 : 관등식, 대중공양(저녁식사)
장 소 : 불광사 (288 HOUNSLOW AVE. WILLOWDALE)
전 화 : 223-9122

533 2361

기발한 상혼 : 포클랜드 분쟁 비데오 게임

▲포클랜드섬 사태로 영국과 알젠틴간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미국의 홈컴퓨터 서비스회사「프레스틀」은 영국해군소속 잠수함이 알젠틴함대를 공격하는 비데오게임을 개발, 인기를 끌고 있다.

선련사, 부처님오신날 봉축식

사찰건립바자, 건강식품소개

◆김삼우 스님

토론토소재 한국불교회 선련사(주지 : 김삼우스님)는 불기2526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오는 5월1일(음력4월초파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다음과 같이 봉행한다.

◆5월1일(토)
상오11시 : 봉축법요식 - 송주불공, 서가모니불정근좌정, 법어〈삼우스님설법 - 「서가모니부처님의 생애」〉
하오 1시 : 대중공양
하오3시~4시 : 팔상도전시및 설명
하오 7시 : 연등봉사
◆5월2일(일)
상오9시~11시 : 꽃꽂이 헌다, 캐나다 인디안 원주민의 정신적 지도자 번·하퍼(School of Wandering Sprits 교장)의 축하법식, 가수 닐·디의 불탄봉축가, 삼우스님 법문(영문)
하오1시~ 3시 : 참선에 관한 소개와 질의 응답
하오6시 : 문화의 밤-글로브·앤·메일지 미술평론가 존·메이즈와 작가 마가렛여사 사회

이 외에도 선련사 케네디언신도들이 주최가 되어 온타리오주에 한국사찰 건립을 위한 자선바자를 토·일 양일간 걸쳐 연다. 시간은 상오11시~하오7시, 바자를 통해 선련사 케네디안신도들이 마련하는 건강식품이 소개된다.

등불사와 기타 문화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 533-6911 또는 532-3492로 하면된다.

통일교 정치활동 조사

정치활동하는 종교기관 문제다뤄

문선명씨가 자신에 대한 세금탈세 혐의를 맨하탄 지방법원에서 변론하고 있는 동안 뉴욕주 고등법원은 통일교회의 정치적, 종교적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12일 보도했다.

동기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뉴욕주 고등법원의 조사는 비록 표면상으로는 복잡한 세금정책에 관한것이지만 문선명씨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정서적인 것은 물론 정치에 있어서의 종교조직의 타당한 역할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시말해 종교조직의 정치적 활동이 종교조직에 대한 면세혜택에 영향을 끼칠수 있느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회는 1977년 뉴욕시 세무위원회가 맨하탄에 있는 통일교소유의 3개 재산에 대해 취한 면세보류조처를 바꾸려하고 있다. 뉴욕시 세무위원회는 법정에서 통일교회가 공공정책에 영향을 끼치며 상업활동에 연관돼 있고 신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삼수입, 털코트 수입과 어업등에 관련된 것을 예로 들었다.

한편 문선명씨는 세금탈세 재판이 열리고 있는 연방지법에서 뉴욕뱅크에 예금한 160만달러에 대한 이자 10만달러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은행에 저금된 1백60만달러는 문선명씨 소유가 아닌 통일교회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LA지사발)

새姙娠中絶藥 개발

佛·스위스연구팀 한달에 한번만 복용

〈파리- 〉프랑스와 스위스 양국공동연구팀은 한달에 한번씩만 복용하면 되는 종전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임신중절약을 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신종 개발품은 수술없이 태아를 유산시킬수 있다고한다.

이 약의 주성분은 RU-486이라 불리는 항황체홀몬으로 여성의 정상임신과정을 봉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아직 실험단계에 있다.

황체홀몬은 자궁이 수정안된 난자를 받아 유방의 젖분비를 촉진시키도록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축구를 즐깁시다

HOME GAMES AT Exhibition Stadium

Dates	Opponents	Times
Saturday, May 1	Ft. Lauderdale Strikers	8:00 pm
Wednesday, May 5	New York Cosmos	8:00 pm
Saturday, May 15	Montreal Manic	8:00 pm
Thursday, May 20	Chicago Sting	8:00 pm
Tuesday, May 25	San Diego Sockers	8:00 pm
Wednesday, June 16	Portland Timbers	8:00 pm
Saturday, June 19	San Jose Earthquakes	8:00 pm
Wednesday, June 23	Seattle Sounders	8:00 pm
Wednesday, July 7	Montreal Manic	8:00 pm
Thursday, July 22	New York Cosmos	8:00 pm
Sunday, July 25	Vancouver Whitecaps	3:00 pm
Wednesday, July 28	Chicago Sting	8:00 pm
Saturday, Aug. 14	Jacksonville Tea Men	8:00 pm
Sunday, Aug. 22	Tampa Bay Rowdies	3:00 pm

3연승의 블리쟈드

5월1일(토) 로더데일
5월5일(수) 뉴욕·코스모스

장 소 : CNE 축구장
입장권 : $12(A석), $9(B석), $6(C석)
※학생및 유아, 노년입장권은 반액.
입장권예매처 : 한국일보사 533-2361

Brandon Sports Co.
598-3732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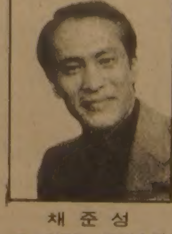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주택, 대지, 아파트
◎가게, 상가, 사업체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 분
◎좋은 사업 계획에 투자나 동업 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하겠으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수퍼마켙 소유 운영 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 2년
☆부동산업 종사 7년 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한국기원 아마 바둑 4단

(416) 633-7892 (B)
(416) 497-8900 (R)



채 준 성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단지 $9,900의 큰 사업체 : 숍핑센터안에 1,850S.F.의 좋은 설비를 갖춘 장난감과 운동구파는 가게. 같은 주인이 6년간 운영. 년매상 $120,000 이윤 40%이상. 가외수입 많음(자전거 수리등). 스탁 $30,000정도. 올 캐쉬 원함.

▲사랑채와 본채 : 곧 팔릴 특수한 집
한 대지에 집이 두 채 있으며 대지는 79f.×289f. 미시사가 병원 바로 근처.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같은 동네이나 시청까지 15분정도 드라이브 거리. 작은 집은 셋집이나 닥터의 사무실등으로 다용가능. 본채는 고전식의 2층집으로 로대나 재목이 아주 견고함. OFP, 수영장등 거의 모든것이 다 있음. 훌륭한 살림집 겸 투자용. 주인 미국에 전근. 11% 모게지 있음. $265,000 OBO

▲직장보다는 사장을 : 최소의 자본을 가지고 가게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아담하고 깨끗하여 좋은 설비 갖추었음. 전체 지하실. 부인혼자 운영. 주매상 $2,500내외. $14,900(급매가격임)

▲아주 좋은 투자 : 7년된 52가구의 벽돌 아파트
요즈음에 거의 찾기 힘든 투자액에 5%이상의 리턴 있음(현재의 렌트는 싼편). 4층, 엘리베이터, 발코니. 15-1BR 26-2BR. 13-3BR. 대지: 1.21에이커. Simcoe. Ont.에 있음. 가격 : $1,350,000 다운 : $250,000

▲버라이어티 가게 : 더 많은 매상 가능
일요일 휴업. 주매상 $4,000이상. 좋은 장비. 전체지하실 $44,900 올 캐쉬 원함.

▲대지 : 전망 좋은 투자처. 36에이커 $1,89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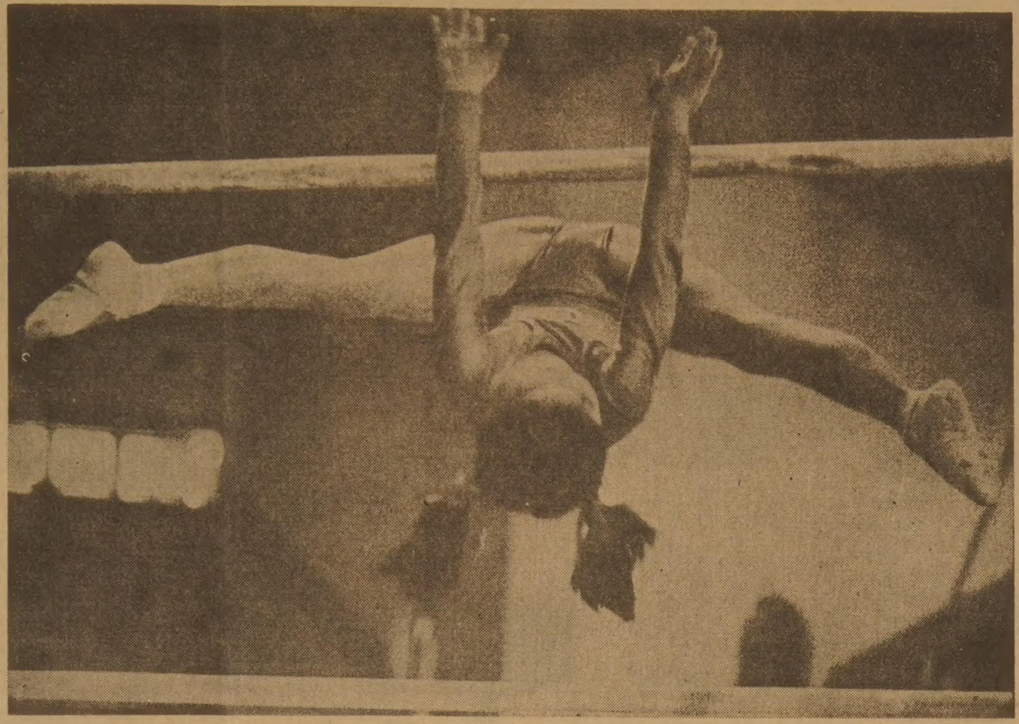
▲턱숍 : 주매상 $3,000이상. $59,900 OBO 주인이 모게지 함.
★찾읍니다 : 좋은 매상의 가게나 타 사업체에 최대의 시세가격을 지불하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도 연락하여 주십시오.

88五輪 메달의 꿈… 꽃피운 妙技

체조 選手權

힘과 均衡美와 유연성이

평균대의 美 李貞淑(경희대)의 평균대。두손에 온몸의 중심을 잡고 평균대 위로 오르고있다。팽팽히 뻗은 두다리에 힘이넘쳐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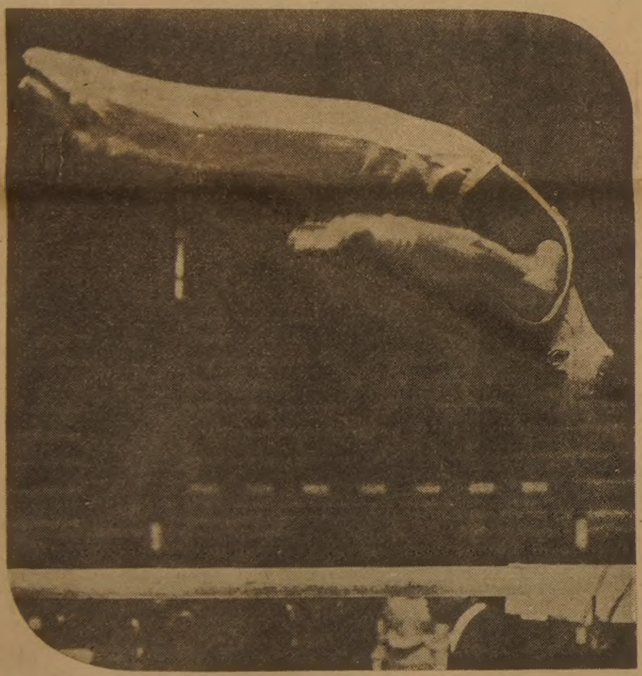


12살… 그날의 主役 「한국의 코마네치」를 꿈꾸는 12살의 귀염둥이가 평행봉에서 묘기를 보여주고 있다。9세부터 체조를 했다는 徐瓊鷺(대구남산국교)이 뒤로돌아 상단잡기의 어려운 연기를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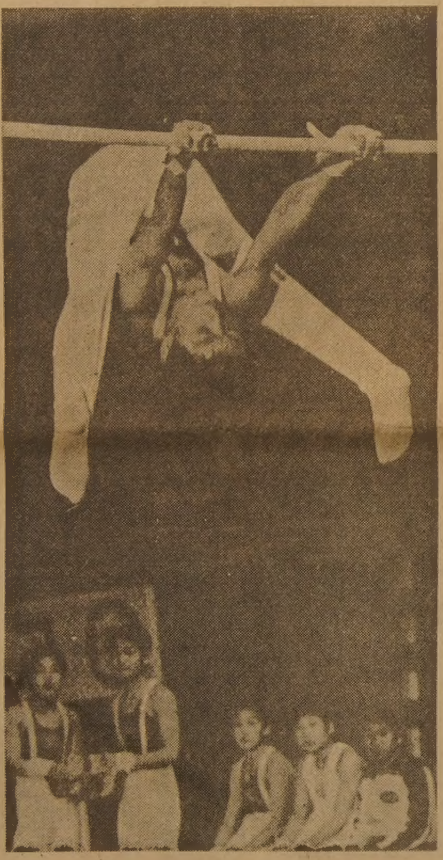
스포츠 카메라 리포트

전국 초·중·고·대학 남녀 체조선수3백36명(53팀)이 참가한 제7회KBS배쟁탈 전국체조대회。대회사상 처음으로 많은선수가 나와 16·17양일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뜀틀,평행봉,철봉,링에 매달려 묘기를 보여주었다。체조는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이 걸린 하이라이트。육상 못지않게 중요한 기본종목이다。88서울 올림픽메달획득의 꿈을 키우는 이 어린 새싹들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

<사진> 徐鍾道 기자



鳥人의 飛翔인가 공중을 나는 鳥人의 飛翔인가。평행봉에서 徐南赫(춘천고)이 다리를 곧게 뻗고 회전하는모습。



팔과 다리가 하나로 팔과 다리가 하나로 모아진 회전。朱洙煥(부산동고)이 철봉에서 높은 난도의 장면을 보여주고있다。

날개접은 鶴처럼 마치 날개를걷어올린 鶴과도같다。국가대표羅善任(서울체고)이 평균대 위에서 밸런스를 잡고 예술적인 동작을 펴보이고 있다。

絶妙… 가슴을 뒤로 여자평균대에서 崔男淑(서울체고)이 뛰어난 유연성을 살려 가슴을 뒤로 젖히며 다리를 어 올리기에서 절묘한 동작을 보여주고있다。

십자가의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믿음이란 무엇인가? (3) 개혁장노교회

지금까지의 대략은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신자 각 개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러나 "그릇된 신앙"은 심히 위험스러운 것이고 또한 그러한 신앙을 유발시키는 "거짓 복음"은 더욱 경계해야 할것이다. 우리가 "믿는다"할때는 "정확하고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보이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만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가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우리의 믿는 바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것과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사심"을 내용으로 하고있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새생명(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성신"이 그와 함께 항상 거하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오늘은 복음의 사실들과 결부해서 "왜 예수를 믿는가?"를 생각해 보자.

"왜 예수를 믿는가?"하면 거의가 다 "구원을 받으려고…"라 대답할 것이다. 물론 요즈음 "구원"에 전혀 관심없이 기독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소위 "불신자들"인고로 그들에게는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될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것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구원이 무엇이요?"하고 묻는다면 상당수가 "죽어서 천당가는 것"이라 대답한다. 즉 어디까지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아 잘 살다가 죽어서는 천당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극히 공리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 받아 이 사회의 부조리와 악을 깨끗케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목적을 말하면서 별다른 의미의 "사회 복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과 그 목적하시는 바가 개인의 끝없는 공리주의에 의한 행복 추구나 아니면 이땅위에 이상향을 건설하는데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받은 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면서 사는" 것이다. 그런고로 그 나라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터 위에서 시작되는"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그런고로 신자라면 개인의 복락이나 정신적, 종교적인 만족을 끝없이 추구해 나갈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뜻"에 더 마음을 기울이고 순종해 나가는 길을 걸어야 한다.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요(마태7:13), 현세적으로는 가장 불쌍한 듯이 보이는 길이며(고전15:19), 핍박을 받고 있으나(딤후3:12)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자진하여, 기쁨으로 택한 그렇한 길인 것이다.

우리는 또한 "내가 예수를, 기독교를 택하여 믿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생각할때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런고로 우리가 갖게된 그 믿음도 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이다. 즉 내가 예수를 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종으로 삼아 주신고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이다.

그밖에 믿음에 대하여 논할때 "어떻게 믿고 있는가?"의 문제도 극히 중요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바르게 믿기를" 바란다. 이는 "바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날" 마지막 날에 인정해 주시는 신앙인 까닭이다. 그러나 신자라고 다 바르게 믿고 있다고 할수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헛되이" 믿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태7:22-23)". 이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여!"라고 부르던 그 예수는 실제의 예수님과는 다른 "동명이인(즉 이름은 같으나 서로 다른 인물)"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주께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 인정함을 받지못한 그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 이었고,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을 행하던 자들이었고, 또 "주의 일"이란 것을 많이 한 사람들 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목사나 전도사, 장노, 집사, 부흥사, 기도원장…등등 그 누구 일수도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고귀한 직책을 맡았던 자들로서 자기 자신이 행한 공적으로 보나 교회안에서의 위치로 보나 구원을 받으리라고 자신감(?)을 갖고 일생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릇된 기독관"을 가진 "헛된 믿음"의 소유자들 이었던 것이다.

"헛된 믿음"은 특히 거짓 종교가들 즉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교회안에 더욱 퍼져간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태7:15)"고 엄히 경계하시고 계신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베후2:1)"라 썼고 또 사도 바울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골2:8)"하며 거짓 종교가들을 주의하라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기독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저 지식으로 "알고만 있다는 사실"로는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한다. 물론 우리는 "알아야" 믿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사실을 안 후에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성신님을 의지하여 생활상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보고 그 앞에 나와 떨며 부복하던 사람들이 사귀들린 자들 이었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볼수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는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이다.

헛된 믿음의 다른 예로는 "기적 신앙"이라는 것을 들수 있다. 요사이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시며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그로부터 그렇한 은사를 구하고 나가다가는 결과적으로는 종교적인 영웅이 될 것을 꿈꾼다. 그들은 "기적"을 행한다던가, "방언"을 한다 던가, "기도해서 병을 고친다" 던가 그 밖에 하나님의 희한한 능력을 체험하거나 나타내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징표라고 주장한다. 이렇한 "신앙 태도"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시간까지도 계속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 나이다(마태7:22)"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던가 또는 그 신비한 능력이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던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신앙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신앙"임을 명백히 하셨다.(다음 호 1982.5.1에 계속)

개혁장노교회 :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이태영 : 492-9889)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8.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실협, 〈토론토썬〉간부진 회담

—현안문제 논의를 위해—

지난 4월14일(수) 협회의 김태진이사장, 차선겸회장, 강공선상담실장은 본실에 대한 크레딧문제로 말썽이 되어온 〈토론토·썬〉회사를 방문, BILL BRICK(CIRCULATION DIRECTOR), PETER FOURNIER(HOME DELIVERY MANAGER)와 더불어 약 3시간에 걸쳐 협회원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문제를 놓고 회담하였다.

이번 방문은 상담실을 통하여 접수되는 COMPLAINT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토론토·썬〉배달문제가 CASE BY CASE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제도적인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근본적이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차회장은 협회의 규모와 여론조사및 상담실 통계를 통한 〈썬〉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첫째 이른아침 개점전에 상점밖에 내던지고 가는 신문의 도난, 분실, 부족분에 대한 책임을 상점측에 전가하여 크레딧을 주지않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둘째 상점과의 사이에 사소한 문제 발생시 〈썬〉지 중간업자(TERRITORY DISTRIBUTOR)는 으레껏 배달 중지라는 상투적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횡포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였다.

장시간의 회담을 통하여 〈썬〉지측은 "우리 회사의 배달 씨스템은 〈토론토·스타〉지나 〈글로부·앤·메일〉과 같은 본사의 직접 배달 제도가 아니고, 중간업자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들과 Retailor간에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간업자들이 배달 중단을 위협하는 행위(THREAT TO CUT OFF DELIVERY)는 철저히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서신을 즉각적으로 전 중간업자(약50명)에게 발송할 것이다. 또한 특정 상점에서 연속적인 신문의 SHORTAGE가 발생되고, 그것이 고의적인 중간업자의 부정으로 간주될 시에는 본사에서 파견하는 사람에 의하여 비밀리 스파르체크(SPOT CHECK)하여 선처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썬〉지의 BILL·BICK씨는 분실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사진과 같은 철제함을 실협회원들이 이용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

◆사진과 같은 철제함이 상점 앞에 설치되면 중간업자들은 상점개점 이전에 상점 앞에 신문을 던지고 가는 대신 철제함 속에 넣고 간다.
◆철제함의 비용은 $50이나 중간업자와 반반 부담이 가능하다.

실협에 감사패

전국경찰국장협회

경찰국장이 보내온 감사패

지난15일 오타와에 소재 캐나다전국경찰국장협회는 실협으로 감사패와 함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경찰국장협회 회장이며 메트로·토론토 경찰국장인 잭·애크로이드씨는 서한에서 이는 80년9월 이붕재사건 당시 다각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경찰당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협회가 CANADIAN ASSOCIATION OF CHIEF OF POLICE RESEARCH FOUNDATION에 찬조한데 대한 보답으로 보내온 것이다.

Ackroyd경찰국장은 서신에서 "앞으로 경찰당국은 한인실업인협회와 더불어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기를 원하며, 그럼으로써 도난및 강도방지등에 대한 보다나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교육강좌 성황

—메트로뉴스사, 질문공격에 진땀—

◆최승낙 외환은행장

4월16일(금) 하오5시부터 시내 INN ON THE PARK HOTEL에서 협회집행부의 홍보및 교육부(부장 이정구)와 이사회, 홍보본과 위원회(위원장 서준경)가 주관하여 실시한 금년도 첫번 교육강좌는 4명의 강사를 모시고 예정대로 개최, 진지하고 유익한 내용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밤11시경 끝났다.

첫번 강사 최승낙외환은행장은 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협회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거래 은행으로부터 LINE OF CREDIT를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은행에서는 대출을 승인함에 있어서 차주의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느냐 하는점을 소상하게 예를 들어 설명, 사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BANKING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그리고 곧 개점이 되는 외환은행 블루어지점의 바로 윗층에 교민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초가 될 실업인협회가 들어오게 되었음을 환영하고, 두 기관이 쌍두마차가 되어 교민의 경제발전과 실협회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견인차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두번째 등단한 METRO NEWS의 PETRAITIS부사장은 슬라이드를 통하여 출판업자에서 부터 소매업자에 이르기까지 잡지업계의 구조를 설명하고, 주제인 RETURN과 CREDIT에 있어서 야기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회사측의 요망사항을 말하고, 아직까지는 쌍방간에 결핍되었던 대화(COMMUNICATION)를 자주 가짐으로써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상 두 연제에 관한 질의응답에서는 주로 METRO NEWS를 상대로 한 회원들의 불만(이윤, CREDIT, 결재기간, DELIVERY CHARGE, 타 회사 잡지의 반환, 써비스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세번째 강찬영변호사의 STORE LEASE에 관한 강의에서는 가게를 LEASE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소홀히하기 쉬운 조항을 실례를 들어가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고, 특히 가장 일반의 관심이 많은 OPTION, 상점과 주택관계, 임대료, 양도의 조항,그리고 일방적이고 복잡한 COMMERCIAL PLAZA LEASE에 관해 매우 유익한 이야기를 말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김인규씨가 주로 상점을 경영하는 경우에 세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비로 CLAIM할 수 있는 범위를 신 세법에 입각, 조목별로 설명해 주었다.

주요골자는 인건비, 종업원의 혜택, 자동차 경비,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 권리금, 이자지출, 연금, 가축 부양비, 재투자에 관한 내용이었다.

역시 마지막 두 연제에 관한 질의 응답에서 회원들이 직접 당하고 있는 실례를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 진지한 질문 응답은 참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협회는 〈실협뉴스〉를 통하여 금번 실시된 교육강좌의 내용을 시리즈로 연재하기로 했다

봄이 오면

김 동환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꽃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펴
건너 마을 젊은 처녀 꽃따러 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봄이 오면 하늘위에 종달새 우네,
종달새 우는 곳에 내 소리도 울어
나물캐기 아가씨야 저 소리 듣거든
새만 말고 이 소리도 함께 들어주,

나는야 봄이 오면 그대 그리워
종달새 되어서 말 부친다오
나는야 봄이 오면 그대 그리워
진달래 꽃되어 웃어 본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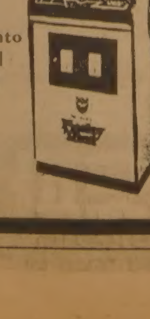
성장하는 우리 실협
성공하는 나의 사업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헛,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L.L.B.
Video Amusement LTD.
리베이트 $100불!
Rebate $100 협회원들에게
본사는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비디오 게임 머쉰 공급회사로서, 가장 이윤이높고, 인기가 있는 각종 게임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아울러 실업인 협회를 통하여 저희들 머쉰을 3, 4월중에 설치하시는 회원 여러분께는 첫 달에 한하여 $100불의 리베이트를 드리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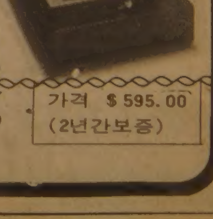


※카버지역 : Metro Toronto 전ONTARIO지역
※신청연락처 : 실업인협회 ☎752-7771

Big Chief®
Beef Jerky
1 BOX(48 PKGS) $13.10
술안주·다이엩용 스낵으로
한번 잡수어 보신분은 꼭 다시찾는
알버타산 순 쇠고기 포!
본인은 금번 본사와 온타리오주 총판권 계약을 맺고 소매상을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온타리오주에서는 처음 취급되는 비프 저-키를 판매중이오니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즉시 배달해 드리겠읍니다.
BIG CHIEF ONTARIO 총판
정세용 244-2483

한인실업인 협회지정
GLOBE
PEST CONTROL
"WE KILL BUGS"
Residential.Comm.Industrial
MONTH FLAT : $8
NO INITIAL CHARGE
※다른조건의 비용청구는 없음
전화주시면 즉시 달려가겠읍니다
WE'RE SMALL BUT WE'RE GOOD
ASK ABOUT OUR WRITTEN QUARANTEE
GOV'T LICENSED 491-1585 FREE ESTIMATES
789-2527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PANASONIC, SHARP, N.C.R.
Sweda, Victor, Delta Systems, TEC
◎판매, 써비스, 렌트
—Same day 써비스
—pick up & 배달
—Paper Rolls
—Free demonstration
Rent on lease with option to buy
◎ 2년간 보증
252—7377



822 The Queensway
(퀸스웨이 × 이슬링톤)
— 하비 햄버거앞 —
가격 $595.00
(2년간보증)

기름값 全面재조정

金부총리 구체방안 마련 곧 斷行

"油種·系列제품 不均衡시정 油價 自由化등도 함께검토"

정부는 심각한 불황을 겪고있는 석유화학공업을 지원하기위해 빠른시일안에 구조적인합리화조치를 마련하는한편 油價,나프타등 石油化學계열제품가격을 전면 재조정,油種間및 계열제품간의 가격불균형을 시정할 방침이다. 金埈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蔚山석유화학공업단지 입주업체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는 현재 석유화학제품가격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며 빠른시일안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金부총리는 나프타가격을 인하해달라는 업계건의에 대해 최근 국제가격인하추세로보아 우리나라의 나프타가격도 추가인하해야될 실정이지만 값싼원유도입이나 油價自由化등 근본적인 장단기대책과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또 국산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보호문제에언급,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기본원칙아래 현재 추진중인 관세전면 재조정작업과정에서 수입관세인상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과다한 산업보호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우려가 있어 곤란하다고말했다.

한편 이날 업계는 나프타가격의 추가인하, 제품가격의 인상, 정부비료인수대금의 조기청산, 자동차의 각종 공과금축소및 휘발유특소세율인하등을 건의했다.

宗敎·景氣대책등 논의

어제 黨政조정회의 地下鐵사고·부시 訪韓도

정부와 民正黨은 20일저녁 서울三淸洞 국무총리공관에서 黨政정책調整회의를 갖고 조지·부시美부통령의 訪韓과 관련한 제1백11회 임시국회 운영, 지하철3호선공사장붕괴사고 복구대책, 景氣 활성화대책, 일부 종교계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또朴英秀서울시장등으로부터 지하철 공사장사고경위와 복구대책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黨政정책조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劉彰順국무총리, 金埈成부총리, 徐廷和내무, 李鍾元법무, 羅雄培재무, 鄭宗澤 정무제1장관과 許和平 대통령정무제1수석, 金在益경제수석비서관, 趙英吉총리비서실장등이, 民正黨측에서 李載灐대표위원, 權正達사무총장, 王相殷중앙위의장, 羅碩昊정책위의장, 李鍾贊총무, 李漢東총재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부시 訪中가능 양국서 協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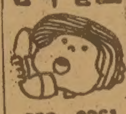
【워싱턴20日AP 聯合=特】 오는22일 한국을 포함, 극동순방길에 나서는 조지·부시 美부통령은 北京을 방문할지도 모른다고 美정부소식통이 19일 말했다.

이소식통은 미국과 중공관리들이 현재 부시부통령의 중공방문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아직 최종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의회에통고된 6천만달러상당의 對臺灣 군사부품판매안으로 야기된 美·中共관계악화에도 불구, 부시 부통령의 중공방문이 실현될경우 양국의 외교현안문제에대한 폭넓은협의가 이뤄질것으로 기대된다.

워커大使 出國 亞太공관장회의에

리처드·워커 駐韓美國대사는 호놀룰루에서열리는 美아시아·태평양지역公館長회의에 참석하기위해 19일 하오 하와이로 떠났다.


한국일보 533·2361

어제 建設委 空轉

오늘 관계長官출석 報告청취

국회는 20일하오 建設委를 열고 계류중인 법안·청원등을 처리할예정이었으나 地下鐵붕괴사고를 다루기위한 朴英秀서울시장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民韓黨주장에 民正黨이 반대하여 회의가 열리지 못한채 空轉되었다.

民正 民韓 국민당은 이날 3차례 회담을 갖고 建設委 소집문제를 논의 했으나 타결을 보지못했는데 民正黨은 건설위를열어 해외시찰중인 국민당의 李東鎭 姜且泰의원 대신 李奉模 金基洙의원을 건설위로 소속을 바꾸어 李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자고했으나 民韓黨의 반대로 결국 공전되고 21일하오2시 건설장관을 출석시켜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했다.

社会漫評

햇빛이……

포클랜드協商 急진전

「임시行政府」구성 가능성

아르헨, "主權주장 잠정保留"示唆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19日AP 聯合=特】 포클랜드분쟁해결을위한미국의구체적인협상안이 빠르면 20일중에발표될것으로 알려지고있는가운데 아르헨티나정부는 20일 영국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클랜드에대한 완전한 주권주장을 당분간 보류할수도있다고 처음으로 밝힘으로써 포클랜드협상이 급진전하고 있음을시사했다.

멘데스 아르헨티나 외상은 이날 헤이그 미국무장관이 아르헨티나 지도자들과 4일간의 연쇄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출발한 직후 협상이 진행되는 「제한된 기간」동안 포클랜드 군도에 대한 완전한 주권주장을 보류할것이며 그 기간중 포클랜드에 「임시행정부」가 구성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소식통이 밝힌 아르헨티나의 계획에 따르면 英國이 포클랜드로 항진중인 기동함대를 회항시키는대신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점령군을 점진적으로 철수시키며 협상이 진행되는 「제한된기간」동안 英國과 아르헨티나國旗가 공동으로 포클랜드군도에 게양되며 내년부터는 아르헨티나국기만 게양된다는것이다.

한편 마거리트·대처 영국수상은 헤이그장관과 아르헨티나 지도자들간의 협상이끝난후 전달된 평화적 타결안을 접수하고 「비상각료회의」를 소집,이 내용을 토의한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정부대변인은 대처수상에게 보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대처수상이 20일 전체각료회의를 열어 이내용을 토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런던의 관측통들은 대처수상이 20일 의회에서 포클랜드분쟁의 최근사태발전을 밝힐것이라고 전했다.

優秀새마을 農村에 全대통령 農機지원

全斗煥 대통령은 20일 전국 우수농촌새마을 1백개마을을 선정,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통해 農機械1대씩을 특별지원했다.

이번 農機械특별지원은 농촌의 일손을 덜어주기위한것으로 경운기70, 移秧機10, 트랙터10, 바인더10대등으로 市道別지원 대상마을은 大邱와 仁川이 각각 1개마을, 京畿11, 江原9, 忠北9, 忠南12, 全北12, 全南14, 慶北13개마을등 1백개 마을이다.

信任狀제정받아 버마·카타르大使등

全斗煥 대통령은 20일상오 청와대에서 우·치·마웅駐韓버마대사(日本常駐), 모하메드·알리·아흐메드·알안사리駐韓카타르(日本常駐)、라미로·페레스·마우라·데·에레라 駐韓스페인대사등 3명의 신임대사들로부터 차례로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어 金琦洙신임駐포르투갈대사에게 신임장을 주었다.

미쓰비시회장 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20일 하오 청와대에서 일본미쓰비시자동차공업회사의 구보·도미오(久保富夫) 회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사진)

이자리에는 徐錫俊 상공부장관, 鄭周永 현대그룹회장이 배석했다.

일정수준이상 高所得者 財産상황 電算수록관리

국세청은 고소득층에 중과한다는 세정의 기본방침에따라 고액소득자의 재산소유현황을 컴퓨터에 수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金壽鶴 국세청장은 20일 한국 여성경제인협회와 가진 간담회서 상당수의 고액소득자들이 소득이나 재산을 친지들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 이를 방지하고 나아가 자료에의한 근거과세를 위해 일정소득이상의 소득자 재산현황을 컴퓨터에 수록, 관리함으로써 세금을 덜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청장은 양도소득자료에 이어 상속개시자료도 컴퓨터에 수록하여 전산처리함으로써 상속세업무가 자동적으로 처리될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外相회의 美洲기구 소집

【워싱턴19日UPI 聯合=特】美洲기구(OAS)는 포클랜드사태의 대처방안으로 지난47년 체결된 美洲상호지원조약(리오조약)을 발동하려는 아르헨티나가 요구한 긴급외상회의를 20일상오10시30분 (한국시간 21일새벽0시30분) 소집한다.

아르헨티나의 OAS대표인 라울·키야노대사는 이번 OAS외상회의가 포클랜드분쟁에 리오조약을 도입하려는 예비조치로서 열리게된것이라고 밝혔다.

◇英航母허미즈號의 두哨兵 포클랜드群島로 항진중인 英國항공모함 허미즈號의 두보초병이 특수복차림으로 수평선을 살펴보고있다. 【런던19日AP電送=聯合】

"金正日 武力統一 기도"

美 잭·앤더슨 後繼者 지목되면 軍事的 모험

【워싱턴14日=聯】金日成의 후계자로 지목되고있는 북한의 金正日은 군사경험이없고 지지기반이 약하기때문에 아버지보다 한층 강경한 태도를 취할것으로 보이며 金日成사후에는 한반도 무력통일을 추구함으로써 군부와대중의 지지를 모색하려들것이라고 미국의 칼럼니스트 잭·앤더슨씨가 14일 말했다.

앤더슨씨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지의 고정칼럼에서 소련최고회의간부회의장겸 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의 건강악화및 이에따른 소련내부의 권력투쟁에 대한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있는가운데 서방정보전문가들은 심장병과 신장질환및 고혈압등에 시달리고있으며 15일로 70회생일을 맞는 또하나의 공산독재자 金日成의근황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앙정보국(CIA) 보고서를 인용, 金正日의 세력확장이 눈에 띄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金正日은 아버지인 金日成보다 더욱 큰 군사적 야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金日成은 어떤 뚜렷한 건강악화징후보다는 고령과 자신의 수명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강박관념때문에 아마도 권력승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앤더슨씨는 지적했다.

앤더슨씨는 또 미국무성비밀보고서를 인용, 金正日의 군사경험부족을 간과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북한군부지도자들이 그의 부상을 받아들일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北傀강제수용소에 北送교포2만여명

在日민단장폭로

【東京14日=聯】張聰明재일거류민단장은 14일 북괴강제수용소에는 북송교포 2만3천여명도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북송교포의 비참한 실정을 일본정부에 알렸다고 말했다.

張단장은 이날 회견을통해 북괴의 압제가 만천하에폭로되고 있음에도 불구, 일본의 일부 인사들은 북괴가 마치「지상낙원」인양허위선전을 자행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있다고지적하고「일본정부도엄연한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촉구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416)533·2361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財形저축 대상축소

月40萬원소득·百分의 30이하로

閣議시행령 의결

국무회의는 20일 財産形成저축 가입대상 범위를 현재의 月給與 80만원이하인 경우에서 40만원이하인 근로자로 인하 조정한 내용의「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또財形저축금액의 한도를 일반근로자의경우 月급여액의 1백분의40에서 1백분의30이하로 인하조정하고 低소득근로자는 급여액의 1백분의20이던것을 1백분의30이하로 인상조정,低소득근로자 중심의 재산형성에 역점을 두기로했다.

地平線

사내아이만 셋이상 기르는 어머니는 거리에서 그얼굴 표정만보아도 금방 가려낼수있다고한다。 여자아이들과 달라 사내아이들은 거칠기때문에 속을 썩이는 어머니의 얼굴은 그만큼 주름진다는 얘기다。

▼한데 사내아이를보다 몇곱절 세심하게 주의를해야하고 보살핌에 정성을 쏟아야하는 장애자들을 맡아기르고 가르치는 분들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그들의 노고야말로 말이나글로는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어제 열린 장애자재활대회에서는 장애자의 보건·교육·근로·사회참여권이 보장되고 신장될수 있게하기위한 결의문이 채택된가운데 장애자의 지팡이로 33년이나 한국어린이를 돌보아온 파란눈의 벨머·모(毛優淑)66선교사에 국민훈장이 수여됐다。毛할머니의 물리치료를 받아 재활한 어린이만 수백명이 넘는다고 한다。

▼장애자재활은 단순한 구호가아닌 노멀라이제이션을 말한다。 고령자나 젊은이나 장애자나 정상인이나 모두함께 생활하는 사회야말로 노멀하다는 뜻이다。 장애자의 시설을 먼곳에 격리시키는것은 안된다는 얘기다。또 장애자를 기계적으로 수용하면 그것으로 일이 끝날줄알아서도 안된다고 한다。장애자가 재활을통해 사회의일원으로 함께 생활해야 참된사회복귀로 볼수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장애라고하지만 영어에는 기능장애를 말하는 임페어멘트、능력장애·저하를 나타내는 디스어빌리티、사회적으로 불리한것을 가리키는 핸디캡의세가지가 있다。장애가 어느경우에 해당하느냐에따라 재활지도방법도 달라진다。 장애자 한사람 한사람에 알맞는 리허빌리테이션(재활지도)이 필요한것이다。국가적으로 복지국가답게 특정예산을 많이할당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따뜻한손길도 더 아쉬운형편이다。

▼예방을 제1、치료를제2、건강증진을 제3의학이라고한다면 리허빌리테이션을 제4의의학이라고 말하는이도있다。장애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경제적유용성을 회복시키는리허빌리테이션은 현실적인지도만으로는 성공하기어렵다。장애자에게 용기를주고、자립의지를 심어줘야 한생명이빛을 찾는것이다。입으로 붓을 무는 화가、앞을못보면서 훌륭하게 기악을 연주하는 음악가가있는가 하면 팔다리가 없는 상이군인이 정부의 구호국장치를 맡고있는 나라도 있다。 조금만 정성들여도 고칠수있는 장애자도 많다。음달에 가려진 장애자들에게화사한봄빛을 비춰줘야 하는것은 毛할머니만의 일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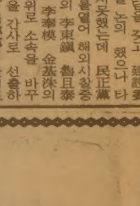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모국 방문을계획하십니까 ?

미도파 백화점에서는 고급화장품, 금·은보석시계, 양품, 썬그라스, 고급의류, 여행용가방, 핸드백, 한약및 비타민등 유럽 유명 브랜드 제품을 한자리에서 짧은시간과 적은 경비로최대의 염가와 최선의 써비스로 봉사하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미도파 백화점 백

※ 좋은제품 좋은가격은 항상 만족한 기쁨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레이건과 브레즈네프의 속셈

「6월」과 「10월」의 攻防

——美·蘇頂上회담 언제 열리나

"東西개선노력"名分담겨 늦어도 年內엔 實現될듯

금년중으로 美蘇정상회담이 열릴전망이 밝아졌다. 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서기장(75)은 18일 레이건대통령(71)에게 오는 10월께 핀란드나 스위스등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갖자고 정식제의했다.

이는 지난5일 백악관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오는 6월 열리는 유엔군축회의에 브레즈네프가 참석하여 그자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게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레이건의 간접제의에 대해 2주일만에 나온 반응이다. 다소 모호하고 즉흥적이었던 레이건의 제의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수정제안이다.

유럽외교소식통들은 브레즈네프의 이번제의로 美蘇정상회담이 늦어도 금년내로 실현될 전망이 무척 밝아졌다고 보고있다.

서방외교관들은 정상회담이란 사전에 철저한협의가 있어야하며 격식을 갖춰야 한다는 브레즈네프의 주장을 타당한것으로 보고있으며 조만간 美蘇양국 실무자간에 정상회담의 일자및 장소등에관한 절충이 시작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늦어도 6월10일에 본에서 레이건이 나토동맹국수뇌들과 만나기전까지는 정상회담 일정에관한 초안이 마련될것이며 그와함께 전략무기제한협상의 재개일자도 발표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다.

15개월전만 하더라도 거짓말, 속임수등 무슨짓이라도 저지를 위인 브레즈네프와 만날 생각이 없다고 잡아떼었던 레이건.

기회있을 때마다 레이건을 「전쟁광」으로 몰아세웠던 브레즈네프.

이 두 7旬의 지도자들이 만날 가망이 있다는점은 적어도 東西관계가 지금보다 더 갑작스럽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더해주어서 다행이다. 두 사람이 人身공격으로까지 맞서는 바람에 세계는 核전의 공포속에 더욱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었으니까.

그러나 정상회담의 일정、장소、의제등 실무적인 문제의 조정에는 꽤많은 시간이걸려야할것이다.

美蘇양국은 79년 6월 카터와 브레즈네프가 빈에서 만났던 것을 끝으로 지난3년간 외상회담이상의 고위관리접촉을 갖지않았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정상회담개최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양측 모두 별의욕없는 선전술에 불과했다. 레이건행정부 출범후 정상회담을 먼저 제의한것은 소련측이다.

브레즈네프는 레이건이 취임한지 한달만인 81년2월 제26차 소련공산당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전략무기제한협상의 계속과 레이건과의 조속한 정상회담개최를 제의했었다.

레이건美행정부는 당초 이같은 소련의 정상회담제의가 기만술책에 불과하다고 간주,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말 폴란드에 계엄이 선포되어 유럽지역의 東西긴장이 높아지고 중거리미사일의 유럽배치계획에 대해 광범한 반핵물결이 일어나게 되자 美정부관리들은 美·蘇정상회담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쌍방은 지난해 11월유럽 중거리미사일 감축협상때부터 정상회담가능성을 탐색해왔다.

미국으로서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소련측보장이 없는한 자국내 중거리미사일배치문제로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곤경을 겪고있는 서독등 나토맹방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는 조기정상회담개최는 필요했다.

레이건의 정상회담제의에는 오는 6월10일본에서열리는 나토동맹국회의를앞두고 동맹국수뇌들에게 미국은 적어도 東西관계의개선을위해노력을 하고있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은 의지가 담겨있다.

브레즈네프가 여기에 호락호락넘어갈리는 없다. 그래서 레이건의 제의를점잖게거부하면서보다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것같다.

한편 브레즈네프의 이번 정상회담제의는 그의 건강악화설및 소련지도층의 권력투쟁과 관련한 최근의각종 소문들을 떨쳐버리려는 수단의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다. 국내외에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작전이라는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일자를 10월로 멀찌감치 설정했고 회담장소도 스위스, 핀란드등 소련에서 가까운 제3국으로 제의한 것은 마치도 그의 건강이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3월25일 중앙아시아지역을 방문한뒤부터 3주일이상 공석상에 모습을나타내지 못하고있는 브레즈네프의 건강상태로서는미국까지 비행기여행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각국대표들과 만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간의 여유를가지고 스위스나 핀란드등 가까운곳에서 레이건하고만 단둘이 만나겠다는 의도인것같다.

그러나 속사정이야 어떻든 브레즈네프의 이번 제의는 국제정치의 흐름을타고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나토동맹국인 서독은 브레즈네프의 이번제의가 발표되자마자 즉각 겐셔외상을통해『매우고무적인 조짐』이라고 환영했다.

한 서방소식통은 앞으로 수개월내로 동서관계의 긴장을 새로 유발할만한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 美·蘇정상회담의 연내개최는낙관적이라고말했다.

정상회담의 실현을 가로막을 변수가있다면 그것은 오직 브레즈네프의 건강상태뿐이 아닌가 싶다.

【朴永諾기자】

◇核버튼 신경전도 이젠 지쳤다. —레이건과 브레즈네프。

北傀 對南선동血眼

【서울=共】 北傀는 19일平壤에서 對南統一戰線 조직이며 위장된 선전단체인「祖國戰線」「祖國平和統一委」등과 北傀黨외곽단체들을 앞세워 北韓학생들과 주민들을 동원한가운데 이른바「南韓인민들의 4월봉기22돌 平壤市보고회」란 군중집회를 열고 韓國民 특히 韓國대학생들의 反政府및 反美소요를 격렬히 선동한것으로 이날 北傀방송들이 보도했다.

北傀는 이 선동집회에서 『南韓인민 특히 대학생들은 反파쇼民主化투쟁과 反美투쟁을 결합시켜 들고 일어나야한다』는 등으로 韓國사회의 混亂과 韓美이간을 겨냥한 악의적인 선동어구들을 마구 나열하는 한편 釜山美文化院방화사건을「애국투쟁」운운으로 적극비호, 두둔하면서『그들의 애국투쟁에 전적인 支持와 성원을보낸다』고 對南선동에 열을 올린것으로 北傀방송들은 전했다.

韓·美이간謀略광분 宣敎協성명관련

【서울=共】 北傀는 19일 그들 선전기관인 중앙방송과평양방송을 통해 美文化院방화사건과 관련한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성명내용에 언급『이 성명은 이번 방화사건이 청년학생들의 애국적소행이며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美文化院방화를『광주사건의 연장으로 평가』하고 이로써『美國은 한국민의 벗이아니고 원수라는 것이 판명됐음을 지적했다』는 것등이 성명내용을 왜곡보도하는 가운데 韓美이간과 한국과 미국에 대한 모략비방중상에 열을올렸다.

나의 이력서 金蘇東 ㉛

(題字 金蘇東)

동경에 유학중인 한국인 학생들은 이무렵 대학을 졸업하고 滿洲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또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고 新京대학으로 옮겨가는 학생들도 있었다. 일본의 괴뢰로 세워진 만주국이라는 새로운 식민지에 진출하는 것이 당시의 경제공황과 취직난을 극복할수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진주출신인 내 친구 蘇星도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만주의 일본행정관청에 취직해 갔다.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였다. 국가관이 뚜렷한 사람들도 이시대의 공황과 취직난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소하는수밖에 없었다.

1931년 내가 동경으로 건너가던해 일본의 대륙침략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넓은 만주지역을 호시탐탐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해 9월에는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卒業후 서울로

植民政策 앞잡이 싫어 滿洲國 관리시험 거부

만주에 주둔하던 일본의 關東軍이 남만주철도를 고의로 폭파시켜놓고 중국사람들의 소행으로 뒤집어씌운 연극이 바로 그것이다. 이 柳條溝사건과 1937년의 蘆溝橋사건이 바로 우리가 겪은 그 지긋지긋한 세계제2차대전의 도화선이 된셈이다. 그들은 심양, 장춘, 사평가등의 만주철도 연선을 점령하고 중국의 만주군을 전멸시켰다. 이렇게해서 일본의 괴뢰 만주국이란 생겼고 對蘇방위와 중국대륙침략의 기지를 튼튼히 구축한 셈이다. 일본은 2次식민지 만주건설을 위해 1차식민지인 한국사람들을 투입했고, 동경유학생들도 이러한 정치경의 제물이 된셈이다.

나도 여러차례 만주행권유를 받았고, 또 친구들은 속속 만주에 행정요원으로 떠나갔다.

그때 상황으로서는 만주국으로가는 학생들의 행동을 사실 탓할수는 없었다. 심각한 경제사정과 거의가망이 없는 한국학생들의 취직지옥이 먹고살길을 막아놓은 까닭이다. 학생들의 만주행은 날부여대하여 두만강을 건너 서간도·북간도로 떠나는 사람들보다 물직적으로는다소 윤택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간도로 이주하는 한민족의 치욕보다도 훨씬 큰것이었다.

교육을 받은 대학졸업생들이, 아니 식민지백성들이 일본의 제2식민지에 가서으스대고, 뽐내는 꼴은 더큰 치욕이 아닐수 없다. 나는 만주진출을 꿈꾸는 동료들을 한편 슬프게 생각했다.

어느새 겨울이 왔다. 예정대로기말시험을 마쳤다. 마치 장애물경주에서 마지막 장벽을 무사히 넘어간 말과도 같이 홀가분한 상쾌감을 느끼면서 간다의 K다방으로 향했다.

오후의 K다방에서는 으레 明大에 재학중인 韓霖군(「牧丹燈記」「백치 아다다」의 주연배우)을 만난다. 그날도 그와 코피를 마시

◇영화「돈」에 출연한 韓霖㊨과 연출을 맡았던 筆者㊧。日本에서 우리는 한국학생들이 만주국 행정관으로 취직해 가는것을 보며 망국의 한을 술로 달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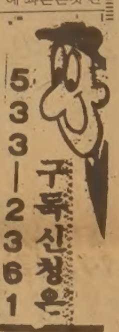
「牧丹燈記」등 主演 韓霖과 약속 歸國한후 그와함께 映畵業활동

면서 꽤 오랫동안 얘기했다. 그도 경제공황의 여파를 견디다못해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하겠다는 것이다. 서글픈 얘기다. 그는 곧 서울로 떠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했다. 한발 먼저 돌아가겠으니 서울서 만나자는 것이다.

그의 학업중단을 위로하고 우리는 정든K다방을 나와 긴자로갔다. 포장마차집에서 야끼도리와 아와모리로 작별의술잔을 들었다. 밤이늦도록 마셨다. 나는 학우들과 동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만주국관리시험은 절대로 치지않겠다고 그에게 다짐했다. 식민지백성이 일본의 다른식민지에 가서 우월감과 똑같은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수 있을것인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짓은 못하겠다는 것이 내 의견이며 한군의 의견이었다. 학교의 추천을 받아 시험에 통과하면 꽤 고급대우로 만주국행정관이 될수 있었던 시대다. 그러나 내자신이 일본사람이 돼 양두구육의 탈을 쓴 의선자가 될수는 없다. 우리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건배를 들었다. 포장마차를 또한집 찾아갔다. 젊은 울분을 토하면서 밤거리를 방황했다. 그와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히비야에서 헤어졌다. 약속대로 귀국후 그와함께 영화일을 했다. 그도 이제 60이 훨씬 넘은 노경이다.

◇撤開작업 방해…끌려가는 정착민 시나이반도 샤미르東北16㎞ 떨어진 케렌샬롬에서 이스라엘軍의 정착민 소개작업을 방해하기위해 도로장애물을 설치한 이스라엘정착민부사가 군인들에의해 붙잡혀 끌려가고있다.【케렌샬롬19日AP聯=共】



美, 올武器수출 3百억弗 돌파

【워싱턴19日UPI=聯合】 미국의 對外무기판매고는 82회계연도중 총3백억달러선을돌파, 지금까지 한 국가가 달성한 무기판매액중 최고를 기록할것으로 보인다고 美방위정보센터(CDI)가 19일 밝혔다.

민간연구단체인 CDI는 이날 발표한 한보고서에서 82회계연도중 미국의 대외무기판매고가 지난75년 포드행정부때 기록됐던 美최고의대외무기판매고(1백70억달러선)를 훨씬 넘어설것이라면서 이같은 무기판매는▲총무기판매고 상한선철폐 ▲무기구매국의 인권사례 불고려 ▲분쟁가능지역에의 최신기술제공금지 조항폐기 ▲해외美공관에대한 美무기 판매업자 지원지시등 레이건행정부가 카터행정부 당시의 정책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美·中共관계지뢰밭 美 홀드리지 警告

【호놀룰루20日UPI=聯合】 존·홀드리지 미국무성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19일 미·중공관계가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계획으로 말미암아 현재 지뢰밭위에 놓이게 됐다고 경고하고 민감한 협상과정을 통해 빨리 이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페르시아灣 協議會6國 긴급外相회담준비

中東사태와 이란·이라크戰등 論議

【리야드19日SPA=聯合】 페르시아灣협력협의회(GCC)는 페르시아灣지역과 中東사태를 논의하고 이라크-이란戰을 종식시키기 위한 回敎평화위원회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GCC 6개회원국 긴급외상회담의 개최를 논의중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야마紙가 19일 사설에서 밝혔다.

한편 사담·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은 19일 이란-이라크戰 중재외교를 벌이고있는 아메드·세쿠·투레 기니대통령과 회담했다고 관영 이라크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후세인 대통령이 남바그다드를방문중인 투레 대통령과 만나 투레대통령이 위원장으로있는 9人회교중재단의 그간의평화정착노력의성과를검토했다고 전했다.

메아리

줄어든 시골장

우리나라의 장은 한달에 여섯번 섰었다. 시골의 비교적 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취락에서는 장은 30리내지 40리의 거리를 두고 있어 한달6장을 상인들이 두루 거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못해 물물교환이 주였으며 따라서 상업도시로 발달할수 있는 사회적기반을 잡을수가 없었다.

이와같은 장은 고려시대에 향시(鄕市)라는 이름으로 내왕 하루길의 거리인 성읍시(城邑市)와 교통의 요충지에 서게된것이 그 시초이며 본격화하기는 조선왕조때 태종이 한성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부터의 일이다.

그러나 지방에 장이 서게 된것은 성종때에 이르러서이다. 전라도일원에서 흉년이 들어 기근상태를 빚자 자연 발생한 것이었으나 처음에는 농업인구가 흩어지고 작당해서 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하여 관아에서 금했었다.

그런데도 중종·명종시대 부터는 경상·충청·전라등 3남지방에 퍼져나가서 마침내는 뿌리를 내리고 말았다.

이렇듯 지난날의 장은 여러 역사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생활속에서 생활필수품 집산교역의 구실을 감당했고 정보전달의 매체기도 했으며 모처럼의 행락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장날이면 인근주민들이 몰려 차일을 친 노점앞에서 흥정하는 소리가 와자지껄하고 다른 한 모퉁이에서는 장타령 가락에 신이나서 갖가지 어깨춤을 추는 장꾼이 있는가 하면 그옆에서는 흥정벌의 시비가 싸움으로 번져 멱살잡이로 덤부는 광경도 있어 장마당은 언제나 활기에 찼다. 주막에서는 동동가락이 이마에 번져흐르는 주모가 술국을 안고 장꾼에게 연신 눈웃음을 보내며 아양을 떨고 모처럼 만난 동네끼리 두손을 잡고 반가운 수인사가 끝나기 바쁘게 주먹기여자판을 끼고 앉아서 막걸리를 재촉했다.

이처럼 구수한 서민생활의 때가 전 장도 도시에서는 슈퍼마킷, 시골에서는 상설시장에 밀려서 해마다 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한국시장협회가 20일 밝힌바로는 정기시장은 76년에 1천7개소이던 것이 80년에는 9백17개소로, 또 81년에는 8백84개소로 쇠퇴일로에 있다니 「시골사람의생일날」로꼽던 「장날」도 이제 해마다 쓸쓸한 그림자가 짙어만 가는듯 하다.

이, 시나이撤收개시 定着村서 23家口 강제퇴거

【야미트(이스라엘점령 시나이半島)19日UPI AP=聯合】 이스라엘군은 19일 시나이반도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23가구를 강제퇴거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시나이 반도철수에 완강히 반대하는 3천여 극렬민족주의 정착민들에 대한 대규모 소개작전을 개시했다.

오는25일의 시나이 반도최종철수예정일을 6일 앞두고 이스라엘 정부는 2만명의병력을 투입, 정착촌의 철거작업을 시작했으며 일차로 지중해연안 북부 시나이 반도의 야미트시에서 동쪽으로 8㎞떨어진 탈메이요세포에서 기중기와 철제동우리를 동원, 23가구를 퇴거시켰다.

大一化學이「최우량」

能率協會 上場企業평가

반창고메이커 大一化學이 우리나라의 최우량기업인것으로 나타났다.

韓國能率協會가 3백24개 상장기업의 지난해 결산자료를 토대로▲수익성에▲1백50점▲안정성▲1백점▲성장성에 50점을 배점, 우리나라기업들의우량도를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테이프및 의약품메이커 大一化學이 2백73.9점을얻어 재무구조가 가장 뛰어난 기업인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3위였던 東一고무벨트는 2백72.9점을 얻어 2위로 올라섰으며 지난해22위에 머물렀던 삼영전자는 2백70.8점을 얻어 3위로 뛰어올랐다.

10대우량기업안에는 기업은 4위 신라교역 5위 대웅제약 6위 일양약품 7위 동양철관 8위 금성통신 9위 녹십자 10위 중앙염색가공등이다.

구독신청 533·2361

海外토픽

말飼育師 고용말썽

★英찰즈 아르헨출신에

영국의 찰즈황태자는 최근 포클랜드영유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출신의 말사육사를 고용했다고 영국신문들이 일제히 보도.

이에대해 버킹검궁측과 라울·코레아라는 사육사의 부인은 코레아씨가 지난13년간 영국에서 거주해왔으며 영국의 시민권도 갖고있다면서 신문의 보도를 힐난했다고.【런던=AP】

60대泰首相에 구혼

★30대女변호사 전화로

독신인 프렘 타이수상(61)은 익명의 여성변호사로부터 구혼을 받고있다고.

방콕 신문보도에 따르면 라차니양으로만 알려진 39세의 이여성변호사는 정부대변인사무실에 전화를걸어 백발의 프렘수상을 오랫동안 사모해왔다면서 직접 내조하기위해 결혼하고싶다고 고백했다는것.

트라이·롱 정부수석대변인은 이전화를받고 라차니양에게 프렘수상에게 보이겠으니 상반신상과 전신상등 사진2매와 간략한 이력서를보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방콕=AP】

◇加청년의 投身자살 캐나다 터론토 시내의 한 호텔에서 19일 하오 경찰과 대치중이던 한 청년이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1층 창문을 뛰어 내리고있다. 이 청년은 즉사했다.【터론토19日AP電送=聯合】

映畵界화제

40년전 鍾路재현한 「종로 블루스」제작

1940년대의 鍾路거리를 그대로 재현한 영화「종로블루스」(감독 金曉天)가 제작되고 있어 화제. 40년전 종로일대를 배경으로 민족의 한과 협객들의 의리를 그릴 이영화는 당시의 사진을 고증삼아 경기도 벽제에 3천5백만원을들여 종로거리를 오픈·세트로건립, 촬영중이다. 탤런트 李純才가 春園李光洙, 申久가 金性洙, 金成謙이 趙炳玉역을 맡아 특별출연한다.

천체學者 라이드孃 첫女宇宙여행자로 챌린저號탑승할듯

【워싱턴20日AP=聯合】 미국의 천체물리학자인 샐리·라이드양(30)은 내년 4월20일에 발사될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에 임무수행과학자로서 탑승, 미국최초의 여성 우주여행자가 될것이라고 미항공우주국(NASA)이 20일 발표했다.

外信안테나

◆이스라엘 勞動相 유죄판결＝아하론·아부·하츠에이라 이스라엘노동·후생·이민상이 19일 한 텔아비브 법원에서 절도·사기및 배임등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메나헴·베긴 수상의 연립정부에 치명타를 가했다. 하츠에이라 장관은 지난75~78년중에 자신의 부친명의로 기부됐던자선기금을횡령한혐의로 기소됐다.【텔아비브=AP】

◆伊5黨聯政 붕괴위기＝이탈리아5黨연립정부는 19일 연정에 참여하고있는 社會黨각료들이 基民黨소속 베니아미노·안드레아타藏相의 對사회당중상발언에 분격, 연정탈퇴를 위협함으로써 발족10개월만에 붕괴될위험을 맞았다.

조반니·스파돌리니수상은 사회당각료들이 안드레아타 장상의 발언과 관련, 각의참석을 거부하고 연정에서탈퇴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예정된 각의를 취소했다.【로마=聯】

새로개발된

광석약수 미네랄·워터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장 손쉽게 가따야마 광석으로 아주 값진 미네랄·워터를 언제나 필요한만큼 손수 만들수 있읍니다.
온 가족이 일생을 다 즐길수있는 이 광석을 가정의 보배로 생각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문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 지 섭 : 530·0522
아 세 아 한 약 방
(DOWNTOWN 판매처)

강 문 원 : 964·8590
(NORTH YORK 판매처)

●남 영 애 : 282·3553(오전)
284·9325(오후)
(SCARBOROUGH 판매처)

●김 성 지 (SIMON KIM)
KIMSEE DISTRIBVTORS COMPANY (총 판 매 처)
전 화 : 299·1888
281·8218

●INTERMESH COMPANY
(제 조 처)

어린이 음악콩쿨대회 안내서

대 회 일 : 1982년5월1일(토) 오후1시
심사위원장 : 박 재 훈 박사(497-0406)
신 청 마 감 : 4월25일까지
신 청 방 법 : 신청서, 참가비(수표), 자유곡 사본 3통을 본교회로 전달 또는 발송 (편리를 위해 서울식당에 신청을 해도 무방함)

대회장소 :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Toronto.
문 의 : 535-6864(사무실)
275-7276(강인철전도사)

주 최 :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후 원 : 토론토 한국인교회 학교협의회

내용 구분	연령별	지정곡(동요)	지정곡(찬송가)	자유곡	시상	비고
독창부 참가비 $10	유치부 (5세이하)	아기별, 시냇물 중 택일	사랑의 하나님	동요나 찬송가중 1곡	1, 2, 3등 트로피및참가	1)모든 종목은 2절까지 부르며 1절후 간주 2절을 부른다. 2)반주자는 참가자가 동반한다. 3)지정곡은 동요1곡 찬송가1곡, 자유곡은 동요나 찬송가중 1곡으로 합3곡을 부른다.
	유년부 (G1-G3)	산바람 강바람, 파란마음 하얀마음 중 택일	어려서 부터	〃	〃	
	초등부 (G4-G6)	봄이 왔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	〃	〃	
중창부 $20	유년부 (3학년이하)	어머니 은혜	아름다운 장미	〃	〃	4)각부분 년령별 수상자 트로피는 각기 관장이 증정하며 수상자는 본교회 T.V.에 출연합니다. 5)신청서, 안내서, 악보는 다운타운의 종교서관, 서울식당, 스카보로 지역은 한국식품 동부지점, 미시사가지역은 한발식품에 비치되어 있읍니다. 6)각교회및 한글학교는 발송하였으므로 해당부서에 문의바랍니다. 7)본교회 사무실에 직접 내방하여 악보를 갖고 가셔도 됩니다.
	초등부 (G4-G6)	옹달샘	아름다운 장미	〃	〃	
합창부 $50	합창부는 G6이하 16명이상 여성, 남성, 혼성중	종소리, 초가집 초록바다중 택일	오, 은혜로우신 오, 거룩한아기 중 택일	〃	1, 2, 3등 단체 트로피및 1등 지휘자, 반주자 개인 트로피	

「목소리大學」 엉성한 運營

放送통신大 10년… 平生교육 실효 못거둬

학생15萬… 아직 제자리걸음

時間帶 푸대접 難聽도 많아

우리나라의 대표적 평생교육기관인 방송통신대학이 개교10년이 넘도록 제자리를 못잡고있다. 그동안 방통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급속도로 팽창, 82학년도 현재학생수는 15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교육의수준과 운영방식과, 학사관리등은 개교당시에 비해 나아진게없다. 게다가 사회적인 몰이해까지 겹쳐 방통대관계자들은 조차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 재정적뒷받침이 없는한 「국민의 평생교육」은 있으나 마나한 꼴이 될것이라고 심히 우려하고 있다. 【李鍾九기자】

20일 방송통신대 관계자에 의하면 대학운영상의 문제점중 가장시급히 해결되어야할 것은 부적합한 방송시간대와 난청지역문제.

한국방송공사(KBS)와 계약에 의해 방송통신대가 확보하고있는 방송수업시간대는 상오5~7시, 하오11시~상오1시등으로 하루 4시간이고 이시간대에 과목당 불과15분내지 20분간씩의 통신강의를 하고있는데 시간적으로도 짧을뿐아니라 방송시간대가 너무 늦거나 일러 대부분 직장인인 학생들에게는 방송강의가 제대로 실효를거두기가 어렵다. 이때문에 대학측은 방송국에 방송시간대를 조정해줄것을 여러차례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묵살만당해왔다는것.

더구나 방송도 FM으로한정돼있어 난청지역이 25%나되고있는데 대표적인 난청지역은 등록학생이 비교적 많은 浦項, 蔚山, 全州, 洪城등지이다.

특히 금년부터 4년제학사과정으로 대학규모가 확대되고 학과가 5개학과에서 9개학과로 대폭늘어난데비해 방송시간과 시설은 전혀개선되지 않고있다.

또 출석수업도 골칫거리중의 하나가 되고있다.

현재 1학기당 7일간씩각지역에있는 협력대학에 나가 출석수업을 받아야하는데 직장을가진 학생들이 이를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다는것. 통신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업체에서나 심지어 관공서에서도 출석수업에따르는 장기간의 근무결손을 이해하려하지않아 많은 학생들이 출석수업을 중도에서 포기하게되고 결국은 졸업을 하지못하게 되는것이다.

실제로 지난72년 개교이후 졸업생수는 매년 등록학생수의 5분의1에도 미치지않는 20·01%(3만3천8백여명)에 그치고있는 실정이다.

문교부여직원중에서는 40여명이 방통대에 입학했다가 출석수업을 받지못해 이중19명이 도중에서 탈락할수밖에없었다.

교원부족현상도큰문제. 예산규모때문에 최소한도로 있어야할 교원정원수가 80명인데도 현재 그반수에도 못미치는 34명에 불과하며 이중에서도 교수와 전임강사급은 15명밖에안돼 이들이 9개학과 15만명을 지도해야할 형편에있다.

한 관계자는 「협력대학의 교원들의 도움을 받고있지만 교원수는 엄청나게 모자라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강의지도및 이들에 대한 성적평가등은 「형식에 그친다」고 솔직이털어놓았다. 예를들면 성적평가는 출석수업때의 시험평가 80%(대학본부50%, 협력대학30%)와 과제물평가 20%를 합산하게되는데 과제물의경우 감당하기에 과목당 5편을 제출하게돼있어 한번에 10만여명의 학생들로부터 과제물이 쏟아져 들어와 일일이 채점 또는 첨삭지도를할수없는 형편이라는것.

또한가지 어려운것은 입시관리문제. 고등학교졸업자격을 경우 나이에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수있어 균일한 사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방송통신대의 현재 학생수는 신설된 학사과정 3학년 편입생과 탈락된 재수강자를 합쳐 15만명인데 83년이지나면 20만명으로 더욱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희망의 속삭임」合唱 장애자 재활대회에 이어 벌어진 기념제에서 연세재활원 뇌성마비 아동들이 어머니와함께출연, 「희망의속삭임」을 합창하며 밝게웃고있다.

장애자再活 대회

어제 서울서 잔치…有功者표창

제2회 장애자 재활대회가 20일상오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장애자및 보호자, 장애자 복지업무종사자등 5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장애자를 위해 지난33년간 물리치료를 해온 세브란스병원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멜머·모여사(66·미국인)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수여되는등 장애자사업유공자 12명에게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사부장관표창등이 수여되었다.

대회에이어 벌어진 기념제에서는 뇌성마비아및 어머니들의 합창과 서울애화학교학생들의 부채춤공연등 장애자들의 무용, 체조, 연주등이 펼쳐졌다.

신나통에 성냥불 어린이 2명死傷

【木浦】18일하오 4시께 전남珍島郡義新面玉岱里 金永喆씨(33)의 딸 明順양(4)과 金씨의 조카 京德군(12)이 부엌앞에있는 신나통에 성냥불로 장난을하다가 불이나 화상을입고 明順양은 19일상오8시께 숨지고 京德군은중태다.【木】

魔의 서울地下鐵 붕괴現場

復舊중 또事故

鎔接工이 추락

서울지하철붕괴사고 현장인 서울西大門區峴底洞에서 20일상오11시께 복구작업중이던 용접공 金瑞炳씨(50·서울江西區木洞409의3)가 10m아래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중태다.

이날 사고는 복구작업을 하기위해 임시설치한 케이블윈치에 안전벨트를 매고 강재절단작업을 하던 金씨가 작업장을 옮기던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는 바람에 아래로 떨어진것. 峴底洞지하철 공사붕괴현장에서는 10명이 숨진것을 비롯 지금까지 복구작업기간중 2건의 안전사고가 또 일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1구의 시체는 아직도 발굴하지 못하고있다.

住民의식改革차원 모든地方행정施策

內務部지시

내무부는 20일상오 전국 시·도부지사회의를 소집, 의식개혁추진세부실천계획을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지방행정시책을 주민의식개혁의 차원에서 시행토록하고 각시·군·구는 5월10일까지 자체특성에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유별난 봄

심한 日較差 가뭄 시달려

산불·感氣·식수난

봄채소·나무活着에도 큰지장

일교차(日較差)가 최고 10도가넘는 이상기온에 봄가뭄마저 계속돼 봄채소가 생육에 큰지장을받고있으며 지역에따라서는 감기환자가 급증하고있다.

20일 중앙기상대에 의하면 木浦지방의경우 지난3월 강우량이 예년보다 23·8mm나 적었고 蔚山은19·6mm가 적었다.

지난겨울의 가뭄에이어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강우량이 적자 도시에는 식수난이 계속되고있으며 농촌에서는 봄채소는 물론 새로심은 나무들의 활착에도 지장을 줄뿐아니라 산불도 자주일어나고 있다.

중앙기상대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겠지만 해갈에는 큰도움을 주지못하겠다며 앞으로 당분간비가오지않을것으로 내다보았다.

또 산간내륙지방인 安東·晋州등지에서는 입담배와 봄감자가 말라죽거나 시들고있어 평균40%의 감수가 예상되고있다.

한편 4월들어서면서 시작한 심한 일교차현상은 서울지방이 10~12도, 가장 심한 春川지방은 15~18도나 되고있다.

각지방의 3월 강우량은다음과같다. 괄호안은 예년강우량. 단위mm

서울 46(60·4) ▲仁川 46·9(54) ▲水原 52·7(55) ▲清州 58(54) ▲瑞山 61·1(42·5) ▲大田 63·3(63·9) ▲江陵 51(76·8) ▲春川 43·1(56·2) ▲群山 59·2(43·7) ▲全州 60·1(73·7) ▲光州 53·8(64) ▲木浦 41·4(65·1) ▲濟州 65·2(76·4) ▲麗水 98·8(82·1) ▲大邱 50·4(47·3) ▲浦項 52·3(57·6) ▲蔚山 55·4(75) ▲釜山 82·9(93·2) ▲忠武 101·7(66·6) ▲晋州 79·1(72·8)

경찰特攻隊 만든다

게릴라型범죄·國際테러對備

치안본부는 20일 도시게릴라형 범죄와 국제테러조직등에 대비 경찰특공대(가칭)를 창설키로했다.

경찰은 이날 鄭東秀경경을 특공대장으로 임명, 앞으로 한달안에 60~70명정도의 특수요원을 선발, 인질·조직적 테러행위등에 대비한 훈련에 들어가 유사시에 활용키로했다.

이특공대는 국내에서 빈발하는 인질난동이나 테러는물론 86년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 테러행위가 발생했을경우 고도로 훈련된 요원들을 투입키위해 조직한 것이다.

본드는 幻覺독극물

臟器에 출혈 심하면 全身마비…숨져

漢陽醫大팀 쥐實驗보고서

청소년들사이에 환각용으로 남용되고있는 접착제(본드)를 마실경우 장기에 충혈 또는 출혈현상이 일어나고 심한경우 전신마비를 일으키며 사망한다는 연구보고가 나왔다.

이같은사실은 漢陽大의대약리학교실(徐大圭·金仁樹·孫東烈교수) 연구팀의 「접착제흡입으로인한 흰쥐의 장기의 조직학적 변화」라는 연구논문에서 밝혀졌다.

이논문에 의하면 실험대상 쥐에게 접착제를 흡입해보니 접착제는1~2분이내에 흥분상태를일으키고 점차 억압상태로 이행되면서 자발운동이 감퇴됐다.

또 많은양의 본드를 흡입한 쥐들은 불규칙한 호흡끝에 전신마비를 일으키고 죽었다는것.

연구팀은 0·1g, 0·2g, 0·5g의 접착제를 지속적으로 흡입시킨 3개실험군과 0·1g을 1일 2회 20분간씩 5일 그리고 10일간 간헐적으로 흡입시킨 2개 실험군으로 나누어 변화를 조사했는데 접착제의양과 흡입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1~2분이내에 흥분을 일으키고 억압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것. 또0·1g의 실험군에서는 서서히 정상을회복했으나 0·2g이상의 접착제를 마신쥐들은 호흡수가 감소되고 불규칙 호흡끝에 전신마비를 일으키며 죽었다.

또죽은쥐의병리조직학적조사를 한결과 장기에 경미한 혈관성충혈현상이 드러났으며 간헐적으로 접착제를 흡입한 경우는 허파와 간·신장등에 심한충혈과 출혈이나타나 인체에도같은악영향을미치는것이입증됐다는것이다.

姉妹익사시킨 父情구속

◇비정의 아버지 金泰奉

【釜山】부산북부 경찰서는 19일 남매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한 부산西區 舊平洞2 90 金泰奉(35)을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金은 지난1월26일 밤11시30분께 장남 聖民군(10·장림국교3년)과 장녀 聖美양(7)등 2명을 影島區 靑鶴洞 부산조선소 둑위에서 차례로 바다에 밀어넣어 숨지게 했다는것인데 선박수리공인 金은 이날 남매가 가출한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보채자 순간적으로 죽이기로 결심, 택시에 태워 해변가로 데리고가 범행했다.【釜】

野山서 목매自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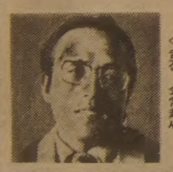
體操協·元振프로모션會長 金常起씨

한국체조협회장겸 元振프로모션회장 金常起씨(39·조흥은행明洞지점차장·서울西大門區延禧洞84의1)가 19일하오1시45분께 경기楊州郡廣積面孝村里 골리스테니스장앞 야산에서 소나무에 목을매 숨진시체로발견됐다.

경찰은 원진무역, 원진강건, 원진바우등 원진그룹을 이끌어 오던 金씨가 최근 자금난에 허덕여 이를비관, 자살한 것으로 보고있다.

金씨의 시체를 처음발견한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장 朴春植목사(55)에 의하면 金씨가 이날상오 9시께 박애원에 찾아왔다가 바람을 쐬러간다며 朴목사의 서울2라9604호 레코드로얄승용차를 타고나갔는데 사건현장부근에서 자신은 내리고 운전사張상은씨(24)에게 「혼자있고 싶으니 3시간뒤에오라」며 차를돌려보냈다는것.

朴목사는 하오2시30분께 현장에 도착, 金씨가 줄넘기끈으로 목을매 숨져있는것을 발견했다.



◇숨진 金常起씨

가정不和 비관 3母女 燒死

20일상오10시15분께 서울城北區長位洞64의45 李文遠씨(25)집 건넌방에세든 韓正時씨(39·운전사)의 부인 孫眞子씨(37)가 慈園(4)·慈林양(3)등 두딸과 함께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모녀가 모두 불에타 숨졌다.

경찰은 숨진 孫씨가 5년전부터 신경쇠약증세를 앓아 택시운전사인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는것을 이유로자주 다투어왔으며 4개월전에도 방에 석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었다는 남편韓씨의 말에따라 孫씨가 신병과 가정불화를 비관, 부엌에 있던 석유통의 석유를뿌리고불을 지른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이날 불은 20평가량의블록 양옥을 모두 태우고 40분만에 꺼졌다.

5억 不渡내고 日本으로 逃避

【釜山】釜山 中部경찰서는 20일 中區 中央洞2가 49소재 南貞해운(주)대표 鄭仁정씨(43·南區 大淵1洞 875의13)가 79년 3월2일부터 서울신탁은행 凡一洞지점에 당좌를 개설, 거래해오면서 최근에 계속된 해운불황에도 불구하고 사업확장을 하다 지난3일부터 9일사이 잔고없는 부도수표 29장(1억8천5백여만원 상당)을 남발한것을 비롯 20일 하오현재까지 4억7천여만원 상당(65)의 부도를내고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씨의 소재수사를 일본경찰에 의뢰했다.

새벽, 아파트서 30代女人피살

지난 17일 상오6시5분께 서울江南區淸潭洞 三益아파트1동505호에서 崔貞姬씨(34·여)가 목졸려숨진것을 남편辛聖洙씨(4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음이 20일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崔씨는 머리를 흉기로맞고 나일론끈으로 목이졸린변사체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평소 가정불화가잦고 나일론끈이 사후에 형식적으로 매여지는등 위장된흔적이 있는것등으로 미루어 면식범이 살해한후 자살을 위장했을가능성이 높은것으로보고 수사를벌이고있다.

533·2361

空手來 空手去

일찍 가버린 奇人 金常起씨

돈버는데 道士… 쓰는데는 達人

19일 자살한 金常起씨는 우리사회가 아껴야할 奇人중의 한사람. 자기이름 석자보다도 「원진 바운」로 더알려진 金씨는 젊은나이 답지않게 돈을버는데 도가 텄다는 평판을 들은 사람이었고 「번돈을 잘 쓰는데」도 자기나이의 두배쯤 되게 노련했던 「奇人」이었다. 그가 왜 세상을 스스로 등졌을까?

그의 서른아홉해 인생을 행복하다곤 말할수 없지만 생명력에 차있던 화끈한 삶이었다고 할수 있었다. 사회적 지위로볼땐 은행 차장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리 대수롭지도 않은 10억대의 元振그룹 회장으로 그는 최고 경영인의 일을 했는가하면 체조협회 회장까지 맡아 88올림픽의 금메달을 노리는등 욕심껏 인생을 살려고 했다.

그의 奇人기질은 청년기에 드러난다. 강원도 빈농의 아들로 자라 江陵상고를 졸업한 그는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당돌하게 생면부지의 은행장을 찾아가 취직자리를 요구, 특채가 되었다.

어릴때부터 돈벌기를 좋아한 金씨는 은행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돈의 철학을 연구하게 된것이다.

그래서 부업으로 돈을 벌였고 성이 차지않자 한때 은행을 그만두고 越南에 건너가 톡톡히 목돈도 만졌다. 노랭이 노릇을 했다면 그는 지금쯤 신흥재벌의 명단에 끼었을지도 모른다는게 주변의 말. 그러나 金씨는 버는데 보다는 쓰는데 더 치중했다. 보통사람은 하기어려운 일을 그는 차근차근 해나갔다.

金씨는 자기돈을 들여 벽새눈의 천진 金泰植을 사각의 왕좌에 앉혔고 金嗣王을 길러냈다. 한때 권투중계때면 「元振프로모션」이란말이 서두를 장식할 정도로 권투에공헌했다. 또 연극도 키웠다. 극단 「민예극장」이 그가 길러낸 예술나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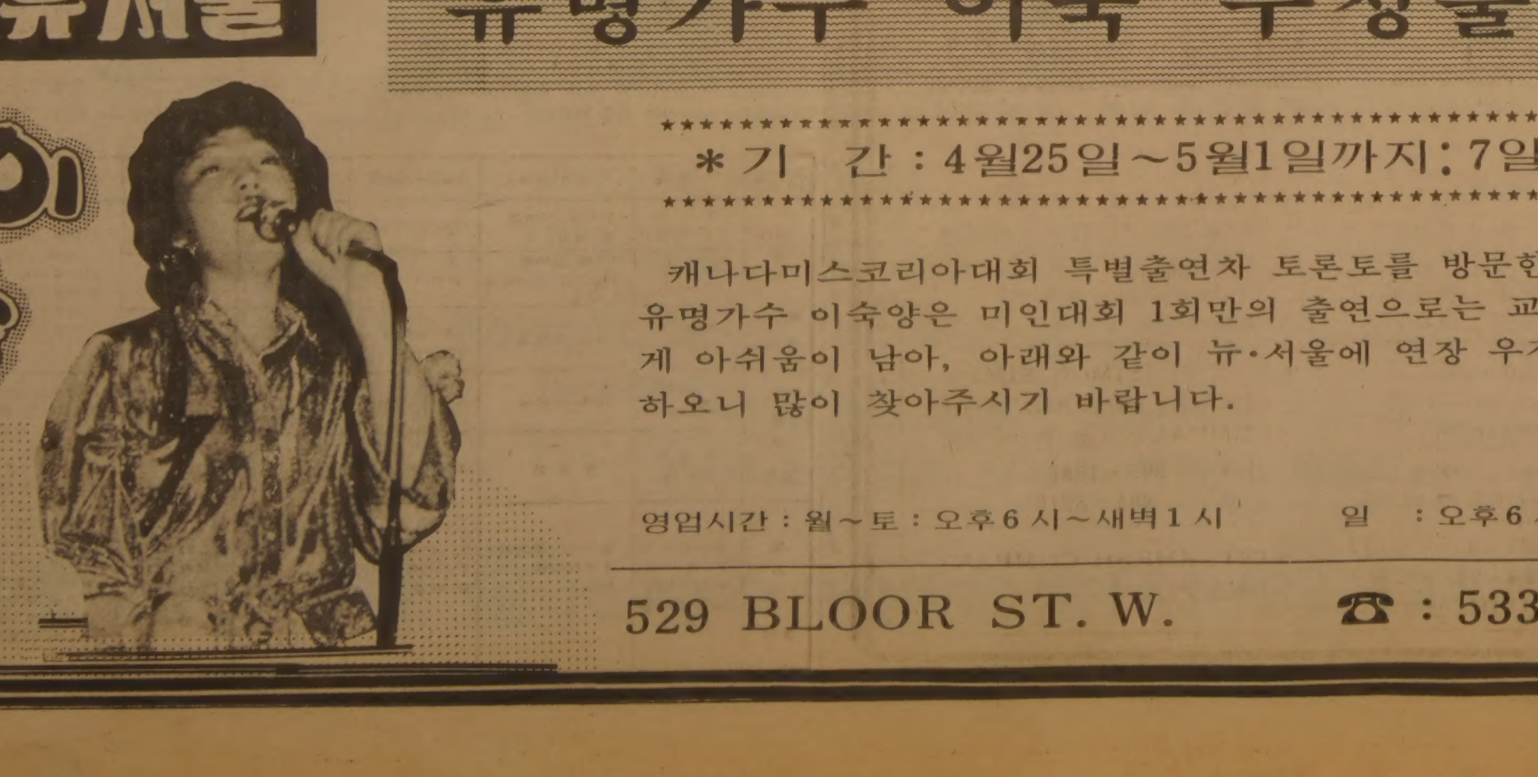
金씨는 소외된 인생에도 積善을 쌓았다. 정신박약아들의 수용소인 博愛院을 살렸고 지난2월 元振회장직을 물러나면서 주식을 이곳에 넘겨줬다. 알게 모르게 체육인·연예인·복지사업가들이 金씨의 도움을 받았다.

작년에는 한국계 소련체조스타 넬리·킴을 서울에 데려오겠다고 의욕을 보여 체육外交에도 한몫을 하려는 의욕을 보였다.

그러던 金씨의 인생철학은 철두철미하게 「空手來 空手去」. 또 이세상에 허물을 남기지 않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뇌었다. 그는 지난 2월 재산정리를 깨끗이 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했던 것같다. 죽음으로 신앙과 민족을 지킨 TV영화 「마사다」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문학소녀처럼 얘기하곤 했을때 그는 자신의 삶이 정리돼야 한다고 느꼈던 모양이다. 그가 스스로 「요절」한 이유를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확실한것은 빈손으로 왔던(空手來) 그가 「너무 빨리」 빈손으로 돌아 가버렸다(空手去)는 사실이 애석하다는 점이다. 【朴珍列기자】

뉴서울

유명가수 이숙 우정출연



*기 간 : 4월25일~5월1일까지; 7일간

캐나다미스코리아대회 특별출연차 토론토를 방문한 한국 유명가수 이숙양은 미인대회 1회만의 출연으로는 교포들에게 아쉬움이 남아, 아래와 같이 뉴·서울에 연장 우정출연 하오니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 월~토 : 오후6시~새벽1시 일 : 오후6시~오후11시

529 BLOOR ST. W. ☎ : 533-1500

왈뚱 해외여행 ⑪

初行者를 위한 가이드

호텔投宿…요령과 에티켓 필요하다

체크아웃시간 꼭 確認

잠잘땐 반드시 침대보걷어내 담요덮고

浴槽물 밖에안흐르게…貴重品 프론트에

술들고 들어오면 負擔金물려、잠옷차림 로비闊步망신

해외여행중 반이상의 시간은 호텔에서 보내게된다。또비행기요금과 더불어 가장많은 여행경비를축내는 곳도 호텔이다。

이렇듯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쏟아넣으면서도 정작 요령있게 호텔시설을 이용못하는게 한국사람이란 말같잖은 평을자주듣는다。도대체 어떤 일들로 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일까。예를들어보자。

외국의 고급호텔、특히 歐美호텔의 욕실엔 욕조에만 물이 빠지는 구멍이있고 욕실바닥엔 없다。이걸 모르는 한국여행객이 욕조에 물을 가득채우고 풍덩하고 들어가는 바람에 욕조의물이 넘치면서 침실로 들어와 카페트를 엉망으로해서 호텔측의 항의를 받는일이 부지기수라는게 여행사 안내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다。

또 침대의 사용법을 잘몰라 엉뚱하게 침대보(SPREAD)만 달랑덮고 자고는 이튿날 가이더에게『왠 호텔이 담요도 안주느냐』고 기막힌 항의를해오는 여행자도 한둘이 아니라는 것。

◇침대커버(SPREAD)는 덮고자는것이 아니다。잠잘때는 반드시 걷고 담요를덮고 자야한다。

호텔을 이용하는 기본요령을 알아두는것이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국내여행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우선 호텔에 도착하면 프론트데스크(Front desk)에서 체크인수속을 한다。이때 분명히 해둘일은 객실요금(Rate)과 체크아웃(Check-out)할 날짜·할인가능여부(비수기일땐 할인이 많다)를 확인하는 것이다。체크인이 끝나면 벨보이가 객실까지 안내를 해주는데 미화 1달러정도의 팁을 주는게 좋다。

여장을 푼 다음 보석·현금등 귀중품은 프론트에 알려 귀중품보관소(Safety Deposit Box)에 무료로 맡겨둘수가 있다。

앞서 지적했지만 객실사용에서 주의할 것은 목욕할 때。욕조에 물을3분의2정도 채우고 샤워커튼을 욕조안으로 집어넣어물이 밖으로 튀어나가지않도록 주의해야한다。목욕이나 샤워는 욕조안에서 끝내야한다。

여성을 위해서 비데·위생대와 목욕할 때 쓰는 드라이·캡(모자)도 욕실안에 비치돼있다。특히 비데는 여성만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남성여행자들은 변기로 오인하거나 음료수대로 잘못 알고 마시는 해프닝이있어서는 안되겠다。

또 욕실안에는 수건이 4종류나 걸려있다。이것들도 사용용도가 다 다르니 주의할 일이다。손수건만한게 때밀이 수건(Wash towel)이고 가정에서 쓰는 크기의 수건은 얼굴과 몸의 물기를 닦는 세수수건이며 가장 큰 것이 베드·타월로 목욕후 그냥 몸을 감싸는데 쓰인다。또 세수수건 크기의 발닦이 수건(Foot towel)이 따로 마련돼 있다。

욕실과 더불어 잘못사용하는 예가 많은것이 침대。침대의구조를 보면 스프링 위에 시트(Sheet)로싼 패드를 올려놓고 그위에 다시 시트 담요 침대보(Spread)를 덮는데 잘때는 반드시 보는 걷어내고 시트와 시트 사이에 몸을 집어넣어야한다。

방을 비울 경우에는 꼭 키(Key)를 갖고 나가야한다。요즘 서양호텔은 손님이 주머니에 넣고 외출할수 있게 작은키가 유행이지만 한방을 들이 쓸때는 프론트에 맡기는게 편하다。

또 만약 화재등이 발생했을때에 대비、사전에 비상구(Exit)및 비상유도로의 위치도 객실에 비치된 안내책자를 통해알아둬야한다。뉴 저팬호텔 화재이후 동남아지역의 호텔엔 아랫층에 예약이몰린다는것이다。

비록 영어가 서툴다해도 호텔은 잘만 이용하면 편리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실내에 설치된 전화로 세계 어디든 통화가 가능하고、자신에게 올 메시지를 챙길수 있고、프론트곁에 있는 안내석에서 여행지의 관광·지리·각종요금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얻을수있다。

또 호텔안에는 클럽·헬스클럽·세탁소·술집·식당·이발소등이 있고 외국여행자들에게 긴요한 환전소도 있다。세탁의경우는 원데이(One day)서비스로 아침에 맡기면 저녁에 나오는데 드라이、물세탁、다림질을 정확히 구분해줘야한다。

그렇다고 호텔시설을 마구이용하다는 말자。여비가 하루에 바다날 것이다。호텔 식당의음식은 대단히 비싸다。또 객실냉장고등에 있는걸 먹다보면 엄청난 계산이 나온다。우리나라호텔들은 관대한 편이지만 외국일류호텔에서는 손님들이 시내에서 술등을 사들고 호텔로 들어가려면 별도로 차지(부담금)를 물리니 조심할 일이다。

호텔도 국제사회란걸 인식해야 한다。한국여행자들이 국내에서 여관이용하듯 잠옷과 슬리퍼바람으로 로비를 쏘다니고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외국인에게 나쁜인상을 준다。또 일본의 여관에서는 공동목욕탕을 이용하게 마련인데 탕안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여행을 하다보면 호텔투숙예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이땐 지체없이 프론트에 알려야 한다。예정보다 빨리 나갈땐 호텔에 대한 예의이고 더 오래묵을땐 투숙객에게 최우선적으로 협조해주는게 관례다。

호텔에선 체크아웃시간을 철저히 지킨다。보통낮12시에 방을 비워야 하는데 호텔에 따라선 하오1、2시에 하는 곳도 있으니 체크인 때 확인을 해둬야 한다。하오6시까지 체크아웃을 안할경우는 50% 그이상이 되면 하룻치 요금을 더 받는다。

비행기 시간이 늦거나 할 경우 여행자는 일단 방을 비우고 벨데스크에 짐을 보관하면 할증료를 물필요가 없다。

예약을하고 투숙한 호텔에 체크아웃할때 객실요금을 지불하는데 주의할게 팁이다。미국에서는 아침마다 2달러정도、체크아웃하는날엔 5달러정도 팁을 주는게 무난하다는것。동남아는 미화1달러가 기준이다。팁은 베개위에 놓는게 관례이다。그러나 일본에서는 팁을줄 필요가 없다。

아주 드문 일이나 도난도 주의해야 한다。선진국에서도 방안에 도둑이 들어 카메라등 귀중품을 털어가는 경우가 있고 동남아에선 체크인 또는 체크아웃때 여행자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도난을방지하려면문단속을 잘하고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는게 요령이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여행자가 도둑을 끌어들이는 일도 있다。호텔근처나 술집에서 만난 벽안의 미인의 꾐에 넘어가 자기 호텔방에 데리고가 담소를 즐기다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들어간 사이 여자가 돈이며 귀중품을 털어 도망가버리는 일도더러있으니 조심하고 볼일이다。

【金普泰기자】

美 살라자르 優勝

보스턴마라톤 2시간8분51초

女子는 西獨테스케

【보스턴=聯合】마라톤 세계최고기록 보유자인 美國의 알베르토·살라자르(23·투바태생)는 19일 이곳서 거행된 제86회 보스턴·마라톤대회서 2시간8분51초로 우승、세계최강 마라토너임을 재확인했다。그러나 이날 살라자르의 기록은 지난해10월25일 뉴욕·마라톤서 세웠던 세계기록 2시간8분13초에 38초 미달하는 기록이다。

한편 여자경기서는 西獨의 샬로테·테스케(32·간호원)가 2시간29분33초로 우승했다。

구독신청은 533-2361

007영화 人氣여전

팝스타 개럿·모델 사발러스熱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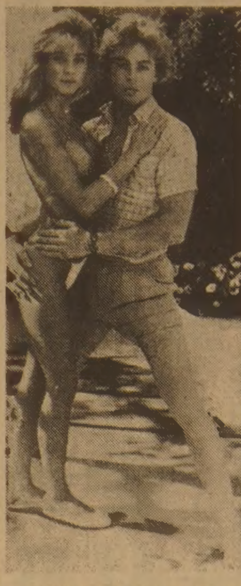
할리우드에서「상어싸움」한창

토니賞 父女가 受賞후보에 올라

海外演藝화제

★…전세계 10대의 우상인 팝스타 레이프·개럿(20)이 모델 니콜렛·사발러스(18)와 열애중이다。니콜렛은 TV수사물「코자크」의 대머리형사 텔리·사발러스의 딸。

이들은 1년전 친구소개로 알게돼 뜨거워졌는데 레이프는『그녀는 내가 지금까지본 어떤 여자보다도 아름다운 몸매를 지니고있다』고 애인을 자랑。키 5피트7인치의 금발미녀 니콜렛은『나도 레이프를 무척 사랑한다』며 행복한 표정。



◇한참 열애에 빠진 레이프·개럿㊧과 금발미녀 니콜렛·사발러스。

★…007영화의 원작자 이언·플레밍은 가고 없어도 시리즈영화는 20년간 할리우드를 비롯한 세계극장에서 인기가 식을줄 모른다。

제임즈·본드가 등장하는 007시리즈는 이미 12탄까지 상영됐고、13탄「Octo-Pussy」가 83년여름 개봉목표로 제작중에 있다。원작자 플레밍이 사망했는데도 시리즈가 계속 제작되고있는것은 제작자 앨버트·R·브로콜리(72)가 플레밍가족의 허락을받고 새로운 제목、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 브로콜리는『인기가 식지않는다면 21세기까지 끌어갈작정』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플러머㊧와 아만다·플러머。

◇제작자 앨버트·브로콜리㊧와 제임즈·본드역의 로저·무어。

007시리즈는 처음 브로콜리와 해리·설츠만이 공동으로 구성한「이온」제작소에의해 만들어지다 설츠만이 8년전 3천만달러를받고 퇴진함으로써 브로콜리 혼자서 제작하게됐다。007시리즈는 90만달러를 들인 1탄「다터·노」 2탄「소련서 애인과 함께 오다」(우리나라에선「007위기일발」로 상영)가 미국서 공개됐을때만해도 007의세계가 무엇인지 몰랐고 흥행에서도 실패했다。그러나 3탄「골드·핑거」가 히트하면서 1·2탄이 재상영되는등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6억달러를 벌여들였다。시간이 흐르는동안 007영화에 관계한 제작진이나 출연진도 거의 바뀌었다。

★…최근 할리우드에서는「상어싸움」이 벌어져화제。필름벤처스·인터내셔널사가 배급、상영중인「Great white」가 지난 75년 유니버설사제작「조스」와 그 내용이나 등장인물이 너무 흡사하다고 유니버설이 제소함으로써 싸움이 시작된것。

비·모로와 제임즈·프렌시스커스가 나오는 이 영화는 누가 보아도「조스」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두 배우의 배역도 과학자와 정치가로「조스」와 같을뿐아니라 주인공의 이름도「조스」의 원작자인 피터·벤추라와 유사한 피터·벤튼으로 작명、유니버설측은 이 영화가 계속 상영되면 동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을 접수한 로스앤젤레스법원은 유니버설의 주장을 받아들여「Great white」의 임시배급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곧 있을 최종심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면 극장의 간판을 내릴수 밖에 없다。

★…토니상역사상 처음으로 父女가 함께 수상후보에 오를것 같다。화제의 주인공은「사운드·오브·뮤직」「로마제국 멸망사」등으로 잘알려진 크리스토퍼·플러머(52)와 그의 딸 아만다·플러머(25)。

크리스토퍼는「오셀로」에서 이아고역을 맡아 호연했고 아만다 역시「신의 아그네스」에서 젊은 수녀역을 잘 소화해 수상후보에 오를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그런데 아만다의 어머니 태미·그라임즈는 이미 토니상을 받아 가족중 선두수상자가 됐다。

★…금년도 아카데미영화상에서 최우수작품상·음악상등 4개부문을 수상한「불의 전차」의 주제음악작곡자 반젤리스(37)는 영화속의 엄하고 아름다운 곡을 혼자 작곡·편곡·연주해「1인심포니」란 별명이 붙었다。

그의 런던스튜디오에는 1백만달러에 달하는 각종 악기와 오디오시설이 갖춰져있는데 반젤리스는 여기서 조수 1명의 도움만으로 피아노솔로에서 교향곡까지의 음악을 창작해내고 있다고。그는 영화음악을『영화의 내용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정의。

★…「기동순찰대」(ChiP's)에서 캘리포니아주고속도로순찰대원으로 나오는 멕시코계 스타 에릭·에스트라다가 다음 시즌 NBC·TV에서 방영될 영화「Honeyboy」에 권투선수로 출연한다。에스트라다는 권투로 명예와 부를 얻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프린모터와 충돌、심한 대립을한는 역이라고。

【LA文社=朴興津기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91>

朴婉緒 作 金光培 畵

明暗 ㉕

그러나 곧 낭패감이 인재를 엄습했다。낭패감이란 바늘끝만큼이라도 생겨나기가 잘못이었다。씩씩한 기상으로 잔뜩 부풀었던 그의 마음을 꽉 찔러 담박 김 빠진 풍선으로 만들어놓고말았다。그는 마치 적에게 포위된 동지를 구하려고 적진으로 돌입하려다가 무장(武裝)없이 맨주먹인 걸 돌이켜 봤을 때처럼 부딪쳐 보기전에 씁쓸한 참패감을맛보았다。

그는 다시 서울 역광장 한가운데 섰다。그의 씁쓸한 그림자가 역광장을 뒤덮은것처럼 밤은 깊어간다。질주하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밤하늘의 서치라이트처럼 광장한가운데 선 그를 잡았다 놓쳤다 했다。

그런 밝지 못한 속에서도 그는 바쁜듯 오가는 사람이 정말로 뱃속에서부터 바쁘게 태어난 서울 토박인가、아직도 오늘밤의 잠자리도 못잡아 우두망찰을 하고 있는 갓 상경한 촌놈인가를 알것같았다。

그는 몹시 부러웠다。서울 토박이는 서울바닥에 확실하게 자리하고 있을 몇평의 땅 때문에、촌놈은 그무한한 가능성때문에。

그가 무한한 가능성을잃고 대신 도달한 성공은 서울놈이 차지하고있는 몇평의 땅에 비할때 얼마나보잘 것없는 것일까? 무를수만 있을진대 정말이지 무르고 싶었다。그가 도달한 성공을 다시 저만치 밀어올려、영원히 무지개로、가능성인채로 걸려있게 하고 싶었다。

가능성을 상실한게 전재산을 상실한거와 마찬가지로 그를 허전하고 비참하게했다。

수지는 인재로 하여금 앞날뿐아니라 그의 궁상스러운 지나간 날까지를 무지개일수 있도록 해준 여인이었다。

인재의 지난날이라야 한마디로 가난、가난의 연속이었다。수지만 아니면 생각하기조차 지겨운 나날이었다。

그러나 수지는 그로부터 그의 지난날의 가난얘기를 얼마나 좋아했던가。거의 환장했다。

그가 점심도 못먹고 온종일 산에서 나무만 하다가 배고픔을 이기지못해 진달래꽃을 마구 따먹고、다음날 눈 분홍똥얘기는 수지에게 똥이 아니라 시(詩)였고 그림이었다。

수지에게 시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가난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필요없이 더욱 과장해서 아름다운 얘기를 꾸밀수가 있었다。

교복외에 따로 평상복이라는 걸 못입어본 그의 중고등학교 시절 얘기도 수지는 좋아했다。교복도 제번 마추거나 새로 산 게 아니라、동네나 친척중의 선배로부터 몇벌 얻어놓으면 집에서건 밖에서건 학교에서건 줄창 그것만 입고 살았더래서 지금도 그 목이 닳고 빛깔이 새까만 교복만 보면 몸서리가 쳐진다는 그의 말에 수지는 뭐랬더라?

『어머머、자기 그 흔한 잠바조가리에 골덴바지도 한번 못입어봤어? 상처받았구나。가엾어라。내가 이제부터라도 그 교복에 소년들의 가장 아름다운 복장으로 사랑하겠노라고 맹서할테니 자기 상처씻어』

그 말 한마디에 교복으로 일관한 어두운 소년 시절이 동화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날수도 있었다。

수지와 연애하고부터는 이렇게 그의 앞날뿐 아니라 지난 날까지가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었다。앞날이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무지개일수 있었던 것처럼 지난날은 수지가 한번도 실제로 만져보지못한 거여서 자유자재로 무지개를 만들수가 있었다。

流星의 賦 <363>

李炳注 作 李友範 畵

고독한 英雄 ⑱

임금과 세자 사이에 한바탕 수탄장(愁嘆場)이 있었다。

임금이 세자에게 말했다。

『나라의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다시 더 말이 없구나。우리 부자가 한 곳에 같이 간다면 만일에 무슨 일을 당했을 경우、남쪽과 북쪽이 다 어지럽게 된다。나는 상국에 가서 호소할 작정이다。세자는 묘사주를 받들고 급히 강계등지로 내려가 회복을 도모함이 옳을 것이니라』

세자는 답을 못하고 통곡했다。주위의 신하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15일 왕은 묘사주에 하직하며 세자를 모시고있는 관속들에게 일렀다。

『나라 일은 세자의 몸 하나에 달려 있으니 경들은 합심륙력하여 세자를 잘 보좌하여 재거를 도모하라』

세자의 보덕(輔德)으로 있던 조정(趙挺)이 임금을 따라 박천까지 왔다가 다시 세자 처소로 돌아 가는데 임금이 세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다음과 같이 처참한 문장이다。

『나는 살아서 망국(亡國)의 임금이었는데 이제 죽어서 이역의 혼이 되려고하니 부자가 서로 헤어져 다시만나볼 기약조차 없도다。다만 바라노니 세자는 구물(舊物)을 재조(再造)하여 위로는 조종의 영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부모의 돌아옴을 맞이하라。붓을 드니 눈물이 앞을 가리어 말할 바를 모르노라』

17일、임금은 국사를 세자에게 맡길 뜻을 밝혔고 18일엔 정주로 떠나 곽산에서 유성룡에게 요동으로 가서 명나라에 내부(內附=亡命)할 뜻을 밝혔다。임금은 15일 이미 명나라에 내부할 뜻을 관전보(寬奠堡)에 있는 명나라 부총병 동양정(副總兵 佟養正)에게

「궁빈(宮嬪)을 이끌고 상국에 내부코자」한다고 전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동양정은 요동 순무어사(遼東 巡撫御史) 하걸(郝杰)에게

『조선국왕이 패하여 나라를 버리고 무리를 거느린 다음 요동으로 들어오고자 하는데 어떻게 처치하리까』

하고 품신했다。

하걸은 이것을 본국정부에 전했다。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兵部尙書 石星)은 황제(皇帝)에게 아뢨다。

『조선국왕이 과연 병력이 부족하여 내부를 청해온 것인지 의심이 되오니 요동진에서 적당한 사람을 보내어 살펴 볼 필요가 있읍니다。만일 조선왕이 조선을 떠나 이리로 와버리면 영영 조선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험악한 지형을 고수하여 왜적에게 항거하고 있으면 곧 응원병을 보낼 것이란 뜻을 전하도록 합니다。만일 조선이 끝내 위태로와 도망쳐 온다고 하면 인정상 이를 거부할 순 없는 것이니 칙명을 내려 용납하시길 바라오나、인원수는 1백명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석성의 상주가 있자 신종황제(神宗皇帝)의 칙령이 내려졌다。요지는—。

『왜적이 조선을 함몰하여 국왕이 도피하고 있다니측은하도다。원병을 곧 보낼 것이니、사람을 시켜 그 나라 대신을 선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충호국(盡忠護國)토록 하고、각처에 흩어져 있는 병마를 독집하여 성지를 고수하고 끝까지 항쟁토록 하여、앉아서 나라의 상망(喪亡)을 보지 말도록 하라…』

韓牛값 계속오름勢

頭當 百33萬7천원

韓牛값이 농가出荷부진으로 계속 오르고있다。금년들어 이미 마리당 평균 6만4천원이 올랐고 덩달아 송아지 시세도 연초보다 한마리에 11만원가까이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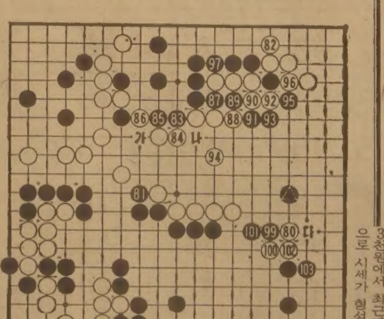
20일畜協조사에 따르면 産地韓牛값이 지난1월 평균 4백kg기준 한마리 1백27만3천6백원에서 2월에는 1백28만4백원、3월들어서는 1백30만6천원、이달초에는 1백33만7천2백원으로 계속 오르고있다。

이에따라 도매시장 경락가격당 지육kg당 1월중 평균 5천85원이 이달초들어 5천2백86원으로 뛰었다。

또 암송아지 시세도 덩달아올라 1월중 한마리 45만3천원에서 최근에는 55만원으로 시세가 형성되고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7局 第5譜 81～103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徐能旭〈1勝3敗〉

黑(6段)姜哲民〈0勝5敗〉

언제나 그렇지만 姜6단이 능기의 대세력으로 판을압도하다가 적의 침입(내지승부수)을 맞아햇을때의 전투력은 통렬한것이 있다。그래서 姜6단은 한사코 같은전법을 되풀이 구사한단 말일까。좌우간 본보서부터 白은 가위일寒이다。

白80의 승부수를 일단외면하고 숨을돌리려는 黑81은 물론 응수타진수。

곁에서 보기에는 좀 한가한듯 했는데『이제 白이80을 움직이면 어떻게 하나?』며 지켜보았더니 천만뜻밖에도 徐6단은 과연 이에대답을 안했다。

우상귀에 白82이수는 염치없어도 다음白97이면 黑2점을 잡고 상변黑전체마저 위험하게되니 끝내기를 겸한 선수。또보면 마치 黑81에 대해 한번 물어댄 것과도같다。

한데 실상 이순간 白으로서는 승리를 포기하는 결과로 직결되었다。黑83、85를 선수하고 87이하97까지、그야말로 신나는 회돌이수를 연발하여 상변黑은 선수로 완성해버렸다。

姜6단은 大滿悅。黑의승리는 결정된 꼴이다。

黑、신나는 장면

이과정에서 黑91、93이 절묘。白은「가」와「나」로 끊기는 수가생겼으나 白94의 보강이 부득이하다。따라서 黑95、97의 회돌이수 자체만으로도 통쾌하기 이를바없는데 하물며 대세가거의결정되었으니 더할말도없다。

결과적으로 헛수가된 白82는 잠자코「다」자리에 늘어두었어야 그것으로◆표를 제압하여 白의 낙승이었던것이다。

徐6단은 黑99의 충격을 당하자절망상태에서 반격을 피하기시작한다。

98…이음。【一凡】

공 고

88년 서울올림픽후원회 집행부 임원, 운영위원및 자문위원이 아래 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①집 행 부

회 장 : 함의현
사무총장 : 이 갑
조직부장 : 최이락
섭외부장 : 박대현
재무부장 : 김영철
부 회 장 : 김희수· 이영현
기획실장 : 권병현
대 한국부장 : 장추신
홍보부장 : 송관현
사업부장 : 김무웅

②운영위원

박인순 조한철 최동주 김만구 이상구
장순채 조영호 원장호 원영신-김 효
이병권 황대연 박주삼 이형인 차선겸
이창복 조기연 천용기 (무순)

③고 문 : 이규현 대사

④자문위원

이상훈 이상호 안병원 김문량 강신봉
고종옥 이근우 최승낙 전택균 한상훈
이준식 (무순)

1982년 4월21일

재 캐나다 88년서울올림픽후원회 회장 함 의 현

地球村형편 어떻습니까 <2>

한국일보 특집판

日 군사평론가의「假想 세계3차大戰」

84년4월7일 蘇, 호르무즈海峽봉쇄 發端

1984년4월7일 밤11시5분전。NHK 외신부의 텔렉스가 요란한 벨소리를 울리면서 어전트·뉴스를 예고해왔다。

『오만=하시모또(橋本)특파원발=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리베리아 船籍의 탱커·바렌타이호가 7일 상오5시10분께 폭발, 검은연기를 뿜고 있으며 상오 5시35분, 소련機로 보이는 VG 폭격기 백파이어(3機)가 超저공으로 해협에 진입, 기뢰같은 원통형의 물체를 무수히 던지고 사라졌다』

외신부 당번인 기따무라(北村)기자는 텔렉스를 읽자마자 황급히 찢어 데스크에 뛰어갔다。

『큰일 났읍니다。소련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 하려는것 같습니다』기따무라 기자는 헐레벌떡 보고하면서 다까야마(高山)데스크에게 텔렉스를 건네줬다。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온다。서방측 군사소식통은『백파이어가 투하한물체가 沈武자기기뢰로서 약30발쯤되며, 소련의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간주된다』고 논평했다。

AP·UPI는 앞을다투어 긴박한 中東사태를 전했다。

『소련은 호르무즈해협을 폐쇄한뒤 타스통신을통해 북위20도이북, 동경55도~57도사이의 수역에 기뢰밭을 만들었다』고 확인했음을 밝혔다。

이렇듯, 中東戰이 확대되기 이전에 1983년4월1일 소련은, 日本에게 소련근해의 어업을 금지하는 한통의 서한을 보냈다。

『귀국은 소련을 가상적국으로한 美國의 림팩합동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므로 北海道연안 12마일 오호츠크海 어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9개월만에 끝난「人類최후의날」

美·蘇, 核彈頭 동시발사로 공중폭발

蘇, 만주·韓半島거쳐 日侵攻
美, 對蘇 기아작전으로 應手
西方, 中東에 派兵 석유확보
日, 마침내 對馬島해협 봉쇄

83년 5월8일에는 사우디에서 소련KGB의 조종에따라 루사이만 장군이 이끄는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5월16일에는 이란의 지도자 호메이니옹이 습격을받아 암살됐다。

호메이니의 암살에 자극된 소련은 카스피海의 이란국경에 송18개 사단의 병력을 집결시켰다。

미 대통령은 이같은 사태발전에 따라 국무·국방관계장관과 안보회의를 긴급소집, 정세를 분석했다。

소련은 공산진영의 석유부족을 보충하고 자유세계의석유공급을 단절시키기위해 中東산유국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시도했다。

소련군의 중동집결로 NATO와 극동의 최전선배치전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EC제국과 일본이 생존할수있는 최소한의 석유를 OPEC에서 공급시키고 중동에 상당수의 병력을 파견, 소련을 견제키로 했다。

南예멘군은 쿠바의 [illegible]으로 紅海연안을 北上, 12개여단 2만3천명의 병력과 2백80대의 전차를 몰고 진군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선 소련수송기 60대가 병기와 탄약을 수송했다。또한 북부전선에선 이라크와 시리아軍이 3개 기갑사단및 1천대의 전차를 이끌고 남하했다。

84년 4월10일, 미국은 드디어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호르무즈 해협에 출항시켜 소련이 살포한 기뢰를 제거했는데 소련은 4월12일 호르무즈 해협에 백파이어 6대를 다시 출동시켜 기뢰를 다시 투하했다。

이때 아프리카 사막에서의 전투는 一進一退하여 정체상태에 빠지고있었고 소련의호르무즈해협 봉쇄작전으로 자유진영은 심리적으로 좌절상태에 빠진다。

4월20일, 아프가니스탄은 소련의 지휘밑에 40만의병력으로 파키스탄을 침입, 파죽지세로 점령했고 파키스탄의 패잔병은 산악에 숨어들었다。장기게릴라전으로 들어간것이다。

美의 NMCC(軍事指揮中樞)는 전황을 분석, 긴급전개軍을 중동에 파견키로결정했다。

이란의 사우디공격과 아프가니스탄의 파키스탄 침공에 발맞춰, 지중해연안에는 드디어 5차 中東전쟁이 터졌다。이제 사막의 불꽃은 전이슬람圈으로 번진것이다。

5월에 들어서면서 전쟁은 극동으로 번졌다。

5월3일 밤, 베트남은 중공의 雲南省에 침입, 中越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소련은 재빨리 캄란灣과 다낭등 인도洋을 제압했으며 미사일순양함등 4척과 구축함13척, T62전차를 만재한 揚陸艦을 캄란만에 남하시키기시작했다。

소련은 계속해서 5월5일 중소국경지대를 무대로 정찰기를 띄우고 견제전쟁을 일으키려했으며 베트남은 중공의 人海전술에 밀려 하노이와 하이퐁을 포기하고 난찬으로 수도를 옮겼다。

中蘇국경은 一觸卽發의 위협속에 병력 56개사단, 항공기 2천6백대가 집결했다。

6월7일, 소련은 극동군50개사단을 만주지역에 투입, 한반도를 점령한데이어 여세를 몰아 일본을 침공하려했다。

소련은 볼라디보스토크주변에 1백만톤의 수송선을준비, 한반도의 인원을 동원, 對日代理전쟁을 계획한것이다。미국은 소련이 滿洲와 한반도를 점거하는데 자극되어, 84년6월9일, 對蘇飢餓作戰을 세우기에 이른다。

이작전에 따라 소련의곡류저장탱크 3백45개소를 파괴소각했으며 우크라이나등 소련의 곡창지대에 枯葉劑를살포, 말라죽게 한것이다。

한편 소련은 일본이 중공의 병참기지가 되지못하도록 해상수송망을 차단하는 한편 중공업지대를 폭격했다。

6월11일, 일본은 참다못해 首相관저 지하실에설치된 지휘소에서 국가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소야(宗谷) 쓰가루(津輕) 對馬島해협의 봉쇄를 결정했다。

일본海의 봉쇄는 소련의극동군함대에 큰 타격을줬다。

8월들어 歐洲와 中東戰에서 NATO군이 불리해지자 미국은 스윙전략에따라 제7함대를 유럽에 취역시킨다。太平洋의 守護神처럼 돼있던 제7함대의 大西洋진출은 극동해역에 공백을 가져왔으며 일본은 외로운 對蘇항전을 계속해야 했다。

소련은 12월들어 끝없는소모전으로서는 결말이 나지않을것으로 판단, 결국 전략核을사용, 일거에 미국등자유진영을괴멸시킬것을결정했다。

SS20등 전략핵탄두 8천8백22기 7천8백78메거톤이 일제히 서방진영을 향해 수직 발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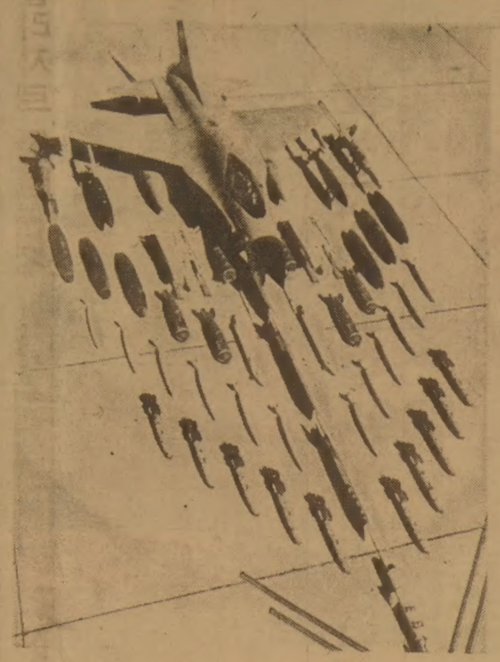
그러나 소련의 가스분사를 적외선센서에의해 감지한 美위성은 곧『소련ICBM 다수발사』를 알려왔고 이에따라 정보취득시자동발사 방침에 따라 미국의 1만2백50기에이르는 대륙간탄도탄이 일제히 발사되어 지구위 1천km의 우주공간에서 미소의 핵탄두가서로엇갈려 거의 동시에지구상에서폭발했다。

인류최후의 날이 온것이다。

「安保無賃」승차 속에 번영을 누려오던 일본은 소련의 극동군사력증강과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평화의잠에서 깨어날수 있게됐다。

특히 장거리폭격기 백파이어와 SS20의극동배치는 북방영토의 군사기지화와함께 일본국민에게 위기감을 고조시켜줬다。이런 상황속에서 일본陸士를 졸업한 군사전문가 이와노·마사다까(岩野正隆·71)예비역소장은「第3次世界大戰」(일본해를 봉쇄하라)이란 책을 펴내 일약 베스트셀러로 선풍을 일으키고있다。지난해 가을에 출간된 이책은 이미 10만부가 팔렸으며, 保守右傾化의 일본정계에 번지고있는 평화헌법 개정론에 불을 붙여주고있다。다음은 이책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東京=宋孝彬특파원】



◇9가지 爆彈을 적재하는 F16機　나토군 주력기로 돼있는 F16전폭기。20mm발칸포탄을 비롯, 9가지폭탄을 적재, 미래의 전쟁에 제일먼저 출동하게된다。

강대국 武器판매 紛爭의 惡循環만

장사속으로 탈바꿈한 최대의外交手段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야당인 社會黨당수이던 지난78년 佛社會黨은 프랑스의 무기판매정책을 격렬히 비난하는 가운데 식민주의, 인종주의, 독재주의정권에대한 무기판매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미테랑당수는또 무기를 약소국에만 팔지말고 西方유럽국가에 파는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숭고한 인도주의적인 주장은 그러나 대통령당선과함께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다。그가 대통령자격으로 내린 첫번째 결정가운데 하나가 대부분이 약소국과 맺은 기존의 모든 무기판매계약을 준수한다는 것이었다。

페灣·中東이 黃金市場

대통령당선직후 그는 그의 아우이자 퇴역공군장성인 자크·미테랑을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 佛·사우디간의 40억달러무기판매계약은 손대지 않을것이라고 할리드왕을 안심시켰다。

지구상에서 분쟁이 그칠날이없는 까닭이 무엇인가를한 마디로 말해주는 사건이다。

강대국들은 무기를 정치적, 지역안보적, 경제적인 이유로 대주고있다。

그러나 60년대이후의 분쟁에서는 경제적인 댓가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무기판매는 엄청난 이윤이 보장되는 군침당기는 장사다。강대국은 약소국들로 하여금 그들의 무기체제를 갖추게 함으로써 완제품으로부터 부품에 이르는 무기체제를계속적으로 강대국에 의존토록하고있다。

무기체제측면에서 약소국을 예속화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이라 할수있다。

강대국의 무기공급은 무기의 확산을 가져와 이제 분쟁당사국도 웬만한 무기의 자체생산이 가능해졌다。이것이 분쟁해결을 어렵게하는또하나의 원인이다。

무기판매는 파는측으로서는 최대의 외교수단이 되어왔다。형식적인 동맹관계나 군사주둔 내정간섭위협등 재래식 외교수단은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80년 2백억弗어치 팔아

美45 蘇27 佛10 英5% 시장占有
越南戰爭때부터 開途國에도 공급

최근10년사이 세계의 무기거래량은 배이상 늘었다。69년에 94억달러였던 무기판매대금이 80년에 2백억달러를 기록했다。미국은 이중 최대무기 공급국으로 70년 11억달러였던 미국의 무기판매대금은 지난해 1백60억달러로 약15배가 뛰었다。

70년대중 무기시장의 강대국별 점유비율을 보면 미국이45%, 소련27·5%, 프랑스10%, 영국5%로 이들 4개국이 87·5%라는 절대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이같이 무기거래량이 급격한 증가추세외에 고성능 무기의 판매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요즘은 미국의 공중경보통제기(AWACS)를 비롯 F15 F16전투기, 소련의 미그23전투기등 최신예장비들이 공급되고 있다。60년대 중반까지만도 무기유통은 강대국과 선진동맹국사이에 이루어 졌다。개도국에 공급되기 시작한것은 월남전때부터이며 월남전종전후 이런 추세는 확대일로를 걷고있다。

70년대후반에는 페르시아만과 中東에 집중공급됐다。80년중에는제3세계공급무기의절반이이지역으로흘렀다。

현재24개개도국들이어떤형태이든무기를생산하고있다。

선진국 경제가 겪고있는심각한경제위기는무기판매전을가열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세계 3위의 무기판매국인 프랑스는 장사목적을 앞세우는 나라의 표본으로 꼽힌다。프랑스는 연간 무기생산량의 40%를 대외판매하고있다。

레이건행정부는 출범 9개월만에 5대의 AWACS를 포함한 85억달러의 사상최대규모의 무기판매계약을 사우디와 체결했고, 파키스탄 베네수엘라에 F16전투기판매추진을비롯, 아르헨티나 칠레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臺灣등 세계도처에서 무기판매에 열을 올리고있다。【林鍾乾기자】

한국일보 詩壇

봄날 하루를

成權永

어디 산수유꽃이 피었던가
새벽을 지고 오는 숨가쁜 소리
秒針은 봄날로 다가들고 있다。
쯔아의 帝國같은 겨울을 돌아
햇미나리 돋아난 당신 숨결。
요령을 흔드는 물소리
이 흐름도 따라 내려와
당신집 울타리
노오란 개나리도 피어 놓는다。
그 눈부신 술래잡기
下午의 햇살도 돌아나오고。
지금 또 秒針은 돌고
지금 이렇게 溪流는 쉼 없어
나는 하루해를 잃고 있다。
당신도 하루해를 보내고 있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삼복식품만이 자랑하는 품목

⊙일본서 방금 도착한 ●사보로라면 (30개)	$ 17.95	$ 15.95
⊙일제　●덴마이 라면 (30개)	$ 17.95	$ 13.95
⊙햇김 (100장)	$ 15.95	$ 11.95
⊙맛좋은 냉면 (5인분)	$ 2.99	$ 2.09
(2인분)	$ 1.09	$ .79
⊙마른 미역	$ 4.95	$ 1.50
⊙동태전감	$ 1.99	$ .99
⊙삼　치	$ 2.99	$ 1.99
⊙이면수	$ 2.99	$ 1.99
⊙물오징어　특대(特大)	$ 1.99	$ 1.49

그외 산나물, 고비, 고사리, 봄철의 구미를 돋구는 여러가지 밑반찬이 있읍니다.

※성경, 찬송가 책등을 드디어 판매개시

※월간잡지—주부생활, 신동아, 주간여성등이 다량입하.

※흥미있고 새로운 비데오·테잎을 $5에 빌려 드립니다.

이외 쌀을 비롯한 50여가지 Sale품목이 있음.
이상 품목은 매진될 때까지 판매함.

삼 복 식 품　2437 FINCH AVE. W.　743—8270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부실貸出 1,000억~1,400억

특정 大企業에 80%固定化
회전안돼 銀行자금난 加重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긴축정책에 따른 기업의 부실화는 마침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불러왔다. 17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5개시중은행과 외환은행등 6개은행의 부실대출이 최근 크게 늘어 은행마다 1천억내지 1천4백억원의 부실대출을 보유하고있다. 이같은 부실대출액은 은행별 대출잔액의 8~10%에 달하는데다 총대출액의 80%가 특정대기업중심으로 고정화되어있어 자금전이 안되고 업계의 자금난을 악화시키고있다. 특수은행들도 전체대출잔액의 4~5%가 부실대출인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준부족에 허덕이고있는 5개시중은행은 정책금융인 상업어음할인과 중소기업자금대출을 극도로 억제하여 금년들어 이부문에서 7백17억원이나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바람에 중소기업부문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있다.

5개市銀·外銀등 支準부족 3천6백억

관계당국이 집계한 3월말 현재 일반은행대출실적을 보면 ▲朝興銀 1조5천4백34억원 ▲商業銀 1조6천3백6억원 ▲第一銀 1조4천4백5억원 ▲韓一銀 1조7천4백11억원 ▲서울信託銀 1조3천1백47억원 ▲外換銀 1조5백3억원등인데 은행별 부실대출액은 최저 1천억원선서 최고 1천4백10억원에 달한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총대출의 80%가 거액대출을 받은 대기업에 고정화되어 회수가 되지않는 바람에 은행마다 자금사정이 극도로 핍박해져 지난3월말 현재 지준적수부족액은 朝興 8백92억원, 商業 8백89억원, 韓一 1천3백3억원, 서울信託 2백19억원, 外換銀 3백60억원등 第一銀行을 제외한 5개은행이 3천6백63억원의 지준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은행이 지준부족에 허덕이고있기때문에 대출이 거의 중단상태에있는데 금년들어 3월말까지 5개시은과 외환은행의신규대출은 2천6백10억원에 불과하고 상업은행은 그나마 3백31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해버렸다.

특히 일반은행은 지준부족에따른 은행자체의 자금난때문에 정부가 정책금융으로강력히 지원하고있는 상업어음할인이 금년들어 완전중단상태에있는데 지난 3월중에는 조흥은 33억원, 상업은 1백96억원, 제일은 2백53억원, 한일은 84억원등 신용은행을 제외한 4개은행에서 5백5억원이나 회수해가 버렸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늘리라고 독촉하고있지만 5개시중은행은 금년들어 중소기업금융을 4백58억원이나 회수해버림으로써 중소기업부문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행의 부실대출은대손처리및 장기연체등으로 발생한것으로 대손처리가 되어야하나 만일 대손처리를하면 문책대상이 되기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부실대출을 숨기고 있다.

그런데 지난81년말현재 이미 대손처리되어 부외채권으로 떨어낸부실채권만도 조흥 2백12억, 상업88억, 제일3백32억, 한일1백63억, 서울신탁4백8억원등모두1천2백3억원에 달하는데 서울신탁은행과 제일은행이 특히부실채권이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일 부실채권을 대손처리하게되면 시중은행의 자본금을 잠식하게된다.

이같은 부실대출증가현상은 외국은행의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지난81년중 미국의 BOA는 부실대출이 3배가늘어 10억달러, 체이스맨해턴은행은 41%가늘어 9억7백만달러에 이르고있다.

은행별 대출및 지준상황 (3월말 현재·단위억원)

	금융대출잔액	증감(△)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상업어음	합계
조흥	15,434	△92	△106	29	76
상업	16,306	111	△87	△303	△331
제일	14,405	257	△64	5	564
한일	17,411	131	△134	△31	1,340
서울신탁	13,149	254	△67	41	785
외환	10,503	226	—	46	214

◇全대통령이 신임 駐韓나이지리아大使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고있다。

피지등 4개국大使 全대통령에 信任狀

全斗煥대통령은 19일 상오 청와대에서 지오지·코토발라 부駐韓 피지대사(일본常駐)와 발라베·아부바카르·타파와·발레와 駐韓나이지리아(〃)、케바·비란느·시세駐韓세네갈(〃)、페루로·토르스타인손駐韓 아이슬란드 대사(아이슬란드常駐)등 신임대사로부터 차례로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이 자리에는 盧信永외무장관이 배석했다.

베트남、蘇에 30억弗 빚 못갚자
50만명 勞動人力수출

【東京19日=宋孝彬특파원】베트남은 외화부족으로 소련에 부채를 상환할 길이 없어 50만명의 노동자를 모스크바 근방 경공업지대의 노동력으로 수출하고있다고 19일 요미우리신문이 석간 1면톱으로 일본정부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베트남은 캄보디아침공과 중공과의 국경분쟁으로 필요했던 30억달러의 대외차관을 거의 소련에서 얻어왔으며 계속적인 국제경기의 불황과 국내경기의 부진으로 소련의 차관을 갚지못해 노동자를 모스크바남쪽 2백㎞지점 경공업지대의 노동력으로 수출하고있다고 이신문은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미 미국정부도 베트남이 1만명의노동자를 소련에 수출하고있음을 확인했으며 일본정부소식통은 그보다 훨씬 많은 50만명의 노동자가 수출되고 있는것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소련과 베트남은 이노동력의 수출을위해 81년8월 양국의 기술노동자양성협정을 4월에는 노동부처간의 협력협정및 노동력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이신문은 밝혔다.

위커美大使·위컴司令官 本國 召喚 요구
社會宣敎協 釜山放火사건관련 聲明

신·구교 연합선교단체인 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는 19일『미국정부는 대한정책에대한 한국민의 점증하는 불신감을 직시, 위컴 주한미군사령관과 워커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해주기바라며 이들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사과·해명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협의회는 또한『釜山미문화원방화사건은반미감정의 구체적 표현이며 이사건의 의미는 일련의 반미운동의 원인과 배경의 규명에서 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협의회는 최근 물의를빚은 주한美커대사와 UN군 사령관 위컴대장의 발언, 미국쌀 수출업자들의 범죄사비사건, 미국업체인 한국콘트롤데이터社에서의 불법집단 해고사건등 미국실무자들의 한국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경제정책이 반미감정을공개적으로 제기케했다고 주장했다.

이성명은 학생시위에서의 반미구호와 光州 美공보원방화사건, 그리고 최근 교계인사들의 공개적인 미국에대한 비판적발언등은 모두 이와같은원인과 배경에서 연유한것이며 釜山美문화원방화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성명은 또 미국민과같은 우수한 민족만이 민주주의를 누릴수있다는 미국의 대한정책실무자들의 오만한 태도와 1인당 국민소득이 연1만달러를넘는 미국민을 위해 1인당 국민소득이 10분의1밖에안되는 한국농민이 희생돼야한다는 경제관계가 시정되지않는한 양국간의 진정한호혜평등의 우정관계가 지속되기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협의회는 또 최소한의국민적화해를 위해 다음과같은 사항을요구했다.

협의회는▲美문화원 방화사건의 공개재판과 사실그대로의 전모발표 ▲정부당국의 매스컴을통한 천주교회와 가톨릭농민회、도시산업선교회및 대학가에대한 왜곡비방·편견의 태도및 일방적보도의 공개사과▲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자세지양▲국민화합을위한 정치범의석방·사면·복권과 정치적이유로 수배된사람의 수배해제、그동안 희생된 노동자·농민·교수·학생·언론인의 원상회복 ▲미국정부는 대한정책에대한 한국민의 점증하는 불신감을 직시, 위컴주한미군사령관과 워커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이들의 발언을 공개적으로사과·해명하고 앞으로 미국의 이익을위해 한국민에게 경제적불이익을 강요하지 말것등 6개항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서명한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회원42명은 다음과 같다.

池學淳 朴炯圭 孔德貴 郭東哲 金敬洛 金末龍 金秉相 金成鏞 金昭暎 金영신 金容福 金偶英 金燦國 朴弘 徐南同 楊弘 吳忠一 李國善 李在禎 李鍾昌 趙南基 趙承赫 趙容述 金勝勳 趙之松 趙花順 成世雄 權浩環 李昌福 裵宗烈 安光洙 李길재 金東完 李海學 印명진 鄭相福 정양숙 정인숙 鄭鎭東 재정구 許병섭 權鎭琯

"反美감정부채질 해서야 放火사건 오히려 正當化"
各界반응

의심스런 反美행동

▲金東里씨(예술원장·소설가)=釜山방화사건이 겨우 잊혀지려고할때 이같은성명이 나온것은 도저히 이해할수없다.

한국의 공산화를 저지하려는 사람들은 미국의 한국지원의 의미를 알고 있다.우리나라에서 反美감정을가진 부류가 있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매우 의문스럽다.

宗敎人 政治的안돼

▲沈勳鍾변호사(서울통합소속)=종교인들이 정부의 공권력행사를 둘러싸고 이같이 정치적으로 나오는것은 이해할수가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성직자가 범법행위를했다면 당연히 실정법으로 처벌받아야하며 범법행위를 하지않았다면 재판과정에서 사실이밝혀지기를 기다리는것이 당연한 순서일것이다.

성직자라고해서 예외일수없다는것은 실정법이 존재하는한 받아들여져야 할 일이다.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종교인들은 정치적발언이나 시위보다는 종교인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국가는 국가대로 崔신부등이 자수를 권유한점등을 최대감안하는 중간선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放火 옹호해서야

▲柳璡然씨(中小企協中央회장)=韓·美수교 1백주년을 맞아 어느때보다 양국의 우의를 다져야할때 국민의정신을 계도하는 입장에 있는 일부 종교단체가 反美감정을 고취하고 釜山美文化院방화사건을 옹호한듯한 행위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안정을 원하고있다는것을 모두가 깨닫아야할 것이며 自重하기를 빌 뿐이다.

敎會단체 성명무리

▲徐京保스님(一鵬禪院이사장)=우리나라사람들에게서 反美감정은 전연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교회단체에서 이런 성명을 낸것은 무리한 일인것 같다.

넓은視野로 봐야

▲沈相宇의원(民正)=성직자들이 선교활동내지는 일부국민의 권익보호란는 명분을 내세워 전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사고의 장애를 일으키게 한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한가정의 주부가 여성의 입장만을 내세울경우 남편과 갈등을 일으켜 가정파화가 나듯이 엄마의 입장에서 가족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南北이 대치한 특수상황이란점을 감안, 종교단체에서 성직자의 입장만을 생각할것이아니라 보다 넓은 시야에서 국가를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

外交문제 간섭이다

▲李聖秀의원(국민) 최근의 쌀수출문제와 부패연어통조림수출기도문제때문에 국민들의 對美감정이 다소악화된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하여 釜山美문화원방화사건과관련, 종교단체에서 특정인의 소환을요구하는것은 종교활동의 영역을벗어나 정치와 외교문제에까지 간섭하는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폭력은 용납안돼

▲白燦基의원(議政)=분명한것은 放火와같은 폭력을 통한 표현방법이 민주사회에서는 용납될수 없다는 점이다. 어느나라건 한나라의 주권이 존중돼야 한다는것은 국제관례이며 社會선교협의회의 성명은 지나친감이있다.

위컴司令官 「문제發言」부인
주한美軍사령부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대변인실은『위컴사령관이 문제발언을 했다는보도는 사실과 전혀다르다』고 밝혔다.

◇알렉산더·헤이그 美國務장관㊧이 17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니카노르·코스타·멘데스 아르헨티나外相㊨및 호세·미레트준장㊥과 포즈를 취하고있다。헤이그장관은 이날 포클랜드분쟁해결을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아르헨티나지도자들과 회담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17日AP聯=聯】

헤이그 往復外交 진전없어
各軍將星들 소속部隊 복귀

【부에노스아이레스 19日AP聯=聯】포클랜드분쟁해결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중인 헤이그美국무장관은 19일 멘데스외상과 11시간에걸친 마라톤회의를 가졌으나 아무런 진전을 보지못한채 이날하오 2시(한국시간) 회담을 중단했다.

한대변인은 이날 회담이끝난후『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밝히고 회담은 계속될것이라고 말했는데 헤이그가 얼마나 더 아르헨티나에 머무를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19日AP聯】아르헨티나의 각군 장성들은 18일 포클랜드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무력충돌이 피할수없는것으로 판단, 서둘러 각군사령부로 복귀했다고 레오포드·갈티에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측근소식통이 밝혔다.

20일 國會건설위

국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建設委를 열고 계류중인 水道法개정안,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등 2개법안과 6개請願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民韓黨이 안건처리에 앞서 서울시관계자를 불러 지하철공사장붕괴사고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을것을 주장하여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잡지못하고 있다.

民正、敬老대회개최
來7일 5천명초청 어린이大公園서

民正黨은 敬老사상을 고취시키기위해 오는5월7일 어린이대공원에서 5천여명의 노인을 초청하여 民正敬老大會를 가질 예정이다.

李鍾贊 대변인은 19일『이 敬老大會는 서울市출신의원들이 주관하여 白日場과時調·講頌唱大會등의 행사를 갖고 孝子孝婦에 대해서는 표창할 계획』이라면서『敬老優待制가 인식부족으로 푸대접을받고있는 현재 民正黨은 의식개혁차원에서 敬老대회를 갖게된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東南亞 사절단 比·버마방문차出國

국회東南亞친선사절단의 鄭元民(단장)朴鉉兌 安甲濬(이상民正) 徐淸源(民韓) 李圭正의원(議政)등은 필리핀과 버마를 친선방문키위해 19일 하오4시50분 KAL편으로 出國했다.

民韓黨 創黨후 첫연수훈련

民韓黨은 20일부터 創黨후 처음으로 당원硏修훈련을 2박3일간 실시한다. 이번훈련에는 각지구당조직부장86명과 중앙당사무국의 部·次長등 1백20여명이 참여한다.

임시國會26일召集
부시演說청취、하루만 열기로

국회는 오는26일 訪韓하는 조지·부시 美부통령의 연설을 듣기위해 26일 하룻동안 제111회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李鍾贊民正·林鍾基民韓總務와 金燕洙국민당부총무는 19일낮 가진 총무회담에서 오는 26일하오 1시30분 제111회 임시국회 開會式을 거행하고 이어 2시부터 본회의에서 부시부통령의연설을듣기로 한편 제112회 임시국회는 오는 5월末이나 6월초 사이에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社會漫評

낮은初夏…밤은初冬…

地平線

금값과 기름값은『이웃사촌』사이라고 할수있다. 기름값이 뛰면 기름부자들이 금을 사모으지만, 기름값이 떨어지면 그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덕분에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세계의 노다지꾼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곤경에 몰려있다. 80년도만해도 28억랜드(33억6천만달러)의 흑자를 올렸던국제수지가 작년엔 거꾸로 40억랜드(48억달러)의 적자로 바뀌었다.

▼금값이 1온스에 4백50달러로 올라야만 남아공화국의 올해 국제수지적자가 20억랜드(24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한다. 그러나 지난번 포클랜드 사태가 터져서 금값이 뛰었지만 겨우 3백37달러였다. 그래도 금으로 먹고사는 남아공화국은 기름을 팔아야되는 기름부자에다 대면 낫다. 모든 수입루트를 중단한 나이지리아가 그 표적인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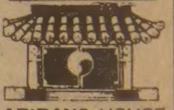
▼따지고보면 기름부자 가운데도 더어려운 나라가 있다. 이란과 싸우고있는 이라크다. 이라크는 엄청난 전쟁비용을 대기위해 지난1년동안 자그마치 2백20억달러라는 엄청난 빚을 얻어 썼다. 올해안에 또 1백억내지 1백50억달러의 빚을 얻어야될것으로 짐작되고있다. 1천4백만 인구에다 기름진 땅을 갖고있어 아랍의 맹주가 될 꿈에 젖었던 때와 판이한 형편이다.

▼전쟁은 그러니까 돈싸움이라고도 할수있다. 포클랜드라는 섬을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싸움도 마찬가지다. 특히 3백여달러가 넘는 빚을 짊어지고있는 아르헨티나에게 이 전쟁은 오래 끌수록 상당한 짐이 될것이다. 작년에 1백30내지 1백60%로 짐작되는 인플레를 기록한 아르헨티나는 올해엔 2백%가까운 인플레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는 쪽도있다.

▼포클랜드전쟁은 올해에 1.4%라는 모처럼의 경제성장을 내다보고 있는 영국에게도 타격을 줄것이다. 약40척의 기동함대가 쓰는 돈은 한달에 약5천3백만달러(3백83억2천만원)나 된다고한다. 기동함대를 편성하는데에 든 돈만도 1억5천내지 2억파운드(2천억 내지 2천5백30억원)쯤 됐을것이라고 스피드前해군상이 추산했었다.

▼영국의 기동함대가 현장에 닿을때까지 협상이 되지않는다면 양쪽의 부담은 더 커질것이다. 영국은 섬을 포위해서 아르헨티나군이 제물에 손을 들고 나오게 할 작전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치더라도 공중에서 한판 싸움이 벌어질것이라고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눈보라 치는 겨울이 다가서고있는 이지역에서 싸움을 오래 이끈다면 양쪽 모두 견디기 어려운 짐을 지는 형편이될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하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강재철목사 취임및
창립7주년 기념예배

◇강재철 목사 약력
1964년 : 장로교신학대학 졸업
1968년 : 숭전대학 철학과 졸업
1977년 :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국제신학 석사
1981년 : 로스안젤레스 홀로신학 이수 (박사과정)
1966년 : 서울 마석장로교회 전도사시무
1968년 : 서울노회 연합회로부터 목사안수
1973년 해방장로교회 부목사시무
1978년 : 서울 동신장로교회 부목사시무

일 시 : 1982년5월9일(일) 오후3시30분
장 소 : Greenland Rd. Donmills, Ont. (돈밀 × 로렌스)

◎예배후 만찬이 있겠으며, 오후7시부터 본교회 성가대가 마련한 음악회가 있음.

토론토한인선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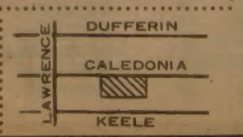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Apr. 19 - May 3

Tootsie Taffy	24x30c	$ 4.79
Pop eye and Big League Chewing Gum	12x59c	$ 4.59
Fun dip 48x15c		$ 4.70
Hershey Big Block Choco Bar	36x55c	$12.25
Allen 101 Kiddy Pop	2/5c	$ 1.19
Wilson Pop	24x10oz.	$ 5.39
FBI Pure Apple Juice	24x15oz.	$ 7.99
Fiesta Fruit Jellies	300g	$ 1.56
Y & S red & Black twizzler	70x5c	$ 1.85

Victoria day에 필요한 Fire Worker를 다량입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40% Off, Cash & Carry는 Additional 7% Off)으로 봉사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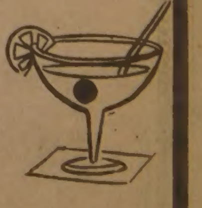
May16(일)8:00a.m.-2p.m. May22(토)8:00a.m.-1p.m.
May23(일)8:00a.m.-2p.m. May(Victoria day)8:00a.m.-3p.m.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신장개업
동창, 단체회의, 계모임
이라고요?
당연히 크링톤 하우스지요.

ㅇ회의실(20명~100명)
ㅇ댄스룸(디스크·재키)
ㅇ게임룸
ㅇ식당(스낵바, 주문에 따라 간소한 한식도 써비스함)
ㅇTAVERN



크링톤 하우스
693 BLOOR ST. WEST
크리스티·지하철 앞
☎535-9541 김 영 규 배

頂上회담 時日·장소싸고
美·蘇 계속 맞서

蘇 "10월에 中立國서 열자"
美 6월 뉴욕개최를 희망

【워싱턴17日AFP=聯合】레이건美행정부는 17일 오는 10월 美蘇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레오니드·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서기장의 제의를 신중히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브레즈네프서기장의 제의를 매우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그러나이성명은 레이건 대통령이 여전히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오는6월 유엔군축회의에 참석, 자신과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브레즈네프는 관영 타스통신을 통해 보도된 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와의 회견에서 오는10월께 중립국에서 美蘇정상회담을 열것을 제의했었다。

레이건대통령은 앞서 한기자회견을통해 자신과 브레즈네프가 오는 6월 뉴욕 유엔군축회의에서 회동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었는데 브레즈네프는 이날보도된 프라우다紙와의 회견에서 초강대국정상회담이 다른회의에 부수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레이건대통령의 6월 정상회담 제의를 거부했다。

◇5歲꼬마 사진작가

작세계에서 가장 나이어린 직업사진가 로버트·윌리엄즈 3세。올해 5세인 윌리엄즈君은 최근 라스베이가스에서 작품전을성공리에 마쳐 일약 저명사진작가로 데뷔했다。윌리엄즈君의작품은 TV쇼의 화제가되고 있으며 미국전역에 배포되는 잡지들에 실리고 있다。이 꼬마작가는 이미 2살때 카메라로 아버지의 스냅사진을 멋있게찍어 소질을 인정받았으며 3년동안 수천장의 사진작품을 찍으면서 실력을 연마했다는 것。 【벨우드 (美노드캐롤라이나) =AP】

美에 대규모 反核戰운동
1주간 6백50개 지역서

【워싱턴·뉴욕18日UPI=聯合】수많은 美核전쟁반대론자들이 18일 美전역에서 핵전쟁의가공할만한 결과에 대해 전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위한 1주일간의 反核戰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反核戰운동지도자들은 이른바「그라운드 제로(地上原点)주간」을 설정, 이주간동안 군중집회 토론회 연주회 보도및 자전거시위등을 통해 전국적인 反核戰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주최측인 「그라운드제로그룹」은 전국 6백50개 지역에서 총2천만여명이 이 반핵전운동에 참가할것이라고 말하고 집회장소는 전국의 각공원, 교회,학교및 공회당이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은 核무기의 실지 또는 계획상의 투하 중심 표적을 의미하는 군사용어이다。

臺灣교수 中共망명

【北京19日AP=聯合】臺灣대학의 교수 1명이 미국을경유, 중공으로 망명해왔다고 중공관영 新華社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臺灣도서관장겸臺灣대학의 교수인 펜수칸이 19일 北京에 도착, 中共黨의 통일전선공작부관리들과 친우들로부터 환영을받았다고 전했다。

拘束女性 석방하라
波주교, 當局에촉구

【바르샤바18日AFP=聯合】폴란드의 요제프·글렘프 대주교는 18일 폴란드 계엄당국에 대해 현재 구속중이거나 수감돼있는 모든 여성들을 5월이전에 석방해주도록 촉구했다。

글렘프 대주교는 이날 바르샤바市 聖안나 성당밖에서 약3만여명의 신도들이 모인가운데 열린 성모마리아 축복외강론에서 폴란드軍당국이 『성모 마리아의 달』인 오는 5월이 되기전에 모든 여성수감자들을 석방하라고 호소, 신도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현재 폴란드에는 지난해12월의 계엄령 선포이후 여자 2백여명을 포함, 총3천명가량이 수용소등에 수감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이撤收 예정대로"
美특사 21일「이」閣議서 최종決定

【예루살렘·카이로18日UPI·聯合】이스라엘의 시나이반도 철수를 매듭짓기 위해 왕복외교를 벌이고있는 월터·스토셀美국무차관은 18일 이스라엘의 시나이 철수계획은 예정대로 이행될 것이며 이에따른 모든 미해결의 문제들은 조만간 해결될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일간의 카이로방문을 마친 스토셀차관은 오는25일의 이스라엘철수시한을 1주일앞둔 이날 이집트측 반응을 휴대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카이로의 이집트와 미국관리들은 이번 스토셀차관의 카이로방문결과로 이스라엘이 오는25일의 시나이반도철수계획을예정대로이행할것임이 확실시되고있다고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정부대변인은 시나이반도철수에관한 최종결정이오는21일특별각의에서나오게될것이라고말했다。

메아리
YWCA 回甲

여자의 나이가 30세를 넘으면 눈먼새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이같은 속담은 오직 육신의 젊음이 지닌 아름다움만으로 여성을 평가하려는 그릇된 사고방식의 소산일 것이다。

중국의 성현도 사람은 50에 천명을 알게되고 60의 고개를 넘어야 그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일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원숙한 경지에 이른다고 했다。

사람의 사람 다움이란 남녀를 가릴나위없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적인 축적과 경험의 총량이 늘어서 사리를 가리는데 무리가 없게되고 이른바 경륜을 지니게 되므로 혈기방장했던 젊은 날 보다 많은 존경을 받게 되는데 있다고할것이다。

그런뜻에서 오늘20일 회갑을 맞게되는 YWCA는 자연인의 연치로 치면 할머니가 된것이 분명하나 실상인즉 90만회원을지닌 우리나라 굴지의 여성단체요,또 여성운동에 앞장서서 아직 발랄한 젊음에 넘쳐있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YWCA가 창설된 1920년대는 3·1운동의 좌절로 직접적인 저항대신 민족계몽사업에 눈을 돌리던 시기였다。

『믿음과 희망、그리고 지역사회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출발했던 YWCA운동은 여성들의 애국운동과 금주·금연·국산품장려·공창및 조혼제도폐지같은 사회운동을 함께전개했다。

창립40주년을 맞던 50년대에는 사회운동체로서 여성지위향상과 성인교육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였다。60년대에는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근로여성이나 농·어촌여성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혁의 구심점이 되려고 시도 했으며 70년대에는 성인교육과 소비자보호운동、여성의 인간화 문제등에 역점을 두었다。

회갑을 맞은 오늘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문제에 중점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할수있도록 유도하게 될것이라 한다。

이렇듯 YWCA의 60년 역사는 곧 우리나라 여성운동사의 갑년이라 할수가 있을 것이다。민족수난의 역사와 보조를 함께했던 발자취는 비록 눈먼 새라 할지라도 눈을 뜨고 보아야 할이만큼 보람찬 것이었음을 알수있다。

헤이그 往復외교難航
아르헨과 3일째會談、進展없어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18日AP·UPI=聯合】포클랜드분쟁의 평화적타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은 아르헨티나집권3인군사평의회지도자들및 니카노르·코스타·멘데스외상등 정부지도자들과 연3일째 연쇄회담을가졌으나 구체적인 해결책을마련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따라 헤이그장관은 17일 영국으로 떠나려던 당초의 계획을 연기하고 18일 하오2시(한국시간19일새벽2시)부터멘데스외상과 마라톤협상에 들어갔다。

멘데스 아르헨티나 외상은 『헤이그 장관과 가진 일련의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명백한 진전이 없었다』고 말하고『현재 이야기할수있는 유일한 긍정적인 요소는 협상이 계속될것이라는 사실뿐』이라고 밝혔다。

美·加기자도 逮捕
아르헨、間諜혐의

【코모로도·리바다비아(아르헨티나)18日UPI=聯合】아르헨티나군당국은 지난15일 영국기자 3명을 간첩혐의로 체포한데 이어 18일 캐나다기자2명과 미국기자1명등 3명을 역시 간첩혐의로 체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있다고 아르헨티나군 소식통들이 보도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군에의해 간첩혐의로 체포된 서방기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짐바브웨、首都改名

짐바브웨정부는 18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2주년을 맞아 수도이름을 영국식 솔즈버리에서 토착지명인 하라레로 변경했다。

솔즈버리란 舊수도이름은 지난 1890년 이곳에 도착한 영국인들이 당시영국수상 솔즈버리卿의 이름을딴데서 비롯됐는데 새이름 하라레는 당시같은 지역에 살고있던 하라바 또는 하라와 부족의 이름에서 연유한 것이다。【하라레=AP】

英國、臨戰태세 점검
아르헨도 "非常空域선포"

【런던18日路·AP=聯合】마거릿·대처영국수상은 17일밤 예정에 없던 고위각료회의를 소집、포클랜드 사태와 관련한 영국군의 임전태세를 긴급검토했다。

대처수상은 이날 주말을 교외의 관저에서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돌연 런던으로 귀환, 윌리엄·화이트로내상, 프란시스·핌외상、존·노트국방상과 만나 포클랜드사태와 관련된 문제들을 면밀히 점검했다。

영국정부관리들은 또 대처수상이 앞서 고위정부관리들에게 戰時경계태세를 갖출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는데 영국은 지난73년 中東전쟁이발발했을때도 이같은 경계태세를 갖춘바 있었다。

이와함께 아르헨티나 정부는 영국이 포클랜드 주변해역을 봉쇄한데 이어 최근 이군도의 영공에도 2백마일『비상空域』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英國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루마니아 大統領 北傀金日成과 회담

【서울=聯】北傀 金日成은 지난18일 平壤을 공식방문중인 N·차우세스쿠 루마니아 大統領과 한차례 회담을 갖고 쌍방 공동관심사에 관해 토의했다고 北傀방송들이 19일 보도했다。

이날 회담에는 北傀총리 李鍾玉,부총리겸 외교부장 許談등이 배석한가운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을뿐 구체적인 회담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中·蘇매스컴도外面 金日成 生日놀이에

【서울=聯】蘇聯과 中共이 金日成70회「생일」행사에공식축하사절파견을 거부하는가하면 兩國의 매스컴들도 金의 生日행사를 거의 외면하다시피 냉담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金日成의 지나친 우상화놀음과 世襲책동에 대한 이들兩國의「불만과 嘲笑」를 默示的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金日成 生日을 전후하여 北韓전역에서는 거의 狂亂에 가까운 각종 우상화놀음이 펼쳐졌으나 소련의 경우 지난13일 駐蘇대사 權熙京이 마련한 축하파티소식을 그나마 짤막하게 보도 (4·14) 한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거론하지않았다。

人工衛星으로 人命 구조
美·蘇등4國서 合同계획
來7월 시험發射

【모스크바17日AP=聯合】소련 미국 캐나다 프랑스는 인공위성을이용하여 비행기추락사고의 생존자나 해난사고에서실종된 사람들을 손쉽게 구출하기위한수천만달러의합동인공위성계획에 착수했다。 이 4개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모스크바에서회동,구체적인 계획을 토의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소련의『구조』인공위성이 먼저 오는 7월 지구궤도에 발사되고 이어 프랑스와 캐나다의 장비를 실은 미국인공위성이 1983년초에 발사된다。

한 서방전문가는 이 인공위성체계가 지상에서 비행기추락이나 선박침몰사고가 발생하는 동시에 그위치를 포착하여 지상에 알려주게 되어있으며 따라서 지상에서는『수색』작업의 번거로움을 피할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미소 두나라의 인공위성은 가장 낮은 지구궤도에 머물면서 특수수신장치로 선박과 비행기의 재난신호를 포착하여 즉각 지상관제소에 신호를 보내는데 이때 지상관제소에 보내는 전파는 사고의 위치에따라 다른 파장으로 전달되게 되어있다。

防衛力증강은 당연
鈴木, 自衛隊서강조

【東京19日=宋孝彬특파원】스즈끼(鈴木) 일본 수상은 19일 자위대 고급간부회의에서『격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일본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위력을 증강·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기때문에 조속히 방위력 증강계획달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또 (伊藤) 방위청장관은『한국전쟁에 대비한 유사입법제정문제에 관해 방위청만의 연구범위를넘어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정비·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살바돌 制憲의회

엘살바도르정계소식통들은 지난3월28일 총선으로 구성된 60人제헌의회가 19일 소집되어 지난 79년부터 집권해온 軍民평의회를 대체할 새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확정지을것이라고 말했다。

極右국민공화동맹(NRA)과 민족화해당(NCP)소식통들은 오는23일까지 대통령이 지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살바도르=UPI】

美, 國軍의날 선포

레이건 美 대통령은 17일 『陸·海·空軍 해병대및 해안경비대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기위해』매년 5월 세째토요일 (금년은 15일)을 국군의 날로 선포했다。 【워싱턴=AP】

쿠웨이트 油價폭등

쿠웨이트는 지난주말 디젤유가를 갤런當 10센트에서63센트로 무려 6배나 인상하는등 대폭적인 국내유가인상을 단행했다。

쿠웨이트는 이로써 바레인에 이어 이 지역에서 국내유가를 50%이상 인상한 2번째 국가가 됐는데 이같은 대폭적인 국내유가인상은 석유수입감소로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매나마=[illegible]】

伊·西獨 反核시위

약10만여명의 이탈리아인과 수만명의 서독인들이 17일 밀라노와 뮌헨에서 대대적인 反核시위를 벌였다。

이탈리아 제2의 정치세력인 공산당이 조직한 시위에는 10만여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참가, 북부 밀라노시의 중심가를 누비며 核무기반대구호를 외쳤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대규모 反核시위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밀라노=AP】

「黃雨」로키트 발견

라오스반공게릴라들은 최근 라오스에서「黃雨」로 알려진 치명적인 화학약품 마이코톡신을 함유한 로키트를 발견, 타이로 가져왔다고 방콕·포스트紙가 17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소련글자가 새겨지고 탄두가 장착된 이 로키트가 최근 타이로 반입되어 호주정부관리들에게 인도됐다고 밝혔다。 【방콕=聯】

[illegible]에 仲裁사절단

이란과 이라크간의 페르시아灣전투를 종식시키기위한 새로운 노력으로 회교국 중재사절단이 19일 양교전국순방에 나설것이라고 하비브·차티회교회의기구(ICO)사무총장이 18일 밝혔다。

차티총장은 그러나 이번새 중재사절단이 새로운 제안을 휴대하고 가는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제다=聯】

「獨立國家 캐나다誕生」
—史上최초로 자체憲法선포

인사이드

트뤼도首相「귀환운동」개가
英연방統治 百15년 종지부

캐나다는 국가분열의 위기에까지 이르렀던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주 캐나다사상최초의 자체헌법을 선포, 영국에서 정식으로 독립했다。

14일 오타와에도착한 엘리자베드 영국여왕은 17일 캐나다의회에서 캐나다의 새헌법에 서명한뒤 이를공포,새역사의章을 열게 한것이다。

캐나다는 1867년 캐나다연방을 탄생시킨 英國의 北아메리카법에의해 지난 1백15년간 통치되어왔다。「귀환」이라고 불리는 신헌법채택운동은 피에르·트뤼도 (62)수상이 주도해온것으로 이것은 그의 중대치적으로 평가되고있다。

트뤼도수상은 새 헌법이 드디어 캐나다연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거대한 캐나다를 더욱 밀접하게 결합시키게 될것이라고 결의에찬 모습으로 말했다。

그렇지만새헌법이 오타와중앙정부의 통제만을 강화시켜줄뿐이라는 반대주장도 거세다。

이러한 반대운동은 캐나다분리주의운동의 온상이며 바로 트뤼도수상의 출신지이기도한 불어사용지역인 퀴벡크주에서 가장강력히 전개되고 있다。

캐나다는 중부평원지대에는 소맥재배농민들,공업중심지 온타리오에는 자동차노동자들,앨버타에는 신흥석유재벌,가난한 동부지방에는 어민,그리고 북극지방에는 에스키모들이 몰려살고 있으며 퀴베크주에는 독자적 문화전통수호를 고집하는 프랑스語사용주민들이 살고 있는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양한 2천4백만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다。

퀴벡크주정부는 새헌법이 주의 언어법률을 망치게하고 프랑스계 문화보존을 저해하게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헌법에 관한 저서를펴낸바있는 밴쿠버의 헌법학자 조지·우드코크씨는 신헌법에 대한 반대가 퀴베크州에만 국한된것은 아니라면서「귀환」토론은 지역의식을 고조시켰다고 말했는가하면 터론토대학의 헌법전문가 피터·러셀교수는 새헌법선포행사가 프랑스語사용 주민들의 적대심을 불러일으킬「도발적」인 짓이라면서 퀴베크주가 새헌법에 서명하지않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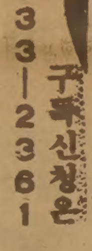
트뤼도수상은 영어권주지사들의 지지를 확보하기위해 주의회로 하여금 언론과 종교의 자유·인신보호·종족·종교·성차별보호등에 대한 규정을 거부할수있도록 허용하는 기본권과 자유에 대한 조항의 개정에 동의해야만했다。

이같은 시련이 계속되는 동안 트뤼도수상은 새헌법채택이란는승리를 그가 정계에서 물러나는 현명한기회로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돌아 왔었다。

그러나 수상자신은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사임할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하고 현재의 경제침체를 치유하는데 더많은 시간을바칠 각오로 있다고 강조했다。

◇加떠나는 엘리자베드 英女王

엘리자베드 英國여왕이 4일간의 캐나다방문을 마치고 귀국비행기에 오르기 앞서 부군 필립公으로부터 작별키스를 받고있다。【오타와18日AP電送=聯合】



千字春秋
野球

崔貞熙 〈作家〉

野球를 꽤 좋아하는 편이다。요즘은 TV중계로 열을 올리지만 전에는 운동장에 나가앉아서 신문지를 깔고 고깔을 쓰고는 구경했다。세월이 많이 흘러간 요즘에 와서도 나는 옛날 한창시절에 지지하던 팀과 연고있는 팀을 골라가며 응원을 하고있다。

운동장엔 朴榮濬씨하고 같이 다녔다。박영준씨는 항상 내가 지지하는 팀을 응원해 주었다。우리 편이 홈런을 날리면 같이 일어서고 소리를 치고 웃고 기뻐했다。박영준씨가 웃을적이면 눈이 아주 작아진다。그런 그의 눈을 나는「빈대눈」이라고 불렀다。박영준씨의「빈대눈」을 나는 운동장에서 무수히 볼수 있었던 것이다。

李鍾桓씨는 달랐다。딴편을 응원했다。딴편을 응원하는 것까지는 용납하겠는데 우리편이 만루에 홈런을 날리는 그 통쾌한 마당에 이르러서까지 그저 빈정대는 것이었다。한뼘만 모자라서도 못넘어 갔을거라는등、저 짧은 다리로 홈런을 쳤으니 망정이지… 이와같은 미운 소리로 점잖이 내뱉고는 또한 점잖이 터를 지켜드는 것이었다。박영준씨의「빈대눈」이나 이종환씨의 미운 소리나 이제 다시 보고、들을수 없는것。오직 그리울 뿐이다。

30년 가까이 되는 옛날 일이다。어느 日刊紙에서 내게 취미를 물어왔다。나는 화투·야구라고 적어 보냈다。나의 취미가 그 新聞에 나고나서 사흘쯤 됐을까。야구협회 회장 명의로 된 패스포트가 우송되어 왔다。자주 운동장에 나와서 야구를 즐기라는 글발도 동봉되어 있었다。그런데 나는 쑥스러워서 그 패스포트를 들고 운동장에 가보지 못했다。몇해가 지난뒤 야구협회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분주히 핸드빽에서 그 패스포트를 꺼내 보았다。패스포트에 붙은 사진은 그렇지 않았는데…。죄스런 마음이 가슴 가득히 차올랐다。숨소리도 내고 싶지 않았다。

프로야구팀들이 서울경기를 벌이는 날 나는오래간만에 서울운동장에 나갈 작정을하고있다。가까운 少女에게 입장권이랑 부탁해 두었다。프로야구팀들이 창단된 이래、나는 TV채널을 돌려가며 그들 팀의 훈련장까지 지켜보았었다。그러는 사이에 어느 한팀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지만、그날만은 조용히 지금 여기 없는 그 분들의 명복을 빌것이다。

주간女性

LEON'S 가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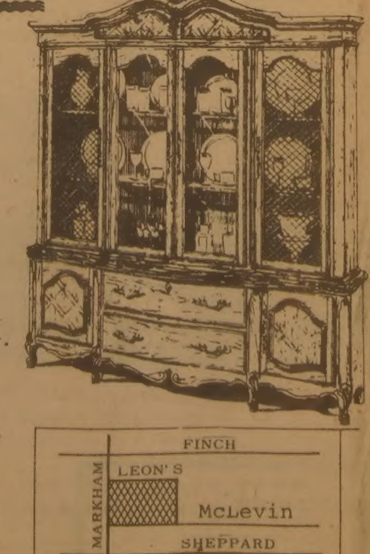
Leon's

한국인 세일즈맨

조 석 민
KEVIN CHO

역사와 전통
캐나다 최대 규모의 WHOLESALER (SINCE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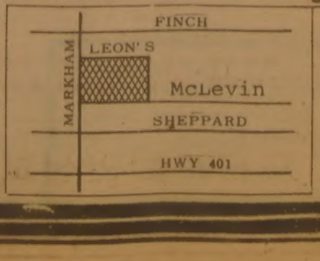
o FURNITURE
o CARPETS — 모든 카펱종류
o APPLIANCES — T.V.,전축,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DISHWASHER, 스토브, 마이크로 오븐, 후리저 등등 각종 전자 제품.



※오실때는 미리 회사나 집으로 전화 약속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저녁10시까지.

20 McLEVIN AVE.
(스카보로) (세파드 × 마캄)
B) 291 — 3818
R) 749 — 9687, 746 — 0981



癌이 무너진다 〈6〉

세계의抗癌前線…本社기자 現地리포트

乳房癌은 再發한다고 죽는것 아니다

앤더슨癌病院 乳房癌科

MD앤더슨 암병원의 유방암전문의 아만·버즈다를 만나기위해 그의 사무실 대기의자에서 약속시간을 기다리던중 엘리스라는 40대쯤의 白人암환자를 만났다. 여인은 2년전 유방암에 걸려 극소절제수술을 받고 암이 치료됐으며 지금은 어떨때는 3개월, 어떨때는 6개월단위로 정기검진을위해 닥터 버즈다를 찾아온다고 말했다. 『癌선고를 받았을때 기분이 어땠는가』라고 약간 농기있게 말을 건넸다. 여인은 잠시 입을 다물다가 얼굴을 활짝펴고는『왜 하필이면 내게 암이! (Why me Cancer)라고 한마디하루 정신이 꿩 돌아버렸다』고 말했다. 암을 이긴 여인의 뱅그르한 웃음이 癌者의 패기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새藥개발에 주력

유방암전문의 아만·버즈다는 텍사스州立大의대 부교수겸 MD앤더슨암병원유방암과 부과장이다. 『유방암파제는 두가지의 방향설정을 해 놓았다. 하나는 유방암약의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로 하여금 암을 조기 발견하도록 캠페인하는 것이다』라고 버즈다는 금방 본론을 끌고 나왔다.

수술, 방사선치료, 약물요법중 수술은 벌써 高水準에 올랐으며 방사선치료도 한계점에 이르러 유방암정복의 終局기대는 약물요법에 모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2대부인암인 유방암과 자궁암중 자궁암은 PAP테스트등 조기발견법의 발달로 1950년대이후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1970년대이후 유방암, 결·직장암, 폐암 다음의 제4위로 내려갔으나 유방암은 치료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계속 늘어 1940년대이래 「가장 위험한 여성암」으로 남아있다.

1981년 한해동안 여성암사망자는 19만2천5백명중 유방암사망자는 3만6천8백명. 수위로 전체의 19%였다. 암이환율은 유방암이 여성암전체의 27%를 차지하고있다. 81년통계중 암이환율의 2위는 結·直腸암으로 전체의 15%, 3위는 13%의 자궁암. 미국여성의 경우는 『걸렸다하면 유방암』이라는 말까지 나오고있는 것이다.

MD앤더슨의 유방암전문의는 모두 8명. 2명의 外科醫가 따로 유방암과에 전속돼있고 방사선醫도 3명이 따로 유방암과에 달려있다. 『MD앤더슨의 가장 집중된 암투쟁노력이 유방암과에 놓여있다. 가장많은 스탭에 가장많은 환자를 맡고있다』 버즈다는 MD앤더슨의 유방암과를 찾는 환자들은 텍사스를 중심한 美남부지방은물론, 스위스, 이탈리아, 日本등의 외국인환자들이 굉장히많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이 없는경우 우선 입원비를 1만달러예치해야하기때문에 실제 외국인환자들에게는 의료비부담이 너무커 문제가 있다는것이었다.

3分類法도 창안

의사한사람이 맡는 환자수는 보통 8내지 10명꼴. MD앤더슨 유방암팀은 유방암의 단계를 아주 간단하게 3分하고있다. 암腫이 직경2㎝이하이면 1단계, 2내지5㎝면 2단계, 5㎝이상이면 3단계라고 규정해버리고 腫의 크기, 임파선침해정도, 전이(Metastasis)정도의 측정을 기초로 4단계分類를 하던 일반분류법을 대신하고있다.

1단계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간단한 국부수술로 암부위를 도려내고 약물, 방사선치료를 하며 2단계는 유방, 보조임파절(Auxiliary Lymph Node)중 감염지역만 조심스럽게 떼내고 3단계때만 극단유방절제수술(Radical Mastectomy)을 한다. 극단수술은 유방, 유방을 지탱하고있는 가슴근육, 그리고 겨드랑밑의 보조임파절등을 모조리 잘라내는 수술법. 1단계에서 수술을 받는경우 컴퓨터로 빼낸 날카로운 자료에따라 수술을하기때문에 상처크기가 불과 2㎝를 조금 넘을만하며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받을때도 복수화장법을 병행하여 젖가슴이 따따해지지않고 거의 정상선을 유지하고있다.

유방암수술이 처음 시작된것은 19세기末. 존스·홉킨즈大병원에서 처음 실시했던것인데 이때는 癌균이 임파선을따라서만 퍼진다고 생각했을때여서 유방에 조그마한 암腫이라도발견되면 유방, 유방을 지탱하는 가슴근육, 유방에 이어져있는모든임파절(Lymphatic Node)을 모조리 떼내 갈비만 남게했던것이다.

이런 극단절개수술후에도 생존율은 微微했다. 암균은 임파선을 타고가는것만이 아니며 血管을 타고도 흘기때문에 임파선을 탄 암균이 모여있는 임파절을제거한다해도 잠복균이 언젠가는 또다시 나타나 재발했기 때문이다.

극단수술법이 局所수술로까지 진전될수있었던것은 수술술자체의 진전도 진전이었지만 약물요법, 방사선치료의 힘을 크게 얻었던것.

새投藥法 치료율 5%높여

再수술해도 생존율은 비슷

乳房살리며 癌제거에필요한 特効藥개발

5년生存率 63%

버즈다가 내놓은 MD앤더슨 유방암과의 통계에따르면 1단계수술을한경우 5년내 재발률이 25내지 35%, 2단계수술환자의 암재발률은 50~60%, 그리고 3단계때는 70내지80%가 5년내재발을 보였다.

미국 암협회(ACS) 발행 82년版『암의 사실과 통계』에따르면 美백인의 경우 유방암의 5년이상 생존율은 초기발견의 경우 80%, 2기이상의 경우는 30%로 전체 약63%가 5년이상 생존하는것으로 돼있다.

『결국 MD앤더슨은 사망자別체크를 하지않고 再發사항을 주요자료로 잡고있기 때문에 상호엇갈리는것같이 보일지모르나 두 통계를 파보면 결국 같은것이다』

유방암전문의 버즈다는 재발의경우에도 再수술, 약물치료, 방사선요법등으로 상당한 치료율을 보이고있다고말하면서 적어도 유방암의 경우는『암은 재발하면 죽는다』라는 일반상식이 통하지않는 곳이라고 자랑했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향암검사는 가슴을 살리면서 암을 떼낼수있게한 결정적인 공헌役을했다.

에스트로젠향암검사는 원래 시카고大에서 발견해낸것이지만 지금 MD앤더슨에서 널리 쓰고있다. 이는 유방암환자의 암부위를 조직검사하여 여성호르몬 에스트로젠이과다히 발견될때 암의원인을 여성호르몬분비기관인 부신, 난소등을 떼내는 것이다. 이 에스트로젠향암검사법이 미국국립암연구소(NCI)에 의해 『확립한 치료법』으로 인정된것은 1979년.

5千分의1 확률

MD앤더슨연구팀은 에스트로젠향암 검사결과 에스트로젠이 과다할 경우 부신(副腎)이나 난소를 떼내지않고 약물로 反에스트로젠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추적, 최근 아미노그루테타마이드(Aminoglutethamide)라는 특효약을 찾는데 성공했다.

이 아미노에타마이드는 원래 간질병에 쓰는 약. 버즈다전문의는 『현대의학이 재수가 통하는 곳이 한군데 있다. 그것이 바로 암약개발분야다』라고 말하면서 MD앤더슨이 간질약 아미노그루테타마이드를 유방암 약으로 찾아낸것도 그런 재수덕분이었다고 말하면서 웃었다.

암은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 실험을 해보면 담배가 肺암의 원인이라는 것이 나오지만 담배의 어떤 因子가 어떤 화학적 반응을거쳐 어떻게 암균을 번식시키는지는 모른다. 이것 저것 약을 써 보다가 재수 좋으면 특효약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現실정이다. 5천번 실험하면 한번정도 「그럴듯한 결과」가 나온다는 통계도 바로 이런 기약없는 실험과정을 의미하는것.

BCG 왁진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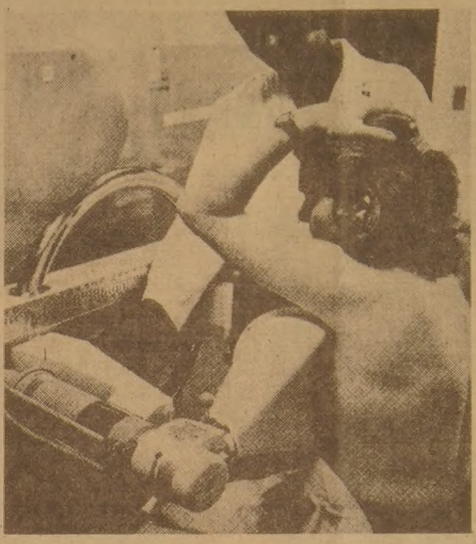
버즈다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면서『원인을 찾을때까지 기다리자면 암환자는 다 죽는다. 암환자는 늘어가고 원인은 안찾기니 급한대로 現存약을 시험주사하여 듣는약을 찾아낼수밖에 없지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머스타드개스, BCG왁진등이 암약이 된다는것이 발견된것도 이런과정에서였다는것.

버즈다는 81년중순 5FU(5Fluorouracil)와 아드리아마이신(Doxorubicin Hydrochloride) 사이클로포스마이드(CY), BCG의복합사용연구결과』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2, 3期유방암환자 2백22명을 상대로 실시했던 4가지암약의 복합투약은 1期투약의 계우에 비해 5%의 치료율상승을 올렸다고 학회에 보고했던 것이다. 버즈다팀은 기왕의 4암약중 투약시기, 量, 배합정도를 달리하여 실험한 결과 어느한방법이 정상약효의 5%효력을 더 올린다는것을 찾아냈던것.

기자는 버즈다가 자기논문을 내보이며 『이건 굉장한 발전이었다』라고 말하는것을 들었을때 속으로 『이만한걸 가지고 그렇게 뽐낼게 없는것 아니냐』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만해도 치사율 80%를 오르내리던 유방암이 아직 암의 원인을 찾지못한 가운데서 조기발견의 경우 80%까지 치료해낼수 있게된것은 1%, 2%의 끈덕진 노력의 누적때문이었던것을 미뤄봤을때 MD앤더슨이 내놓은 5%치료율상승은 눈부신것이 아닐수없었다.

버즈다는 파키스탄출신. 73년 미국에 암전문의제도가 마련된후 81년末현재까지 1천8백명정도의 엘리트급이 전문의 자격증을 따냈고 있는데 그는 아마도 유일한 파키스탄 출신 전문의. MD앤더슨에는 내과암전문의 吳씨를 비롯, 3명의 방사선醫, 12명의 간호원을 비롯, 30명의 한국인스탭들이 있었다.

【휴스턴=鄭逸和기자】



◇유방X線단면 촬영。50세이상의 여성등 3대유방암위험체질은 유방을 전면、측면에서 X선촬영을하는 단면촬영을 해보는것이좋다。

◇MD앤더슨 암병원의 유방암전문의 아만·버즈다。그는 『암은재발하면 죽는다』는 상식이 유방암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女性癌 예방법

고기 많이먹으면 위험…채소등 섬유질식품 함께

71년 암방지법이 생긴이후 美국립암연구소(NCI)가 연례적으로 내놓고있는 암통계자료를 보면 위암, 直·結腸암, 폐암등 12개 주요암종중 여성암인 유방암과 자궁암의 치료율이 가장 급진적으로 향상된것을 볼수있다.

기자는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대학(UCLA)에서 열린 美암연구소협회(AACA)에 왔던 빈센트·드비타 NCI회장에게 『당신네 미국인들은 암퇴치에도 레이디·퍼스트정책을 쓰는것이 아니냐』라고 농담을 한바있지만 어쨌든 여성들에게 기쁜일이 아닐수없다.

자궁암5년 생존율은 초기발견의경우 81%로 모든암치료율의 앞자리를 차지하고있고 두번째가 유방암으로 초기발견시 5년생존율이 80%로 돼있다.

지금까지 NCI, AACA, 美암협회(ACS)등에서 내놓고있는 여성암의 조기발견법및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방암은 음식과 가장 깊은관계가 있는것으로 밝혀졌으며 소, 돼지, 양등 고채성지방및 단백질을 많이 먹는 여성이 잘 걸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육식을 하지않는 저소득국가의 경우는 유방암이환율이 극히 낮다. 미국암예방협회(ACPA)는 미국여성들에게 『고기를 적게 먹자. 고기먹을때는 채소, 과일등의 섬유질식품을 같이 먹어야한다』고 캠페인을 벌이고있다.

조기발견법은 유방자기검사법(BSE)이라고 하여 평소 거울을 보고 자기가슴의 地形을 잘살펴 익힌후 왼손을 들고 오른손으로 왼쪽젖가슴의 상단부터 서서히만져 응어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좌우젖가슴에 응어리가 만져질때, 젖꼭지가 안으로 들어갈때, 젖꼭지에서 무슨액체가 흐를때, 주름배같은 피부에 임신때처럼 꺼칠꺼칠한 것이 생길때, 양쪽 젖가슴의 모양이 달라질때(양쪽 젖가슴은 원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평소에 어떻게 다른가를 익혀둬야 한다)등에는 병원을 찾는것이 좋다. 美보건국은 『3大유방암위험체질』이란것을 만들어 놓고 이에해당하는여성은 적어도 3개월에 한번씩은 병원을 찾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3대위험체질은 ①50세이상의 여성전부 ②어머니, 형제중 유방암경험이 있는 40세이상의 여성 ③한쪽젖가슴을 암수술받은 여성으로 35세이상은 환자.

한편 자궁암의 조기 발견법은 병원에서 2·3분만에 無痛으로 할수있는 자궁세포질검사(PAP test)이며 이검사로 전체자궁암 환자의 85%가 조기발견되고 있다. 백인보다는 흑인 여성에게 많은 자궁경부암의경우 20세전에 성교를 시작한여성, 5명이상의 남성을경험한 경우가 가장위험하며 이런경우에는 每月 세포질검사를 받을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의 이력서 金蘇東 80

(題字 金蘇東)

고시준비를 위해 六法전서와 싸워야하고 토요일오후와 일요일에는 택시를 몰아야하고, 주 두번은 음악학교에 가야한다. 그 바쁜 틈을 타서 영화관에도 가야 직성이 풀린다. 마치 결혼할 약혼자를 두고 다른 처녀들과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그런 심정이다.

민법총칙시험에 대비해서 도서관에 들어가앉았다. 지나간 일들이 하나 하나 떠오른다.

강의시간, 클라스 메이트, 마작구락부, 재판소견학, 대학祭등등몇 달후면 대학과 영영 작별을 해야할 그런 잡념들이 한동안 내 사념의 세계를 맴돌았다. 동경생활의 단편적인 회상이 명멸하는 도서관유리창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고등고시의교과의 문은 반도학생이통과할만큼 넓지는 못하다는 것도 나는 잘알고있다. 무모한 계획일지도 모른다.

바빴던 卒業몇달전

그러나 결정한 일이니 해야 되지 않느냐고 자문자답도 해본다. 민법책을 한페이지도 못읽은채 도서관을 나왔다. 식당에서 15전짜리 저녁을 먹고 간다로 나갔다. 우연히 全忠植을 고서점에서 만났다. 황해도 부자 전사천씨 집안이고, 부친은 당시 충주군수였다. 나와는 경제적환경이 달랐지만 예과시절부터 다정한 친구다. 그는 상과를다녔고 나는 법과를 다녔다. 이 무렵 영화감독 이병일과 전군과 나는 아주가까운 친구였고 서로 무리가 없는 사이였다.

그후 서울에 돌아와서 나와 같이 교육연구소를 차리고 도서출판을하다가 동성상업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張勉정권때 전매청장 그후 신세계백화점사장을 역임했으나 몇해전에 작고했다. 전군은 지금 로스앤젤레스 노인회회장으로 있는 전 중동학교교장 方應熙와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와 스다쪼(須田町)에서 차한잔을 나누고 영화관 南明座에 들어갔다. 도꾸가와무세이(德川無聲)가 해설하는 무성영화가 상영중이었다. 나디·간다의 「名金」, 론차니의 「오페라의 괴인」, 존·발리모어의 「바다의 야수」등 1920년대의 무성명화들을 토막토막 모아서 변사시대의 옛추억을 되살려보는 「추억의 명화」들이다. 도꾸가와는 일본서도 이름난 만담가다. 토키영화에 밀려 뒷골목신세가 된 그는 옛추억을 더듬어서 때때에 목이 쉬어지는듯한 그 유창한 말솜씨로 여전히 명장다운 풍모를 지니고 있다.

일본에는 요세(寄せ)란는 소극장이 있다. 만담이니, 나니와부시(浪花節)니해서 뒷거리에 사는 소시민을 상대로 하는 서민극장이다. 극장이라기보다는 사랑방같은 것이다. 명치유신이래 일본에는 새로운 문화의 물결이 밀어닥쳐서 이 소극장은 점점 쇠퇴해갔고 그 때만해도 요세는 거의 자취를 감추던 시절이다. 요세와 무성영화에서 활약하던 도꾸가와무세이는 가끔 라디오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으나 무성영화의 변사해설을 직접 들어본 것은 처음이다.

全忠植과 헤어져 구단시다에 있는 하숙방으로 돌아오니 편지가 두통 기다리고 있었다.

경성제대 의학부에서 공부하는 고보동창 金永驥와 高周興의 편지였다. 그들도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일학기초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때만해도 기타라는 악기는 서울에 그리 많지않았고 또 기타를 만지는 학생도 거의 없었다. 가요곡을 작곡해봤다면서 오선지에 곡과 가사를 적어보냈다. 이들모두 취미생활에 과분한 정열을 쏟는 친구들이다. 우리들은 늘 이러한 음악통신을 교환했다.

여름방학때는 동대문밖 낙산성터에서 밤이 늦도록 청춘의 한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들이다. 김영기군은 요절했고 고주석군도 미국에서 타계했다. 달밝은 밤, 낙산 소나무밑 거기에는 꿈이 어렸었건만 지금은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있다.

그들이 보내준 몇장의 오선지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차한잔 끓여놓고 그들에게 답장도 쓰고 내가 만든 엉성한 곡도 오선지에옮겼다. 고군은 클라리네트의 명수로 그후 경성제대 교향악단에서 클라·파트를 맡아 연주하곤 했다.

高試준비·音樂공부·運轉등 겹치기

圖書館갔다 친구만나자 映畵館에 名辯士 도꾸가와解說에 반하기도

◇高普동창 高周興과는 대학은 달랐지만 함께 음악에 심취, 서신으로 의견을 나누곤했다。뒤가 高周興, 앞이 筆者。滿洲수학여행중 奉天에서 찍은 사진이다。

海外토픽

뚱보면 커서도뚱보

★美학자들 事前예방 강조

뚱보어린이는 커서도 비만증에 걸릴확률이 높으며 어른이 되어가면서 비만상태가 줄어들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미국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영향학자들이 경고.

이 학자들은 미국어린이들중 10~20%가 비만증에 걸려있다면서 대부분의경우 뚱보어린이들은 평생을 비만증으로 시달리는 비율이 높다고밝혔다는 것.

그들은 이어 어린시절 비만증은 부모의 비만, 임신중 어머니의 체중·먹는습관·가족분위기및 양육자에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밝혔다.

【뉴올리안즈=U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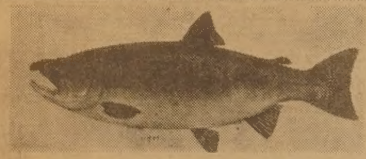
다이애너 男兒임태

★특수寫眞촬영 결과

오는 7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다이애너 영국황태자비는 최근정기의료검진결과 왕위계승서열 2번이될 예쁜사내아이를 낳을것으로 판명됐다고 엄저버지가 18일보도.

다이애너황태자비는 특수 TV화면을 이용한 사진촬영 결과 사내아이를 갖고있으며 아기의 건강상태도 양호한것으로 밝혀졌다는것.

【런던=AP】



반드시 「故鄕」되찾는 연어

어제 稚魚 百20萬마리放流

3만2천여리를 헤엄쳐 만6천리(6천4백㎞) 떨어진 북태평양 베링어장에 3~4년전에 잠시 머물렀던 하천으로 되돌아오는 까지 갔다가 3~4년후몸 연어치어 1백20만마리가 16일 강원도 襄陽郡의 南大川에서 방류됐다.

길이 70㎝~1m, 몸무게 4㎏의 親魚(어른연어)가 돼 산란하기위해 방류한하천으로 반드시 되돌아오는 습성을 가진 母川회귀성어종이다.

李範俊 국회농수산위원장, 金鍾洙수산청장, 朴鍾汶강원지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류된 어린연어들은 강원도 연어부화장에서 기른 것이다.

수산청은 지난69년 연어인공부화방류사업을 착수, 지난해까지 약 1천3백만마리를 방류, 지난해 1천7백28마리를 잡는등 최근 방류된 연어새끼는 하천에서 약 1주일간 머물다가 넙새말으면서 주위환경을 익힌뒤 강을떠나 약1에 에와서 연어의 회귀율이 높아가고있다.

세계적으로우수한 가와이피아노및 전자올갠 ★★★★

10% —3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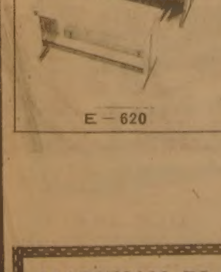
봄맞이재고정리대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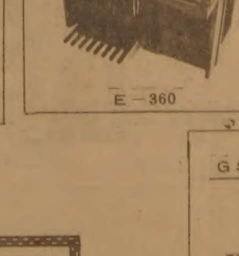
기간 : 4월17일부터4월30일

○ NEW, USED, D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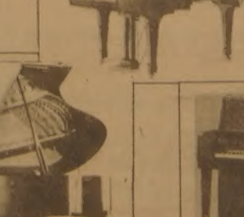
교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보답코저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아래품목을 특별할인판매 합니다.

전자올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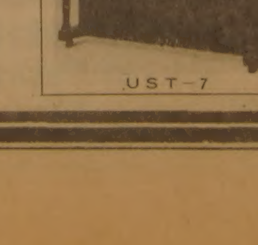

E-620


E-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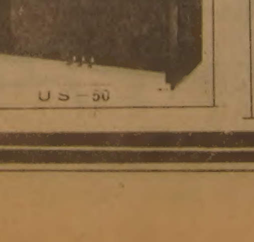
그랜드 피아노


KG-3

GS-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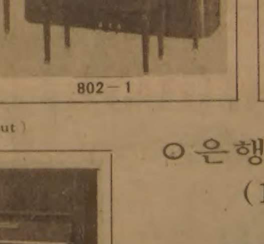

UST-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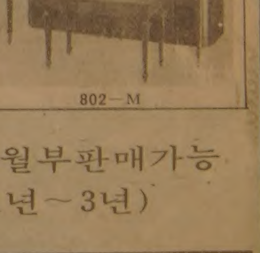
CE-7N (Open Wainut)


US-50

KS-3F

UPRIGHT 피아노


802-1


802-M

○은행월부판매가능 (1년~3년)

MARKHAM PLACE
2900Steeles Ave, E.
Thornhill
881-8211

HILL 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883-9407

"우리손으로 會社되살린다"

280억不渡난 국제電光 2千5百여 종업원들

어깨띠두르고 再起를 다짐

債權團서도 호응 협조약속

會社선 밀린임금 月末까지 完拂격려

『우리회사는 우리의손으로 재건하겠다』 거액의 부도로 도산위기에 처한 국제전광의 서울, 富平, 裡里등 3개공장소속 종업원2천5백여명이 19일 일제히 재기를 다짐하고나섰다. 이날 종업원들은 각기 공장별로 「재기결의대회」를 갖고 『채권자들이 조금만참아주면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 부채를 갚고회사를 살리겠다』고 호소했다.

◇19일상오 국제전광의 서울공장종업원 3백여명이 모여 『회사를 우리손으로 살리자』는 결의대회를 벌이고있다.

종업원들사이에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것은 회사대표李泰永씨(63)가2백80억원의 부채를지고 잠적(한국일보14일자 11면톱기사)했다가 수, 서울東部경찰에 의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다음날인 16일. 이날서울공장인 서울 城東區聖水洞260의1 작업장에서 고된일과를 끝낸 3백여 종업원들은 「본입조」 모임을 열었다.

24개분임조가 제각기 회사의 내일을 걱정하던중 생산부 크로버분임조의 金在玉양(23·전자반장)이 벌떡일어나 『회사대표가 구속되고 경영이 법정관리로 넘어갔지만 우리가 남아있지 않은가. 채권단과 납품업체에 호소해서라도 우리손으로 회사를살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金양의 제안은 긴토론이 필요없이 분임조전체의 통일된의견으로 채택됐고 이 소식이 각분임조로 전해지자 모두가 뜻을 같이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공장 富川, 裡里공장으로 번졌다. 이튿날부터 3개공장 종업원 대표들은 수시로 접촉, 19일상오9시30분을 기해 3개공장별로 결의대회를 갖기로 결정, 플래카드와 피켓, 어깨띠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또 회사를 통해 채권단과도 접촉, 『회사도 살리고 부채도 해결하고 종업원도 살수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자』고 설득했다.

채권단 (위원장 金應基)측도 이들의 「의지」와 회사측의 「대책」을 설명받고 『일단 부채상환요구를 보류하고 회사를 살리는데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힘을 얻은 종업원들은 곧 공장앞마당에 『떨어진 국제전광의 명예를 우리손으로 회복시키자』는등의 플래카드와 피킷을 들고나와 『우리의 작은힘을 뭉쳐 회사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자』고 다짐하게됐고 전기사업부 柳明順양(22)은 상공부, 은행, 채권자, 납품업체등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전사원이 피와 땀으로 뭉쳐 한국정밀기계공업의 육성에 앞장서는회사를위해 다시 일할수있는터전을 마련해줄것』을 건의했다.

이어 생산부 金在玉양(23)은 『우리는 우리의손으로만든 시계가 국제시장에 수출되어 외화획득에 한몫을 차지하고있다는 보람으로 불철주야 일에 전념해왔다』고밝히고 『전사원이 몸과 마음을 합쳐 회사를 살리는데 진력하겠다』는등 6개항의 결의문을 낭독한 뒤 상오 10시 전종업원들이 작업에 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종업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있자 회사측은 밀린임금2·3월분중 우선2월분 4억여원을 19일 지급하고 나머지 밀린 임금도 이달중에 지급할것을 약속, 이들의뜻을 격려했다.

회사측은 종업원들이 회사재기에 앞장선만큼 회사의 정상화는 『시간문제』라면서 희망에 차있다.

회사측에 의하면 현재사채, 은행부채, 물품대금등 2백80억원의 부채가있지만 2년동안만 견뎌내면 부채는 갚아나갈수있다는것. 4월현재 수출오더가 1천50만달러나 되어 올 수출계획 1천4백만달러의 70%를 차지하고있어 연말까지는 초과달성이 기대되고 국내판매도 계획이 1백50억원을 달성할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회사측은 오는84년부터 부채를 갚기시작, 86년에 완전히 해결키로 계획을세우고있다.

金在玉양은 『원료를 아끼고 능률을 높이는등 젊은일에서부터 출발, 회사를 살리는데 힘을 모으겠다』며 『이제 남은 일은 사회가 우리의 뜻을 밀어주는 것뿐』이라고 자신에 차있다. 【方政俊기자】

女住持、절에 불질러 全燒

月城 臥龍寺

소유권訴訟 불리해지자

자신은 飮毒자살기도 중태

【慶州】19일상오10시께 경북月城郡 內南面 蓍長 선암산 기슭에있는법화종 臥龍寺주지 千桂蘭씨 (54·여) 가건평28평의 1천7백년대 사찰건물에 불을 질러 사찰건물을 모두 태운후 자신은음독, 자살을 기도했으나 중태에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千씨는 오래전부터 사찰의공부상 법적소유자인 慶州市道東洞93의1 尹淳義씨 (48) 와 소유권시비로 소송을벌여오던중 자신의입장이 불리해지자 방화했다는것.

경찰은 千씨를 방화혐의로 입건했다. 【聯】

어제 4·19義擧22돌

수유리서 기념식 千여명참석

4·19의거 제22주년 기념식이 19일 상오10시 서울道峰區水踰洞 4·19묘지에서 金俊成부총리를 비롯, 4·19희생자유족회원, 4·19상이자회원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金부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22년전 애국충정으로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여 분연히 일어섰던 4·19의거야말로 젊은세대들의 용기가사회전반에 확산된 정의로운정신의 발현이었으며 새로운가치관을 정립하는 커다란계기가 되었다』고 전제, 『국민들 가슴속에 소중하게 간직돼 길이 전승되고있는 4·19의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귀중한 정신적 유산으로삼아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불의와 부정심리를 추방하고 조국의 발전을다지는 계기로 삼아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장에는 全斗煥대통령을 비롯, 尹潽善 전대통령, 柳致松민한당총재등 각계인사들이 보낸 화환10여개가 놓여있었다.

또 기념식에 앞서 상오7시30분께 尹潽善 전 대통령내외가 참배한것을 비롯, 柳致松민한당총재, 權正達민정당사무총장등 각계인사와 일반인 5백여명이 4·19묘지를 찾아 영령들의넋을위로했다. 한편이에앞서高大는「4·18」22주년을맞아 기념식을갖고 마라톤대회도열었다.

서울大도 19일 상오8시30분 冠岳캠퍼스내 4·19기념탑앞에서 權彝赫총장 교직원 학도호국단간부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주년 4·19의거기념식을 가졌다.

山불非常수속 山불20건

담배불등 引火…무색한「植木의달」

일요일인 18일 하룻동안 巽山과 서울의 冠岳山등 전국20여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 산림청이 헬기를동원하는등 진화작업을 폈지만 50여ha의 임야가 불탔다.

국민식수기간과 함께 산불방지비상령이 내려진 기간중 일어난 산불은 주로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담배불이나 밥을짓던 불길이 바싹마른숲에 인화, 봄바람을타고 쉽게 번졌다.

산불이 비교적 크게난곳은 다음과 같다.

▲전남求禮郡山東面佐沙里 智異山 (5ha) ▲경남巨濟郡 長木面外浦里 (4·6ha) ▲경북達城郡嘉昌面冷泉里(4·5ha) ▲경기江華郡內可面古川里 고려산 (20ha) ▲경기始興郡秀岩面磐浦里 (1·5ha) ▲〃果川面莫溪里 (1ha) ▲서울冠岳區新林9洞 冠岳山유원지제4야외장 (2ha)

金河방직에 큰불

大田 原綿·기계등태워 피해2억원

【大田】18일새벽2시50분께 大田市中區柳川洞 金河방직 (대표 吳隆昇·37) 소면실에서 불이나 제1소면실·전경실등 1천여평과 원면7백표·소면기 45대를 태워 2억원의 재산피해를내고 3시간20분만에 진화됐다. 이불로 진화작업을하던 소면실주임 朴昌洙씨(42)가 중화상을입고大田성모병원에입원가료중이다. 불은처음제1소면실에서발생, 소면실안원사제품과바깥에 쌓아둔 원면에인화되면서 삽시간에 번져 원면공구실과 오른쪽 전경실에옮겨붙었으나 제2소면실과는방화벽이 가리고있어 번지지못했는데 불이난 제1소면실안에는 주임朴씨와 공원들이기계만 가동시켜놓고 자리를비워 인명피해는 없었다. 金河방직은 대지4만평에 건평1만4천평의 10개동건물로 공원1천3백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화재보험에 75억원의 화재보험이 가입되있다. 【聯】

14세少年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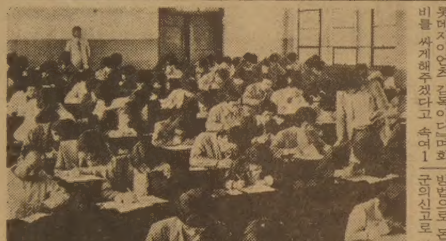
서울西大門경찰서 19일 梁모군 (14) 을 절도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梁군은 지난12일 하오4시 30분께 서울中區貞洞22 문화방송 앞길에서 프로야구단 어린이회원으로 가입하려온 김태식군(12·德壽국교5년)등 6명의 어린이들에게 『아버지가 롯데자이언츠 감독이다』며회비를 싸게해주겠다고 속여1인당 5천원씩 모두3만원을 빼앗았다는것.

梁군은 17일 하오3시께도 문화방송앞에서 프로야구어린이회원으로 가입하러온金모군 (12) 에게 접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뺏으려다 金군의신고로 경찰에붙잡혔다.

"프로野球회원 싸게加入시켜준다"

어린이에 詐欺행각


◇본사 견습기자 모집시험에서 열띤 실력경쟁을 벌이는 응시생들. 이날시험은 우리나라 언론사상 최다응시기록이었다.

本社견습기자 2천명應試

1차합격자 1주일후 발표

한국일보社가 모집하는 제39기견습기자 응시자에 대한 1차시험이 일요일인 18일 서울鐘路區明倫洞 成均館대학에서 실시됐다.

이날 상오10시부터 3시간동안 국어 상식 외국어 순으로 진행된 시험에는 응시자 1천9백87명 (여자 4백98명) 이 참석, 열띤 실력경쟁을 벌였다.

1차합격자의 명단은 일주일후에 본지및 자매지를통해발표되며 논문과 면접등 2차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가 선발된다.

공사장 맨홀放置 4살어린이 숨져

【釜山】18일하오2시30분께 釜山市東萊區溫川3洞41 2고속버스터미널 신축 공사장앞에서 놀던 전연규씨 (64·釜山市東萊區溫川3洞1410)의 손자 상기군(4)이 하수구 맨홀에 빠져 숨져있는것을 행인이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상기군은 이날 집앞 공사장 부근에서 놀던중 공사시작때부터 방치돼온 깊이 1·4m, 직경 1m의 맨홀에 빠져 변을 당했다.

경찰은 공사를 맡고있는진흥기업 현장책임자를불러 정확한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聯】

승려끼리 주먹다짐 芬皇寺住持 구속

【慶州】경주경찰서는 19일 경주 芬皇寺주지 李益善스님(33)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李스님은지난해 12월31일 새벽6시30분께 동대법어사 선원에서 南海 용문사주지 강동규스님(40)과 사소한 시비끝에주먹을 휘둘러 전치2주가량의상해를입힌혐의다. 【聯】

里長、상환금횡령 糧穀·비료代金등

【昌原】창원경찰서는 19일 대여양곡, 비료등에 대한 상환금을 주민들로부터 받아챙긴 義昌郡北面外山里 이장 김정식씨 (43) 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4월5일까지 이장으로 있으면서 이마을에 사는 주민16세대로부터 양곡대금 1백92만원을받아 가로챈것을 비롯, 지난해8월초순 義昌郡北面 농협단위조합으로부터 소석회 1천1백19부대를 수령해 마을주민들에게 나눠준뒤 39만7천원을 받아 챙기는등 4회에걸쳐 모두 2백63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聯】

15회 科學技術賞수상자발표

과학 李相洙씨 / 기술 申孝淳씨 / 기능 李崗熙씨 / 봉사 徐廷祥씨

과학기술처는 19일 제15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대통령상) 수상자와 과학기술유공자를 확정 발표했다.

과학상 (상금 2백만원) 에는 李相洙박사 (57·한국과학技術院교수) 기술상 (2백만원) 에는 申孝淳박사 (43·大宇造船이사) 기능상 (2백만원) 에는 李崗熙씨 (44·第一毛織기능사원3급) 과학기술봉사상 (1백만원) 에는 徐廷祥박사 (54·全北새마을기술봉사단장) 가 각각 수상자로 뽑혔다.

또 유공자인 고尹日重씨 (전 기화학회 초대회장) 에게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다.

아스피린은 肝癌진행억제

美하워드大팀 쥐實驗성공

【뉴올리안즈 (美루이지애나州) 17日AP=聯】 아스피린이 肝癌의 진행속도를 둔화시키는 효능을 갖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미국워싱턴의하워드대학연구팀이16일밝혔다.

일반적으로 癌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들의 효능을 연구해온 이 연구팀은 美실험생물학회총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쥐를 통한 실험결과 이같은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그러나 이결과가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 아닌 쥐만을대상으로한 실험에서 얻어진것이므로 앞으로 더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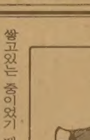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아스피린을 투여받은 쥐들의 癌종양진행속도는 나머지집단의 쥐들에 비해 훨씬 더딘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아스피린을 투여받은 쥐들의 경우 다른 집단의 쥐들보다 종양의 크기도 훨씬 작았을뿐아니라 저항력도 강한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간단한 食事」

世界頂上 눈앞서 침몰한 黃忠載

"영원한 強者없다" 22連勝 神話깨져



욱일승천하던 복서 黃忠載 (사진) 가 18일 한 무명의 적수를 맞아 비참하게 허물어졌다. 79년4월1일 OPBF웰터급왕좌에 오른이래 22연승 (19KO) 에 13명의 도전자를 차례로 눕혀온 黃忠載가 세계정상을 눈앞에 둔 그常勝의 캔버스에서 자신이 누워버린것.

그가 黃俊錫의 도전을 허락할때만 해도 누구나 「간단한식사」정도로만 생각했다. 黃忠載의 전적과비중이 워낙 도전자를 압도해 있었는데다 세기의 복서라는 레너드에게도전키 위해 前챔피언피노·쿠에바스와의 1전 (5월24일 美國네바다州) 을 앞두고 피눈물나는 훈련을 쌓고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지난1월 훈련캠프를 차린이래 후원자 朴泰雄씨 (39·韓獨전자상무) 가 구입해준 쿠에바스의 비데오필름을 하루 4시간 강훈을 해오던 참이라 많은 권투팬들은 이번 시합이 미국行을 앞둔 가벼운 스파링쯤으로 믿었던것.

그러나 黃忠載자신은 이번대전을 앞두고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던지 응원단을 동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응원단을 부탁하기는 이번이 처음있는일이었다. 朴후원회장은 버스 2대로 한독전자의 종업원중 복싱팬 1백50명을 全州까지 실어날랐다.

「초반에 KO승하도록 분위기만 잡아 놓는게」 이들 응원단의 임무였다. 하지만 분위기도 잡기전인 黃은 2회에서 첫다운을 뺏겼다.

그러나 챔피언처럼 사생활의 무절제도 없었던 黃忠載의 패배에 대해 권투인들은 믿을 선수도없고 못믿을 신인도없다는걸 다시절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충격적인 패배였다는것. 그러나 도시가 사각의링에 영원한 승자가 있을수있는것인가.

멕시코의 KO王 사모라는 사라테에게 꿇었고 사라테는 다시 고메스에게 패배했다. 30연속의 KO왕 고메스는 한동안 독주할것 처럼 보였지만 그역시 WBC페더급 챔피언 산체스에게 무참하게 침몰하고 말았다. 산체스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黃忠載는 패배후 全州의 한 공원을 찾아 한동안 목놓아 울었다고한다. 곁에서 지켜보던 朴회장이 따뜻한 위로의 말을 던졌다고도 한다. 여하튼 그의 패배의 순간을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을 것이다. 【金仁奎기자】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292 Parliament St.(at Dundas)
BOSCHE CO.
☎ : 362-2300 MR. 리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CHINA HOUSE / Bathurst / Bayview / B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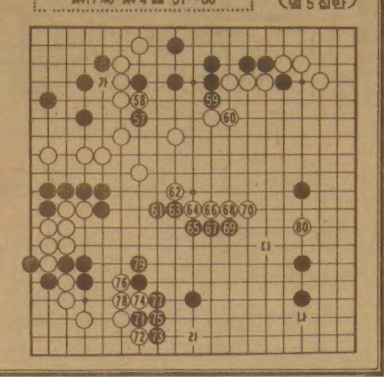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7局 第4譜 57~80 (덤5집반)



白(6段)徐 能 旭〈1勝3敗〉
黑(6段)裵 哲 民〈0勝5敗〉

전보에서 지적한 黑57에대하여 다시한번 강조해둔다。이수는 지금현재 큰문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손해。57한점이 白58로서 운신을 못하게 되었거니와 白이 58로 「가」에 치받아 막는것도 거의 선수인까닭에 말하자면 黑은 연결되어있는곳을 들여다본 적。裵6단의 말마따나 『편한수』였다。따라서 57은 지점 중앙쪽을 61에 두어야 정수。

하나 결국은 黑61에 손이돌아와 이순간 우하측일대에 방대한세력을 구축하게 된것은 다행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徐6단이 무책으로 가깝도록 白62이하를 연신두어 버렸다。62는 역시 「가」를 일단 선수한다음 우하귀를 白「나」로 붙이는것이 보통의 착상이다。또 이왕 62쪽에 둘바에는 그냥 66자리에 평범하게 두는것만 못했다。

白80 과감한 승부수

보다시피 白64에서 70까지 피차답을 쌓은결과 위쪽白의 폭보다 아래쪽 黑의 그것이 배나갈고넓게 확정되어 갈 판이니 아무리 좋게보아도 白의실패가 분명하다。세력을 즐기는 裵6단을 도와준 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소원이나 불감청。필시 이런기분으로 裵6단은 黑71이하 79。마침내 이쪽에다 철벽을 쌓아놓고 기세를 올린다。

71은 내친걸음에 「다」자리를 아주 지킬수도 있었다。그러나 다음白에게 「라」의곳까지 침입당하는 것이 싫었던모양。

白도 74는 75의곳에 단수하여 73한점을 잡을까 하다가 그러면 대신 좌하귀도 상당히 파괴된다고본것이다。이에이르러 徐6단은 白80으로 승부를 걸밖에 없다。그리고 일대격전을 맞이하게된다。【一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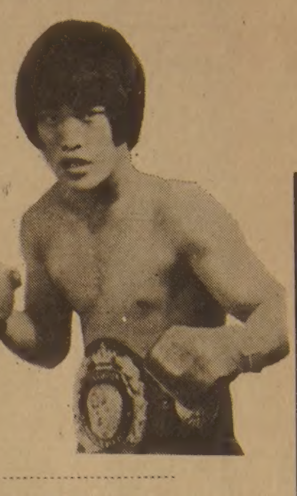
休日熱狂시킨 스타誕生

복싱서 陸上서 골프서 名聲떨친 3명의 無名선수

화제만발의 일요일이었다。신예 黃俊錫이 강호 黃忠載를 5차례 다운시킨 끝에 8회 KO로 동양웰터급 챔피언이 됐고、재일동포 아마골퍼 金桂憲은 아시아서키트골프서 쟁쟁한 프로들을 제치고 우승했다。육상기록대회서는 여자넓이뛰기의 金美淑등 4선수가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無敵의 黃忠載눕힌 黃俊錫

父親喪 잊은 무서운 執念 新人王→한국→東洋타이틀로



동양무대에서는 무적이라던 거함 黃忠載를 8회에 처참하게 침몰시키고 프로복싱동양·태평양권투연맹(OPBF) 웰터급 王座를 차지한 黃俊錫(61년4월생)。무명선수가 일약 스타로 발돋움한 순간이었다。

『저는 이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읍니다。많은 사람들이 黃忠載선배에게 도전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상대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읍니다。2라운드에서 첫 녹다운을 얻은후 승리를 확신했읍니다』

비정한 링의 세계에서 후배가 선배를 올라타는것은 흔한 일이다。그러나 피피노·쿠에바스(멕시코)와의 중요한 게임을 앞둔 黃忠載의 패배는 너무나 비참했다는게 TV를본 팬들의 이야기였다。

金은 78년2월 東亞체육관에 입문, 金賢治관장의 지도로 권투를 배우기 시작했다。1년6개월가량 기초기술을 익힌후 79년12월 전국신인왕 대회에 처음프로선수로 출전, 웰터급서 우승함으로써 유망주로 떠올랐다。결승전날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나 눈물을삼키며 링에올라 신인왕 타이틀을 차지했던 집념의선수。강호 柳濟炯(前세계챔피언 柳濟斗의동생)을 물리치고 한국타이틀을 차지한 黃은 승승장구, 동양랭킹1위를 확보하여 이번에 黃忠載와의 지명타이틀매치를 갖게된것이다。

금년들어 金得九에 이어 黃俊錫을 동양 챔피언으로 만들어낸 東亞체육관의 金賢治 관장은 黃에 대해『몸이 엄청하나 임기응변에 강하여 상대에 따라 스타일을 바꿔 싸우는 재치있는 선수다。맷집이 좋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힘도 갖고있다』고 말했다。朴鍾八과 자주스파링, 기량을 쌓아왔는데 펀치력과 細技를 강화하는것이 앞으로의 과제。

키1m72의 黃은 프로전적 16연승(7KO)을 기록하고 있으며 6월초순 외국선수와 서울서 논 타이틀전을 벌일계획이다。【金仁奎기자】

女넓이뛰기 한국新 金美淑

入門4개월…단거리서 轉向 偏母의 막내로 눈부신성장

한국육상에 청색신호가 켜졌다。무명선수였던 金美淑、韓敏洙가 18일 시즌오픈 기록회서 각각 한국신기록을 수립、밝은 내일을 약속해주고있다。여자넓이뛰기의 金美淑(이화여고 3년)은 단거리에서 넓이뛰기로 전향한지 4개월만에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金美淑은 78년 忠南泰安女中에서 서울 신경여중으로 전학하여 육상과 인연을 맺었다。단거리 선수로 출발한 金은 그동안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3위에 한번 입상한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단거리 선수로 한계를 느낀 金基榮체육교사는 지난1월 金에게 넓이뛰기 선수로 전향할것을 권유、넓이뛰기 선수로 변신했다。『연습을 시켜본결과 기록 진전이 비약적이었읍니다。처음에는 넓이뛰기선수로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컸읍니다』고 金基榮교사는 말하고있다。

金은 평소 연습에서도 6m05를 거뜬히 뛰어 한국기록경신에 자신을 갖고있었다。金은 1차시도서 5m40、2차시도서 5m60、3차시도서 5m79를 뛴후 4차시도서 한국기록 6m01을 4㎝능가한 6m05를 뛰었다。

金基榮교사는『金이 한때 단거리선수로 활약하여 스피드가 좋으며 뛰는순간의 스텝이 뛰어나다』고 말하고 뛴후의 착지상태가 나빠 이것만 고치면 대성하겠다고 전망했다。홀어머니朴敬姬씨의 2남5녀중 막내。1m65、54㎏

프로제친 아마골퍼 金桂憲

亞洲서키트 휩쓴 在日동포 "아시안게임도 金메달 겨냥"

『오는 11월 印度 아시안 게임서 금메달을 차지하기위해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아시아 서키트골프 9차전서 2백85打로 정상에 오른 金桂憲(日本大4년)은 올해 나이21살의 아마골퍼。각국의쟁쟁한 프로선수들을 물리치고 얻은 우승이어서 더욱 의의가 크다。

3라운드까지 金이 선두를 고수하자 갤러리들은『과연 金桂憲이 우승할까』『한국 프로골퍼들은 어떻게 된것이냐』며 회의와 자탄을 쏟았다。

한국오픈은 물론 아시아 서키트서 아마선수가 프로를 제치고 우승한것은 처음。

金은 중학교때 골프를 시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싱글이 되었다。77년 17세때 한국아마선수권서 우승했다。金은 日本 오픈·골프선수권대회서 톱·프로인 오자끼·마사시(尾崎將司)와 함께 라운드、오자끼로부터 장래가 촉망된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지난2월 하와이에서 열린 제6회 존·번즈 국제대학생골프선수권대회에 日本大 주장으로 출전、개인전 1위를 차지했으며 日本大를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었다。

국내골프계에서는『金이 오는11월 아시안·게임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낼수 있을까』에 관심을 쏟고있다。모국에서 우승해 한없이 기쁘다고 소감을밝힌 金은 내년 대학을 졸업하면 美國에 건너가 본격적인 골프수업을 하겠다고。프로로 전향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대해『아직 기술이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대답、아시안·게임서 金메달을 따는데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金은 이번대회 아마부문서 3連覇를기록、각종대회서 22번의 우승을 거두었다。핸디5인 아버지金炳祚씨(63)는 가와사끼에서 식당을 경영하고있다。

1m72、63㎏。차분한 성격으로 음악감상과 드라이브를 즐긴다。【閔炳宅기자】

流星의 賦 〈36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고독한 英雄 ⑰

이미 말한바대로 6월11일, 임금은 평양을 떠났다。배행한 사람은 영의정 최흥원과 노신 정철이었다。

대가(大駕)가 숙천에 도착했을 때 또 한번 회의가 있었다。함경도로 갈것인가,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왕비를 어떻게 할것인가하는 문제를 토의했다。이 회의에서 뭐니뭐니해도 명나라 군사를청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니 대사헌 이덕형을 청원사로 보내기로 결의했다。

12일에 임금의 일행은 안주에 도착했다。백성들은 이미 도망쳐버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도망병들이었다。뜬눈으로 이곳에서 밤을 지내고 13일 영변으로 갔다。이곳 성민들도 도망쳐버리고 없었다。판관 황기(判官 黃沂)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뾰족한 수가 난것은 아니다。임금을 비롯하여 모두들 굶을 수 밖에 없었다。

이날 밤 한응인의 보고가 있었다。

『적은 이미 강동의한까지 나와 있어 여울 하나를사이에 두고 대적(對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때 임금이 좌우를 둘러보고 말했다。

『오늘의 상황으로선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내가 세자(世子)와 함께 같이 간다면 아무런 가망도 없다。나와 세자는 길을 나누어 가는 것이 상책일것 같다。그런데 내일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지 정해야 하겠다』

승지 이국(李國)이 아뢨다。

『상국(上國)은 부모지방(父母之邦)이로소이다。이제 마땅히 의주(義州)로 가시어 사람을 보내 천조(天朝)에 호소하여 우리를 도우게 해야할 줄 압니다。사 불리하면 압록강에 빠져 죽어 천하에 대의를 외쳐이 좋을까 하옵니다』

유성룡과 이항복도 이에 동의하여

『청하옵건대 의주로 가시옵소서』

했다。

이때 임금의 말이 있었다。

『만일 내가 요동(遼東)으로 간다고 하면 운데 나를 따를 사람이 있겠는고』

이국과 이항복이 눈물을 흘리며 임금을 따라 가겠다고 했다。그러자 임금은 최흥원·이헌국·이성중을 돌아보곤

『경들은 모두 늙었으므로 세자(世子)를 따르도록 하시오』

하고 한준에겐

『경은 부모님이 계시니 남아서 세자를 도우라』

고 했다。만좌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윽고 임금은

『부자가 같이 압록강을 건너간다면 나라엔 주인이 없게 될것이니 세자는 이땅에 남아 묘사주(廟社主)를 받들고 사방에 호소(呼召)하여 부흥을 도모하라』

는 영을 내렸다。

다음날 14일, 임금과 세자는 분행(分行)하길 정하고 각각 따라갈 사람을 정했다。임금은 늙고 병든사람을 제외하고 건강한 사람만 선택했다。이 선택에서 제외된 지평 이정신(指平 李廷信)은

『신은 마땅히 대가(大駕)를 따라야 하나이다』

하고 울부짖었고, 전호판(前戶判) 한준은 임금과 동행할 선에 들었는데 낙마(落馬)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핑계를 대고 성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90〉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 ㉔

인재는 수지가 보고싶었다。헤어진지 불과 몇시간후 이건만 그 몇시간의 중대한 의미를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다。그는 시계를 보면서 그 동안을 정확하게 셈했다。그는 막연히 그 동안이 두려웠다。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육감으로 그동안이 두 사람 사이의 지금까지의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란 걸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털어버리기 위해 고개를 흔들었다。그러나 그의 열등감이 심각할수록 불길한 생각도 집요했다。한시바삐 수지에게 위로 받고싶었다。그런 늪처럼 밑도 끝도없는 미망(迷妄)에서 그를 구해줄사람은 수지밖에 없었다。

저만치 공중전화가 보였다。여러대의 전화통마다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서 있었다。밤늦 열차가 도착했기 때문이었다。인재도 그 줄으로 가서 줄을 섰다。가슴이 벅차 처음 서울역에 내려서 가난뜬 인연에 온갖 기대를 걸고 전화를 걸 때처럼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의 차례가 됐다。제발 수지가 받았으면。동전을 밀어 넣으면서 기도하듯 그렇게 빌었다。그건 수지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번번이 하는 그의 버릇이었다。그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수지네 식구들이 싫었다。어린 아이들까지도 전화받는 솜씨가 밤자했다。잠깐 기다리라 해놓고 공중전화의 삼분통화시간을 넘기긴 보통이었다。그래도 수지가 못 받았을 때 이름이나 식모가 받는 게 재수좋은 편에 속했다。수지 오빠는 영어 놓고 안 바꿔줬고, 올케는 목소리를 알면서도 누구냐고 꼬치꼬치 따지고나서도 요핑계 조핑계로 따돌리기 일쑤였다。지금 이 몇신줄 알고 전화질이냐고 설교할 적도 있었다。그는 올케 목소리만 듣고 도미 끊어버린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재수 나쁘게 이번에도 올케가 받았다。그러나 인재 목소리를 듣더니 반색을 했다。

『어머, 인재 학생 아녜요?』

『아, 네』

인재는 이제 학생이 아니라고 정정하려다 말고 이렇게 얼버무렸다。

『아가씨 아직 안들어왔어요。아마 오늘은 좀 늦을까 싶은데…』

왜 늦느냐고 물어와주길 바라는 것처럼 말꼬리에 은근한 여운이 감겼다。

『아, 네 혹시 왜 늦는다는 연락은 없었던가요?』

『연락은요。마침 마땅한 혼처가 생겨서 오늘 양가 선을 봤거든요。선보고나서 두사람만 남겨놓고 돌아온지 얼마 안되니까 지금쯤 둘이 어데 근사한 데 가서 재미 보고 있겠죠 뭐。』

『선을요? 수지가요?』

인재는 자기가 듣기에도 생뚱스런 비명을 질렀다。

『어머머, 놀라긴。인재학생은 그럼 이 얘기를 처음 듣는군요? 이상하다。벌써 언제적부터 말이 있었던 혼담인데 어쩌면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여지껏 그 얘기를 안했담。우리 아가씨 무심한 건 아무튼 알아줘야 한다니까』

인재는 인사말도 잊고 전화를 끊었다。수지네 식구한테 처음 해본 긴 말이었고 처음 받아본 친숙한 대접이었다。인재를 다만 수지의 가장친한 친구로서 못박기 위한 그 도시적인 세련된 간교함이 인재를 어리둥절하게 했고 골 적중케했다。

이상하게도 수지가 밉거나 야속하진 않았다。다만 어떤 계략에 빠졌을 뿐, 수지의 의사는 아닐 것을 믿었다。

演藝소식

가수 玄仁씨등 일행5명 미스 濠洲선발大會 위문공연

가수 玄仁·朴祥奎·韓明淑·鄭愛利·임향숙과 기타리스트 李仁杓씨가 오는30일 시드니에서 열리는 미스호주(재호주교포) 선발대회겸 위문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한인회(회장 閔成植) 초청으로 28일 출국한다。

미스호주 선발대회는 올해 처음 창설된 것으로 미스호주 眞은 오는5월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미스 코리아 본선대회에서 국내대표들과 아름다움을 다투게된다。

◇玄 仁

◇韓明淑

◇鄭愛利

「사랑의전화」美洲지부 LA등 9개都市에

한국사회봉사진흥회가 마련한 「사랑의 전화」가 미주지역에 지부를 설정하게 된다。지부설정예정지역은 로스앤젤레스、뉴욕、워싱턴、하와이등 9개도시로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교포들에게 사랑의 운동이 번져나가게 된다。

사회봉사진흥회장 沈哲湖씨는 22일 출국、미주지역 지부설정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는 국제사회복지위원회 제109차회의에 참석、「자원봉사자의 사회적 공헌유도」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否定的내용만 報道 레이건 美TV비난

정치와 매스컴은 미묘한 관계에 있다。최근 레이건 美 대통령은 TV뉴스가 부정적인 내용만 보도한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레이건 대통령은 TV뉴스가 미국경제를 개선시키고자 힘쓰는 그의 노력을 손상시키고있다는것。TV를 틀기만 하면 으레 실직자나 시해고자들의 인터뷰가 등장한다는 비난。

레이건 대통령은 TV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 심리적으로 미국경제 회복을 늦추게하는 악효과를 줄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연극영화」감독상받은 李元世감독 父親喪

제18회한국연극영화예술상에서 감독상(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을 받은 李元世감독의 부친 李成權씨가 18일하오6시 경북金陵郡開寧面東部1洞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향년 80세。발인은 20일낮12시이며 장지는 경기도楊州郡 모란공원묘원。

미인대회 상품기증

- 한국왕복항공권(제일여행사)
- ㅇ. 로렉스 여자용손목시계(은하보석상)
- ㅇ. 진주목걸이, 진주반지, 진주귀걸이(14K Gold) 고급화장품 3셑트(미도파)
- ㅇ. 고급여자용 썬글라스2개(블란서제) (블루아안경점)
- ㅇ. 녹용($150상당), (동양한약상사)
- ㅇ. 홈·셑트($100 상당)(블루아 하드웨어)
- ㅇ. 고급벽시계(김종조 종합보험)
- ㅇ. 금일봉 ($100) (황재필)
- ㅇ. 참가자 전원에게 꽃다발(코리아타운 번영회)
- ㅇ. 20" Panasonic Color TV 1대 (아카데미 TV및 파나소닉사제공)
- ㅇ. 이태리안 3 Colour 금목걸이 (Young-Sook's Jewellery)
- 샘손나이트 화장품케이스 1개($100상당) (거북이선물센타)
- 코닥 칼러 버스트·카메라 1대(빅·세븐 선물센타)
- 11×14 사진를 포함, 전 독사진($150)(새한칼라)
- 에코시가구점 안락의자($200상당)
- 실업인협회 $300
- ㅇ 블란서제 고급화장품 (로마노미용실)
- ㅇ D. Y. 가주미 25 Lb. (10개) (동양식품)
- ㅇ 금관 (무나미트로피-이기훈)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금주의 새리스팅

ㅇ고층 아파트먼트 빌딩들

① 12층, 89Unit, 100대의 주차장을 가진 10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2,400,000

② 15층, 104Unit, 129대 파킹시설, 3에이커, 실내수영장, 11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3,450,000

③ 12층, 241Unit, 오타와에 소재
가격 : $5,780,000

이외에 여러종류의 사업체
(버라이어티, 식당, 도넛샵, 기프트샵등)

※메트로 토론토 전역을 카바하는 가옥매매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주간女性

City of Toronto

The City Needs Your Help…

We need your help in broadening the representation of racial and ethnic minority groups, women, and disabled people, on City of Toronto Boards and Committees, to better reflect the cosmopolitan nature of the City.

At mid-year, the following citizen appointments must be made:

Agency	Number of Appointments	Remuneration
COMMITTEE OF ADJUSTMENT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Mr. Charles Taylor, Administrator & Secretary Treasurer at 367-7565	(1)	$7,739
CITY CYCLING COMMITTEE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Mr. Jack Harvey at 367-7030	(2)	—
TORONTO RECYCLING ACTION COMMITTEE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Mrs. Jane Lockwood at 367-7030	(2)	—
PARKING AUTHORITY OF TORONTO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Mr. Reginald Lewis, General Manager, at 923-6616	(3)	Chairman $8,270 Member 5,789

Do any of these organizations interest you? With our new Outreach Programme it's easy to apply. Just telephone 367-7020 and ask for an application form.

Your application must be received by the City Clerk, 2nd Floor, City Hall, Toronto, M5H 2N2, no later than Friday, May 7, 1982.

A nominating committee will choose the candidates best suited for these positions. Preference will be given to residents of the City of Toronto.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전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식 품 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W.(2nd Fl) TOR. ONT. M6G 1L1
전화 : 533-9387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약 국

돈 밀 약 국
전화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 남 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전화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전화 : 746-0675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장 의 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88 LAKESHORE BLVD.W. WINDOW SHADE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박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전화 : 960-0074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전화 : 267-2292

미시사가한글학교
전화 : 822-6438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김미영한국민속무용연구소
전화 : 499-5079

Using Language Labol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743-0752 서 춘 봉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redacted]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합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486 0397 (Mrs. Kim)

[illegible]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illegible] : 533 7759 Mr. 박
지렁이 잡으러가는 지역에 좋은 농산이 많음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전화: 534-5068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수 있는
치과에서 일하실 Receptionist구함
전화 : 233-9454, 781-9591, 535-2798

Juice Bar에서(주방) 일하실 여자분 구함
영어 못 하셔도 관계없음
전화 : 438-0403 6시이후

Gas Attendant구함
전화 : 782-6311 (Mr. Lee)

청소하실분 구함
전화 : 630-2450 (Mr. Cho)

지렁이 잡이 경험이 많은, Mrs. 윤 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합니다. 특별우대함.
전화 : 291-4547

◆ 도너쯔 Shop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근무시간 : 11:00a.m.-7:00p.m.

◆Variety Cashier 유경험자 구함.
토. 일 근무 12:00-10:00 P.M.
Young × Eglinton 전화 : 482-4088 481-2172

Store Manager 구함
월 $2,500 이상 보장. 몬트리올지역. 유학생도 가함.
전화 : 932-7775, 524-7775

꼭히 서부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지렁이잡이에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매주 금요일지불함)
전화 : 656-8937 (Annagickopoulos)

DONUTS SHOP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실 여자분(Full Time)구함
전화 : 531-2689

남자 주방 헬퍼와 여자 웨이트레스 구함.
628 BLOOR ST. W.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롬), 531-0773(김)

유경험자 Cashier 구함
학생환영(Kingston Rd.×Woodbine)
전화 : 691-3666

Full Time 캐쉬어 구함
전화 : 923-9948 Mrs. 정

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파트타임)
미시사가 Lorne Park 지역
전화 : 278-8101, 822-4179

Mall 속에 있는 Ice Cream가게와 그로서리 스토아를 맡아서 하실분 구함.(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1184 Weston Rd.

신체 건강한 남자분으로서 피아노 수리, 재생, 조율등 전반적인 테크닉을 배우실분 구함.(Full Time)
Start Pay : $3.50(시간당). 전화 : 783-6871

1) 배우실 분
컴퓨터식자 · 진식자 (한글타자 경험자면 더 환영)
2) 여름방학동안 Full Time 일할 학생구함.(24세 미만)
(6월부터 8월까지)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1

3월말경에 Dundas와 Bloor사이 로상에서 본인 임동호의 여권을 분실하였기에 유감스럽게도 여권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바 혹 이름으로라도 분실된 여권입을 찾을수있을까 하여 광고를 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연락처 : 536-4039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매매및 양도

컴퓨터식자기 운영으로 인해 과거에 사용하던 사진식자기(SAKEN SPICA-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533-2364 Mrs. 김

MITA COPIER 500D (Very Good Co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BIBLE STORY (전 10권) Set $240.-
전화 : 769-4366 (오후 6시이후)

가게 팝니다.
전화 : 656-5358(저녁 8시이후)

아파트 4채가 있는 집수리 끝낸 건물팝니다.(서쪽끝) 아스킹 : $199,900
전화 : 465-2073 오전 10:00 - 밤12:00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MODERN CLOTHING STORE FOR SALE
중앙지역,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전화 : 465-2073 10:00a.m.-12:00p.m.

Using Language Labol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1. [illegible]사리에 새로 OPEN하는 DONUTS SHOP
현찰 $40,000 요구 리스: 20년 Rent: $2,300
아스킹 : $140,000
2. 주매상 $6,500의 DONUTS SHOP
Long Lease,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30,000
3. 주매상 $8,000의 DONUTS SHOP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9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각종보석 인벤토리 SALE
세번씩 보석디자인상을 받은바있는 바루주·타바키안씨 (Varouj·Tabakian)가 처음으로 Public에게 Open하며 최저가격으로 봉사할 예정임.
107 Church ST. #400
Call "Varouj(바루쥬)" 362-0507
Open Hour : 10 : 00A·M - 6 : 00P·M

성업중인 세탁소 급매
(Dry Cleaning Plant)
전화 : 922-9847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3 Bed Room 건물딸린 Variety Store 급매

Hamilton Downtown Busy area.
주매상 : $4,200~$4,500 Extra 순수입 : $900~$1,200(월)
Ask Mr. Kim 전화 : 1-525-2115

성업중인 식당(Tavern)급매(L.L.B.O.있음)
리스: 18년, 주매상: $10,000이상.
좌석: 150(1층), 218(Banquet Hall)
아스킹 프라이스: $300,000 (Cash일 경우 $250,000)
Downpayment : $150,000 이상 요구
위치: Birchmount와 남쪽 Eglinton 전화 : 222-7494
(12:00-2:00의 점심시간은 피해서 해주실 것)

1) 그로서리 (주매상 : $7,500) 아스킹 : $70,000
2) Fish & Chips (Yonge×Bloor) 아스킹 : $99,000
3) 건물 (Bloor × Christie) 아스킹 : $159,000
4) 건물과 식당 (Dundas-Hwy10) 아스킹 : $329,000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황 순 일 481-3443.

Pape Subway 근처에 좋은 장소의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아스킹 : $62,000 주매상 : $8,000
Carol Chao 596-8681, Julius Aloi Real Estate.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틀림없는 이윤을 보장하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4,000, 아스킹: $35,000+스탁
전화 : 465-4385

PIZZA STORE 매매 (London, Ont.)
주매상 : $2,000이상, 영업시간 : 오후4시~새벽1시까지
전화 : 1-519-681-7631(B) 오후 4시이후 연락바람

TWO DOOR POP COOLER 팝니다.
전화 : 438-1528

좋은 위치에 모든 라이센스 갖추고 있는 식당급매
좌석 : 180 (Banquet Room은 따로 있음)
주매상 : $10,000~$12,000, 렌트 : $850(Mon.)
Owner will take back mortgage.
Asking : $250,000
Call Joe. 787-0491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Tuck Shop) 전화 : 842-2917

세탁소 팝니다. 그리고, Shoe Repair, Lottery Tickets, Rug Cleanig and Laundry
461044 Ontario Ltd. 전화 : 595-1570

좋은 위치에 있는 조그만 가게 Lease를 팝니다.
Smoke Shop이나 Dry Cleaning Depot. 하기에 적당함.
혼자서 하기에 알맞음. 아스킹: $3,100 전화: 431-1358

일손이 모자라는 관계로 이윤좋은 과일및 꽃가게를 급매.
주일은 휴업이고 6일 주매상 현재 $4,000~$4,500.
계속 주매상이 오르고 있으며 장비값만 $50,000이상임.
아스킹 : $48,000. 관심있으신분은 O·K오토바디 김희삼에게 연락 주세요.(Carlaw×Gerrard)
전화 : 251-9889(B) 242-4551(R)

사무실·점포 렌트

사무실렌트 위치:20 Mobile Dr(한인회관) 크기:1)3.6m×3.8m 2)2.6m×4.4m 위의 방이 같이옆에 위치해서 있으며 함께 또는 각기 임대 할수도 있음. 전화 : 755-9288

하우스 렌트

2 Bedrm-렌트 King+Dufferin
전화 : 536-4250(오후6시이후) 535-1251(낮)

집 독채 세놓읍니다.
방4개, 지하실 꾸며져 있음.(세파드+파머시)
전화 : 757-6334

매매 부동산

복 더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과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성)
전화:633-7892(R)497-8900(B)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메리야스

큰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2R1 전화 : 759-9505 (5시이후)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전화 : 281-1677 이 영 화 (전 대학강사)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482-0166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VACUUM CLEANER 출장수리
카페트 CLEANER & SHAMPOOER
전화 : 881-4915 Mr. 조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클 링 턴 하 우 스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김 영 규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6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 한국일보 안내광고 *